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 과제로서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통일이다. 통일이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진다면 통일을 이끌어갈 주체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다. 우리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동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이 어떠한 의식과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통일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라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의외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중 하나인 북한청소년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북한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절실하다. 즉 북한청소년의 장점·단점, 특성, 우리 한국청소년과의 차이점 등에 관해 올바르게 알고 이를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올바른 실상을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모든 정책은 대부분이 그대로 청소년정책에 반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북한의 경우 청소년들은 사회의 보호대상 또는 열외대상으로 보다는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조직 그 자체로 분류되고 또한 사회를 주도하는 주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북한 지도부(김정일)의 정세인식과 정책결정이 청소년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 예를 들어 당비서국의 청소년부가 주요 핵심적인 청소년정책을 결정하며 또한 청소년조직인 소년단과 사로청의 활동을 지도하고 통제한다. 당비서국은 당연히 김정일의 수하기관이며 따라서 김정일의 정책결정의 범주내에서 모든 청소년정책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적·문화적 환경으로 부터 형성되는 북한청소년의 인성과 행동의 대부분은 당의 지시를 받은 청소년조직과 이를 통한 집단생활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북한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은 이데올로기적 환경 즉, 정치·사회적 환경의 영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존재와 보편적 추세로서 나타나는 일반적 존재로서의 청소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환

경에 따라 이 두 측면이 일치할 수도 있고 반대로 두 측면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두 측면이 일치되지 않고 괴리가 심할 경우에는 이질감이 심화되어 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이 개방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후자의 경향이 조금씩 증대되기 시작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짐을 단순한 사회의 변화 양상으로 보는 것은 북한의 변화현상을 너무 단순화 시키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여 현재 북한청소년의 인성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한청소년의 조직과 집단생활에 대해 분석하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북한청소년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2) 북한청소년연구의 과제

한국에서 북한에 관한 연구활동이 학문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1960년대에 싹트기 시작한 북한연구가 1970년대부터는 상당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학’으로서의 북한연구 또는 ‘북한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치학 또는 국제정치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리 나라의 학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공산권 연구의 주류가 정치학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따라서 북한사회와 문화에 관한 연구 특히 청소년분야에 관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야 교육학부문에서 북한청소년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부문 이외에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북한청소년연구에 대한 문제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지금까지 북한청소년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활용해 온 자료는 주로 ‘간접적인 자료’ 또는 ‘2차 자료’이었다. 북한연구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학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자료수집을 한 예가 없을 뿐더러, 외국학자라 할지라도 북한을 여행한 사회과학자는 극소수이었으며, 또 그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관찰을 할 기회는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간접자료는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록된

자료, 문서자료가 주종을 이루고, 다음은 북한에서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귀순한 사람들의 경험을 청취하는 형식의 간접자료이었으며, 간혹 북한의 출판물, 대중매체 등이었다(이은죽, 1990 : 14). 한편 주로 공식기록, 법률문서, 보고서와 같은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자료를 다루게 되면 불가피해지는 현상으로서 사실적인 분석보다는 규범적인 분석에 치우치는 경향을 띄어 왔다.

나. 연구자료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북한청소년 관계자료가 수량화된 것이 아니고, 수량적인 자료가 기본이 되는 인구통계, 범죄통계 같은 것들마저 발표된 것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제한되고 신뢰도가 낮은 것들 이었다. 그러므로 자료의 계량적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실지로 그런 분석의 예를 찾기가 어렵다.

다. 지금까지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공통된 한 가지 특색은 주어진 주제를 취급할 때에 그 주제에 거의 한정된 범위의 이론적인 틀, 개념도식 같은 것을 간략히 제시하고 북한청소년의 특성을 그 제한된 눈으로 제한된 측면만에 국한시켜 논술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는 점이었다.

더 나아가 북한청소년 연구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하에 청소년연구를 연계시키는 일종의 지역연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한 측면만을 연구할 때 부분적인 현상을 일반화된 이론으로 정립시킬 위험이 있다. 기존의 북한청소년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이 워낙 저조하였다. 북한청소년연구도 지역연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전체를 조명하는 가운데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연구목적

(1) 남북한청소년 동질성 회복

우리 민족은 분단 이래 남북이 각기 다른 제도와 상황하에 살아왔다. 더우기 이념적인 대립과 전쟁의 기억을 가지고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지내왔다. 한 가정으로 보면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을 한 상태에 있는 결손 가정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단국가라는 상황은 개개인에 대해 정신적 부담과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동족상잔의 역사를 가지도 있다는 기억과 이로 인한 감정의 대립은 민족동질성에 대한 의식을 왜곡되게 해왔던 것이다.

국제사회는 바야흐로 세계화 되어 감에 따라 기존의 이데올로기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민족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국가·민족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통일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의 준비는 더욱 필요한 것이다.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 세대에게는 무엇보다도 만남을 통하여 분단의 역사가 가져온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소외감과 왜곡된 시각을 극복하고 서로 우의적인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한과 북한의 청소년은 상호 이질적인 이데올로기를 교육받아 왔고 윗세대들의 상호 불신의 의식을 그대로 답습해 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는 윗세대들에 비해 감정적 대립에서 벗어나 이념적인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내재해 있다. 그들은 민족간의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감정대립이 일어날 요인이 윗세대들 보다 많지 않으며 또한 그들에게 내재해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통해 쉽게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를 이끌어갈 남북한의 청소년 세대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반 연구 가운데 북한청소년생활의 핵심인 조직과 집단생활은 물론 변화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작업이라 할 것이다.

(2) 전체에 대한 인식

북한체제는 기존의 체제분류나 모형으로는 적절히 취급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특수체제라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체제에서 왕조적인 권력승계의 방법이 시도된 사례를 북한 외에는 찾아 볼 수 없다. 북한을 특수체제라고 할 때엔 바로 그 특수성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정리해야 되는 연구의 부담이 남게 된다. 모든 체제는 어느 정도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의 정도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기존의 체제분류나 이론을 적용하는 평범한 방법을 넘어서 북한체제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가 아직 체계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북한연구의 일부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북한의 위치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

다. 북한은 우리 민족, 즉 “자(自)”의 반쪽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우리와 생사를 걸고 대립하고 있는 “타(他)”임을 잊을 수 없는 일견 모순된 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이흥구, 1987 : 9).

하나의 전통과 주체성을 이어왔으며 이어가야 한다는 민족사적 차원에서 볼 때엔 북한사회와 북한의 청소년들은 당연히 “자”의 일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동족상잔의 뼈아픈 경험이 구조화된 현실적 대립관계와 직면할 때엔 북한은 우리에게 최대의 위협을 주고 있는 “타”임에도 틀림없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의 분열현상을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이해하는 좀 더 폭넓은 연구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체제에 대한 총체적 성격이 규정되어 있으면 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유기적으로 종합화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청소년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성격을 먼저 규명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체제론적인 시각에서 북한사회와 청소년과의 관계성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3) 심리적 차원의 인식

북한사회를 이해하는 데에는 지적 차원과 함께 심리적 차원이 개입된다. 북한의 이해란 단순히 지식의 폭이나 깊이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우리의 심리적 자세에 관련된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잠재적 영향력을 구사하는 무의식적 차원에서의 심리적 자세는 분단과 동족상잔의 쓰라린 경험 속에서 탈피하지 못한 우리에게서 개인, 집단 및 체제의 행동 및 운영양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일 것임에 틀림없다.

단순한 이해이든 체계적인 연구이든 간에 그 주체는 인간이며, 인간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은 심리적 요소에 의하여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수긍한다면 한국인들이 특히 남북한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상대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심리적 자세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북한청소년연구나 통일문제연구를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남과 북의 청소년이 서로에 관하여 지닌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일종의 심리도를 작성하는 노력이 그 성과 여하에 미리 구애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청소년이 서로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심리도를 그려 보기는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지만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첫째는 최근에 크게 발전하고 있는 심리분석의 방법을 그러한 작업에 도입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학작품의 내용분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성공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면 북한연구가 사회과학발전에 공헌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홍구, 1987 : 16-17).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의 세대에게는 무엇보다도 만남을 통하여 분단의 역사가 가져온 문제점을 인식시키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소외감과 왜곡된 시각을 극복하고 서로 우의적인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남북간의 불신감을 극복하고 상호 신뢰구축이 청소년의 만남을 통하여 통일의 전초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이해를 위한 심리적인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남북청소년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청소년이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통일의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상호간의 심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또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김일균, 1994 : 4).

(4) 북한청소년변화에 대한 동태적 인식

최근까지 북한청소년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연구는 북한체제의 폐쇄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정체적인 연구가 주종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북한이 개방되면서 체제와 사회에도 변화가 일기 시작하면서 동태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1994년 국제사회를 떠들석하게 하였던 북한의 핵무기개발 문제를 둘러싼 미국·북한 간의 교섭을 계기로 북한은 부분적이기는 하나 개방정책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북한 개방화의 속도는 낮지만 북한체제가 앞으로 변할 것이 틀림 없다.

또한 최근 입수된 자료들에 의하면 북한청소년의 의식과 행동도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북한청소년에 대한 정태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현재 변화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변하게 될 북한청소년의 모습을 연구하는 작업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변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히 분석해야만 미래에 나

타날 북한 젊은 세대들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한국에서의 청소년정책을 구상하고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통일정책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 모색

가. 정부차원

기존의 한국의 학교교육정책은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반공정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적대심을 주입시키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통일에 대비한 청소년 정책이 부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통일에 대비하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북한청소년의 모습과 또한 변해 가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모습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청소년 연구가 활성화되어 정부의 통일 정책에 필요한 자료는 물론 연구결과물들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비정부차원

지금까지 비정부차원에서 남북한간에 청소년교류가 제대로 추진된 바가 전무하였다. 비정부차원에서 남북학생교류 또는 북한방문을 제안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국민의 반대 여론과 정부의 강경한 반대정책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한 정부정책에 도움이 되는 범위내에서 남북청소년교류를 인정한다는 가정하에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를 비롯한 비정부 차원에서도 남북청소년간의 교류를 준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는 물론 변해가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모습을 정확히 분석하는 북한청소년에 대한 연구작업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1) 방법론 1: 이론적 배경

앞으로 북한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틀은 어떻게 정

립할 것인가? 먼저 기술적 차원을 고려해 보면, 주지하다시피 북한사회연구의 일차적인 장애는 자료에 있다. 자료입수 가능성의 제약, 자료부족 등을 비롯하여 자료의 신빙성·비체계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 점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한정된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발전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주어진 문서·기록자료를 모집단으로 하는 ‘내용분석의 접근법’을 제대로 활용하는 길이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내용분석은 해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초보적인 수량화가 아니면 이른바 서술적 측면에서의 질적 분석이라 하겠다. 어떤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합당한 부분만을 발췌 인용하는 절차가 지배적인 것이었다(이온죽, 1990 : 20-21).

이제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할 때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자료가 무척 규범적이고 획일적이며 공식적인 경우가 거의 전부이므로 이를 액면대로 분석하면 거의 무의미할 것이다. 행간을 읽고, 이면의 동기를 추리하고, 의미유형을 파악하고, 해석적으로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새로 개발되고 있는 사회학적 조사연구법 중에 현상학적인 바탕을 지닌 갖가지 질적 연구법이 차츰 널리 소개·이용되고 있다. 북한사회의 연구에서도 이 방법의 실용성을 판가름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기법들의 방법론적인 함의(implication)를 살펴봄으로써 이제 메타이론적인 차원을 고려하게 된 셈이다. 현상학적인 데 바탕을 둔 질적인 접근의 한 가지 특성은 관찰대상의 입장에서 현상의 뜻을 해석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연구자는 일단 자신의 가치, 선입관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자신의 선입관을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실증주의적 태도와 같지만, 후자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한다 해도 그 의미 해석은 어디까지나 연구자의 이론적인 준거틀에 입각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만일 이러한 접근을 북한사회의 연구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보고 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준거틀로 삼아 그 사회의 성격을 파악, 해석해 보고자 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Bernstein, Richard, 1976 ; 이온죽, 1990 : 21).

이와 같은 현상학적 또는 언어분석적 메타이론에 입각한 질적 접근에서는 대상 자체에 대한 관찰자의 가치판단을 일단은 배제하는 자세가 취해진다. 지

금까지 북한연구가 남북관계의 역사적·정치적 상황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하고 접근되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는 현상학적인 데바탕을 둔 질적 접근의 측면에서 성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현상의 본질을 그대로 보고 이해하는 접근이 더 유효하다는 적극적 자세인 것이다.

사회적 역동태(dynamics)를 설명하는 데 있어 또 하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the principle of political selectivity)를 들 수 있다. 이는 모든 사회에 적용되는 원리로서 주요 사회변동이 정치적 선택, 즉 정치 엘리트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인데, 북한사회가 다른 일반사회와 공통적으로 갖는 보편성을 참작하여 이 원리를 적용시킬 수도 있지만, 특히 폐쇄성과 권위주의를 특성으로 하는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북한사회와 청소년에 대한 연구의 경우 매우 설득력 있는 이론이 된다.

종합적으로 북한사회를 그 나름의 역사적·구조적 특색을 지닌 하나의 사회조직의 체계로 인식하자는 것이며, 이는 그 사회의 조직원리로 말미암아 사회가 어떻게 운용되고, 그런 체계 속에서 사회화되는 개인 성원들의 심리적 특성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만 그 사회를 ‘설명’하고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설명과 예측이 가능해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을 ‘정확성’에 가깝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법론 2

(1) 문헌조사

가. 국내문헌: 기존에 연구된 논문, 책자, 내외통신, 방문자 및 귀순자들의 수기

나. 북한문헌: 신문(로동신문, 로동청년 등), 소설, 잡지 등

(2) 면접

가.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들과의 면접

나. 제 3국에서 북한청소년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의 면접: 주로 중국교수, 중국학생 등과의 면접

다. 연구자의 경험: 북한학자, 유학생과의 대화를 참고

3. 조직과 집단의 개념

1) 조직의 개념

(1) 조직의 의미

많은 학자들이 현대사회를 조직사회로 규정하고 있다(Amitai Etioni, 1964 : 1). 현대사회는 조직사회라고 할 만큼 사회의 모든 부분이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다. 현대인은 어느 사회를 살고 있던지 거의 다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대인은 조직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현대사회의 한 가지 특징은 조직화의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인간은 좋거나 나쁘거나 이들 조직 가운데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조직은 목적이 있음으로써 성립되며, 조직의 모든 기능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의 성원을 행동케 하며 또한 행동체계를 규정한다. 조직의 유효성은 조직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모든 성원을 혼연일체로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성원들의 행동은 조직의 목적인 생산이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 보조를 맞출 것이 요구된다. 그것을 위하여 조직 내에는 권위의 체계가 나타나며, 성원들의 행동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와 역할이 특정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성원 각자의 행동을 유효히 하기 위하여 정보·관념·감정·가치의 균일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조직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게 하기 위하여는 이상과 같은 모든 과정이 필요하다(박연호, 1987 : 1-2). 북한의 경우 모든 주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최소한 1개 이상의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다. 북한에서의 조직은 대부분이 정치적 통제를 받게 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조직의 목적이 체제유지와 강화에 있으며 따라서 이데올로기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2) 조직의 구조와 모형

조직의 활동은 결국 개인들의 노력의 집합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한 활동들의 많은 부분은 집단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즉 조직의 관리자가 추구하는 목표의 대다수는 집단내 혹은 집단간의 행위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이

다. 이러한 집단행위의 차원에서 볼 경우, 조직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또는 구성원 각자의 감정이나 욕구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립되고 조직화되어 있는 일정한 양식과 관계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조직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속의 구성원이 그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한, 지위 및 역할관계를 익히고 행동하는 것은 조직구조에 잘 적응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조직의 구조(organization structure)란 인간의 행동관계를 나타내는 일종의 사회체제적 하부구조로서, 조직을 구성하는 부문간의 확립된 관계의 유형(the established pattern of relationships)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직구조란 복수의 인간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조직 구성원의 행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실존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박연호, 1987 : 174-175). 이러한 조직구조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 전통적 조직구조의 모형

전통적인 조직구조는 투입을 최소로 하면서 산출을 최대로 하려는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주어진 조직의 목표와 수단의 합리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측면에서 공식적 조직구조의 합리적 편성과 관리를 강조한다.

그리하여 수직적인 분화구조로서 계층제와 집권화·분권화의 주도면밀한 체계를 확립하여 조직내의 상하 권력·권위관계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힘’의 근원을 명확히 규정하며, 수평적 분화구조로서 조직편성의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분화에 따른 통합구조를 마련하여 조직 속의 행동에 있어서 조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공식적인 규정·절차 및 조직구도 속에 일목요연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체계적 조직구조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 그 자체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를 도외시한 것이므로 일종의 폐쇄체계적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민주적 조직구조의 모형

오늘날 조직인은 자아실현 욕구를 추구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는 존재이다. 따라서 조직의 목표나 가치적 측면에서만 조직을 보아온 전통적 조직관

을 수정하고 조직의 가치나 목표적 측면과 더불어 조직 속의 인간의 가치나 목표적 측면을 동시에 중시하는 조직과 인간의 통합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조직 속의 인간의 가치를 인지하고서 그들을 조직의 의사결정과정에 평등한 권력의 행사자로서 참여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조직인의 인간화와 민주화를 위한 조직구조의 모색과 관련되는 것이다(박연호, 1987 : 176-178).

북한의 청소년조직을 비롯한 모든 사회조직은 수직적 구조와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폐쇄체제적 모형에 해당하는 전통적 조직구조의 모형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2) 집단의 개념

(1) 집단의 의미와 요소

집단은 피서를 위하여 백사장에 모여 있는 무리(host)나 연주회를 듣기 위하여 모여 있는 군중(crowd), 골목길에 모여 있는 도당(clique) 등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을 집단이라고 보지 않는다(강기호·차호원, 1987 : 63-94). 집단이 갖고 있는 속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B. Shertzer & S. C. Stone, 1980 : 358).

- ① 집단은 그 집단구성원간에 역동적 상호작용(dynamic interaction)이 있어야 한다.
- ② 공통된 목표(common goal)가 있어야 한다.
- ③ 적절한 수적 제한과 각기 역할수행과 관련된 상관성이 있어야 한다.
- ④ 구성원들간에 응집력과 의욕이 있어야 한다.
- ⑤ 자아발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집단의 진정한 의미는 두 사람 이상의 복수성원 사이에 심리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지닌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회체제라고 정의된다. 고영복 교수는 집단의 의미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영복, 1970 : 135).

- ① 성원의 상호의존성
- ② 상호의존적인 공통의 목표
- ③ 면접적(面接的)인 상호작용
- ④ 우리 감정

⑤ 집단동일관(集團同一觀)

⑥ 성원간의 심리적 인지

⑦ 지위와 역할의 강화

이를 토대로 볼 때 북한청소년의 집단생활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국가에서 제시한 공통된 목표(올바른 공산주의 청년상, 김정일의 전위대 등)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생활에서 상호작용은 물론 집단동일관, 우리 감정, 지위와 역할의 강화 등과 같은 특징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집단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M. Sherif & C. F. Sherif, 1969 : 132).

① 집단 구성원간에 고정된 역할과 신분이 정해져 있다.

② 집단의 중요문제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행동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규범(norm)과 가치체계(value system)가 있다

(2) 내집단(In Group)과 외집단(Out Group)

이것은 집단의 폐쇄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집단구성원과 비집단원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생각할 때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집단구성원 자신들을 우리들(we)이라고 부르며 그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그들(they)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서로간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려고 하며 그들 자신의 집단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고 집단원으로서 공동의식을 갖추려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단목적에 너무도 충실한 결과 자기들의 집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것처럼 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 집단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기도 한다(P. B. Horton & C. L. Hunt, 1980 : 179).

예를 들면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벽지의 어느 촌락을 방문하면 이러한 양상을 쉽게 보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외부로 부터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를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촌락에 사는 사람 중 친척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즉시 경계를 풀고 친절히 대해준다. 즉 우리 집단(we-group)의 일원이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척관계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되면 전혀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적대시하게 되는 것이다.

격렬한 운동경기 때 자기가 응원하는 팀과 그 반대의 팀에게 갖는 감정도 일종의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양상은 인종·국가간 또는 지역간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특히 종교인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 북한사회의 종교화, 남한에 대한 적대감 고취, 사회의 폐쇄성 등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원시적이고 미개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간혹 혈연·지연·학연 등에서 이러한 성향이 많이 작용함을 알수 있다.

워터(Warters)와 영(Young)은 이러한 집단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서만 일체감을 느낄 뿐 모든 외집단(out-group)에 대해서는 무관심, 공포, 혐오감, 적대감, 증오감까지 갖는다고 하였다(J. Warters & K. Young, 1960 : 11). 특히 북한청소년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대감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외집단이라는 의식을 심화시켜온 결과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3) 집단권력의 근원

집단내에서 타구성원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는 그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을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이다. 즉 개인의 강한 체력, 미모, 명성, 재력, 기술, 지적능력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있을 때를 둘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른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강한 힘을 갖는 훌륭한 소재가 된다.

이러한 자원을 갖고 있는 구성원은 이것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에게 자원의 일부를 제공해줌으로써 그 구성원의 지지를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회원들에게도 온근한 영향력이나 압력을 줄 수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자가용을 갖고 있는 구성원은 동료 구성원에게 동승할 기회를 제공하고 간혹 그의 집까지 운전하여 줌으로써 그 구성원으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얻어 낼 수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료구성원 중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를 도와줌으로써 역시 그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집단내에서 권력이 생성되는 요인들을 연구한 바 있는 French와 Raven은 권력의 근원이 다음과 같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① 보상적 능력(reward power)

이것은 집단구성원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알게됨으로써 발생한다. 구성원들은 적절한 보상을 기대하고 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자 노력하게 된다.

② 강압적인 힘(coercive power)

이것은 집단구성원이 자신이 행동을 잘못하였을 때 이에 대한 징죄와 벌이 누구로부터 나올 것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발생한다. 구성원들은 그로부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원하고 있는대로 행동하게 된다.

③ 법률적인 힘(legitimate power)

이것은 그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정관이나 규칙에 의하여 특정 구성원에게 어떤 의무와 권리를 위임함으로써 발생된다. 위임을 받은 자는 집단구성원 전체에게 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구성원들은 그것을 준행할 의무가 발효됨으로써 발생된다.

④ 신임적인 힘(referent power)

이것은 집단구성원 각자가 어떤 특정인은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고 그를 신뢰하고 그와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시작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이 아니고 그 집단내의 어떤 하위집단이 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때에는 그 구성원도 이 하위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게 된다.

⑤ 숙련적인 힘(expert power)

이것은 집단구성원 중 어떤 개인을 자기보다도 탁월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생긴다. 단순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도 있고 그의 충고·지시 또는 직접적인 기술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J. French & B. Raven, 1968 : 263-8).

(4) 집단사고

집단사고는 그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여 공통의 목표와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같은 집단사고는 개인사고의 총화라고 할 수는 있으나 단순한 개인사고의 총화보다는 대상에 대한 질적 심화와 양적 확대가 더욱 바람직하다. 집단사고는 집단 안에서의 개개인의 사고를 총화한 조화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학습 및 집단생활을 통해 청소년의 인식을 변혁케 한다.

개인사고와 집단사고는 상반된 성질의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으나 집단사고는 의견의 일치로 주안으로 한 동화(同化)작용이 증대하고, 개인사고는 독창성을 주안으로 한 이화(異化)작용을 증대하고 출발점에서의 차이가 점차 확대해 가는 사고라 할 수 있다. 개인 및 집단사고에 대한 의미를 종합하여 집단사고의 기능과 성립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김재구, 1986 : 83).

- ① 집단사고와 개인사고를 통합적으로 전개하여 그를 심화하고 발전케 한다.
- ② 집단이 지닌 여러 요소나 기능이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을 한다.
- ③ 개인의 요구와 우정이 결합된 협동단결의 정신이 있다.
- ④ 개인의 이익이 전제가 되는 집단이익이 그에 수반된다.

집단사고가 개인 및 집단에 주는 영향으로서는 장점과 단점 양면성이 있으며 이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김재구, 1986 : 85-87).

가. 장점

- ① 집단사고는 성원개인의 지식의 양을 넓힌다. 집단사고에서 서로 틀린 경험을 가진 성원들이 상면하는데서 자기 혼자서 얻기 어려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집단사고는 성원개인의 사고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개인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견해가 심화되고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사고내용을 언어화하는 것은 그 사고내용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사고를 심화함에 유리하다.
- ③ 집단사고는 성원개인의 우호감정을 높인다. 집단사고는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데서 동일집단내의 다른 성원에 대한 애착을 느끼기 때문이다.
- ④ 집단사고는 성원의 대인 행동을 능숙하게 한다. 같은 집단이 문제해결을 몇 번이고 시행하면 각 성원의 능력이 확인되고 그에 수반해서 각 성원에 적절한 일의 분담이 결정될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성원 각자는 집단내에서 자기역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 단점

- ① 집단사고는 성원개인의 개인적인 사고를 저해하기 쉽다. 모처럼 개인이 좋은 의견을 창출하여도 타인의 좋지 못한 강력한 의견 때문에 무시되거나 억압되어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는 자기의견이나 생각이

애매한 경우에는 집단의 의사결정에 복종하는 일이 있다.

- ② 집단사고는 성원 개인의 학습의욕을 방해할 수도 있다. 좋은 의견이나 생각을 창출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거나 하면 학습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 ③ 집단사고는 인격적 파괴를 일으키기 쉽다. 집단사고에 있어서 강력한 리더가 있으면 강한 개인은 나태해지고 아울러 개인의 바른 의견이나 생각도 물리치고 비행을 시인하는 사고가 이루어져 비행적 성격의 형성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5) 집단생활과 청소년의 사고(思考)

청소년들의 생각하는 태도나 방법은 사고능력에 의하여 형성된다.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즐기찬 가치추구의 자세,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자세, 풍부한 상상이나 예리한 직관적 자세, 벗의 의견을 잘 수용하면서 자신의 것을 솔직히 표현하는 자세등의 구체적인 태도는 사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청소년 개개인의 사고능력은 개인의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나 그 학습과 활동을 자극·강화하고 방향을 설정케 함은 사회집단의 힘에 의하여 촉진된다. 즉 사회집단이 지닌 역동적인 영향을 받아 개인의 사고능력이 성립되는 것이다.

청소년의 사고는 집단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하여 상호유발(誘發), 상호갈등, 상호보충되어 더욱 높은 효과적인 사고로의 결실이 기대된다. 이와 같은 사고활동은 청소년의 제반 교육적 활동의 중심적 기능이며 집단내의 상호간의 사고가 교류되어 개인 및 집단의 사고가 촉진되고 교사와 청소년 사이에 또한 청소년 상호간에 있어서의 사회적 승인의 매개가 된다. 개인의 사고 즉 탐구 또는 발견의 정신 및 기술은 집단활동에 의하여 더욱 심화되고 확대되며 향상된다.

II 북한체제의 특징과 청소년정책

1장 북한의 체제적 특징

1절 북한 정치경제체제의 특징

1. 북한정치체제의 특징

북한체제의 형태는 애당초 1948년 정권수립시기를 전후로하여 옛 소련체제로부터 원용된 것이었다. 그것은 공산당이라는 유일당이 국가를 조직·지도하고 지배하는 ‘당·국가’(party-state)원리와 그것에 기초한 ‘당·국가체제’(the party-state system)의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헌법 규정상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 되어 있고, 또 북한체제가 외형상 권력분립을 내세우고 있어도 그것은 사실상 조선노동당에 의한 일당독재의 외형적 기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체제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한마디로 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을 정치권력의 중핵으로 삼고, 국가기구들을 보조받침대로 하는 당·정중심의 일원주의적이고 통합적인 정치권력구조를 제도화하여 왔다.

한편 북한정치체제내에서 김정일에로의 권력세습문제는 권력구조의 제도적 변화와 김일성 절대지배체제확립 이후라는 정치구조적·정치제도적 정치리더십의 형태적 변질과정과 일련의 맥락을 같이 하면서 표면화되어 왔다. 1970년에 당문화예술부장으로 승진된 김정일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제 5기 7차전원회의를 계기로 당권의 핵심인 당조직 및 선전선동부장으로 동용되면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내정되었다(유석렬, 1988 : 19).

그리하여 김정일에로의 20년이 넘는 오랜 권력세습작업은 동시에 북한의 정치권력구조의 부분적인 변화를 수반하였으며, 정치리더십 형태면에서도 ‘수령과 지도자의 공동지배형태’를 띠어왔다. 지금까지 김정일은 권력세습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이념적 환경조건이라 할 수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식대로 살자’고 강조해 왔다(이상민, 1992 : 165).

1) 당·국가체제의 구축

북한의 정치체제는 본래 옛 소련의 소비에트체제 모형을 그대로 이식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당·국가’의 원리에 입각한 당·국가체제적 정치구조였다. 당·국가의 주요원리는 원래 ‘국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곧 국가의 주인’이라고 선언한 히틀러의 나찌당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불세비키혁명과 소련에서 뿌리내린 것이었다. 따라서 당·국가의 개념은 집권당과 반대당이라는 통상적인 정당체제, 즉 민주적 복수정당체제와는 다른 별개의 것으로서 반대없는 일원론적 일당독재체제에서 볼 수 있는 ‘당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국가체제는 오직 하나의 당을 근간으로 한 당지배체제 국가이고, 그 유일당은 ‘하나의 체제로서의 당’인 동시에 ‘하나의 중복된 국가’(a duplication of the state)로서의 성격을 지닌 하나의 단일주의체제(a system of unitarism)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는 대개 ① 일당체제와 국가의 결합성, ② 정치와 행정의 융합성, ③ 당장치와 국가장치의 중첩성, ④ 동일인물의 겸직성 등으로 인해 고도로 단일화가 이루어진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원리와 체제적 특성이 체제형성기부터 그대로 원용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권력구조라고 할 때 그것은 조선노동당의 권력구조를 의미하며, 그러한 ‘당우위의 원칙’에 의해 당은 북한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어, 다른 모든 국가기관들은 노동당의 정책노선을 집행하는 법체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이상민, 1992 : 167).

북한은 모든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을 당의 정책에 절대적으로 따르게 하는 획일적 국가체제를 특성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북한청소년들은 일당제에 친숙하도록 사회화되어 왔다. 따라서 복수정당제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이해하고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게 될 것이다.

2) 수령의 유일영도체제화

1972년 신헌법상의 국가주석제는 과거의 집단지도체제를 버리고 1인지도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온 제도적 변화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내각수상

보다 훨씬 격상된 공화국 주석은 국가수반이며, 군최고사령관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 주석이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고 규정(신헌법 76조)한 중앙인민위원회가 이전의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많은 기능을 인계받았는데 당시 주석인 김일성이 바로 이 위원회의 수위로서 종래에 비해 국가요직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격상, 강화시켰다는데 커다란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김일성이 당총서기직을 맡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국가주석제와 당·정연합기구이면서도 정부원의 지도기관인 새로운 중앙인민위원회의 신설을 통해서 국가기관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하였던 것을 의미한다. 1972년 헌법상의 권력구조변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① 정치제도상의 개편에 의한 권력구조를 김일성 한 사람에게 집중시켰다. ② 정치리더십면에서도 1인지배를 절대화시켰다. ③ 상대적으로 국가권력을 강화시켜 당·국가체제적 성격이 다소 변질되었다. ④ 결과적으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를 가능케 했다.

북한의 출판물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에 대하여 “수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계”라고 풀이하고 있다(김남식, 1991 : 20). 이는 곧 당과 국가 위에 수령이 존재하여 당 및 국가의 의사의 결정에 대해서도 수령 개인이 마음대로 지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 ‘유일적 사상체계’로 정식화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는 수령론과 같은 특이한 논리에 입각하여 김일성 1인지배체제로 변질되었으며, 주체사상체계에서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는 수령론은 주체사상의 방법론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주체사상이 당과 국가의 유일사상체계로 공식화되기 시작한 1967년부터 1970년대 사이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에 관한 수령론’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고, 1974년 2월 김정일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 원칙’을 발표하면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절대화하는 수령론이 정식화되었다(김남식, 1988 : 168-169).

이러한 수령론은 일찌기 레닌이 강조한 전위당의 역할이나, 또는 중국의 문화혁명시기에 일부 좌파에 의해 제기되었던 모택동의 ‘천재론’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도자의 역할과 지위를 절대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과정에서 족벌체제의 구

죽과 함께 김일성 및 그 가계에 대한 우상화가 병행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점은 바로 수령체제가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혈연적 연고주의,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한 우상숭배 등 특수한 정치문화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에 또 국가주석제(1972년)와 같은 제도적 요소, ‘수령, 당, 인민대중의 삼위일체개념’과 같은 사상교양적 요소, 그리고 동원체제가 구사하는 철저한 동원문화적 요소가 큰 몫을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령, 당, 인민대중의 삼위일체 개념에서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 뇌수이며 중심이고,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는 내용에서 수령의 비중과 당의 위치, 그리고 인민대중의 역할을 짐작케 한다.

그러므로 결국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는 당의 우위원칙을 철칙으로 하는 당·국가체제적 정치구조의 변형으로서 당위에 수령이 군림하는 일종의 ‘수령 중심적 당국가체제’이며, 수령 밑에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대중이 포진하고 있는 정치구조임을 말해 준다(이상민, 1992 : 172). 이러한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는 북한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로 이어지면서 청소년들의 의식에는 절대주의, 가부장주의, 권위주의 등과 같은 의식구조가 형성되었다.

3) 김정일체제의 등장

김정일이 후계자의 위치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9월 당중앙위원회 비공개전원회의에서 당조직 및 선전선동담당비서로 발탁된 후 ‘당중앙’이라는 특수호칭이 붙고, 또 3대혁명소조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의 그의 정치적 기반이 확대되면서 부터였다. 그러다가 1980년 10월의 제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을 실질적인 후계자로 공식화함으로써 제 2인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김일성과 함께 사실상 ‘공동통치자’의 위치를 확보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김정일에 대한 우상화도 본격화되어 결과적으로 권력세습을 위한 작업을 공고히 해왔다. 따라서 김일성을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김정일을 ‘주체사상의 구현자’로 부각시켜온 북한체제는 1990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김정일을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시킨 국방위원회의 제 1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내외통신주간판,

제 724호, 1990. 12. 28). 이는 당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인 그가 국가기관인 국방위원회에서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와 군총참모장 최광을 제치고, 수석부위원장이 되므로써 당·정·군 차원에서 ‘통치자적 지위’를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1991년 12월 24일에는 주석이 겸해오던 군최고사령관직이 김정일에게 이양되면서 김정일의 권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한편 김정일에 대한 호칭은 그의 후계체제 구축단계에 따라 점차 격상돼 왔으며, 김일성이 사망하기 훨씬 이전인 91년도부터 이미 「위대한 수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북한은 지난 73년 9월경 김정일의 이름을 표면에 등장시키지 않은 채 처음으로 그를 지칭하는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후 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권력전면에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주로 이 호칭과 함께 「유일한 지도자」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 이후 북한선전기관들은 김정일에 대해 「영도자」(83.2), 「최고사령관」(83.5), 「수령」(85.2), 「인민의 아버지」(86.2), 「위대한 지도자」·「위대한 영도자」(87.5) 등 점차 격상된 호칭을 사용해 왔다. 북한은 90년대 들어서면서 김정일에 대해 「또하나의 수령」·「위대한 수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해 「김정일=김일성」이라는 등식을 주입시키기 시작했다. 북한의 인민경제대학 총장 김국훈은 지난 91년 7월 인민경제대학 창립 45주 기념보고회 석상에서의 연설을 통해 『김정일동지를 주체위업 완성의 위대한 수령으로, 마음의 철석같은 기둥으로 삼고…』라고 강조,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내외통신 9553호, 1995. 6. 20 1편).

이같은 김정일권력의 강화추세는 1992년 4월 21일 실전경험이 없는 김정일을 인민무력부장 오진우와 함께 원수로 추대함으로써 그의 군권을 강화하는 등 당·정·군의 실권이 김정일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조선일보, 1992. 4. 22). 그 이후에도 군총참모장 최광도 93년 12월 김정일의 군최고사령관 추대 2주 경축 인민무력부 기념보고회에서 김정일을 가리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라고 말했다. 또한 김일성 사망 이후 평양방송은 94년 7월 10일 김정일을 『위대한 수령으로, 친아버지로 더욱 받들어 모시고…』라고 보도했으며 7월 13일에도 김정일을 『수령님이 개척한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수령이며 영도자』라고 주장했다.

1995년도 신년공동사설에 따르면 “1994년은 김일성이 사망하였으나 김정일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우월성을 과시한 해였다”고 회고하고 1995년에는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고수정책에 하등의 변화가 없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김정일 동지는 곧 경애하는 수령님이시며 김정일 동지께서 계시는 한 주체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라는 등 김정일 우상화와 김정일 통치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주력하였다(유인택, 1995 : 149).

1995년도에 들어서서 북한에서 김정일 찬양선전이 크게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에 대한 찬양선전 강화는 물론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김일성의 후계자로 비밀리에 내정된 70년대 초반 이후부터만 따져도 이미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김일성 사후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당연히 강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점을 감안해 보아도 1995년 이후의 김정일 찬양선전은 몇가지 면에서 종전과는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우선은 선전의 내용이 구체화된 점이 꼽히고 있다. 막연하게 「영도천재」, 「건설의 천재」라고 찬양하던 식에서 나름대로 그 예를 조작,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방송의 보도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기 위해 마르크스-엥겔스-레닌의 저서를 3년만에 독파했다고 주장한 것 등이다. 또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김정일이 특히 당간부의 혁명화 방침에 주력, 간부들의 충성심 고취와 판료화 배경을 주도해 왔다는 보도도 같은 맥락이다.

두번째 특징은 김정일의 「지도자적 자질」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이름의 감사, 김정일 「통일대통령 추대」 등이 바로 이의 실례들이다. 이같은 「지도자적 자질」 부각선전은 1994년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의 매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을 「통일대통령」으로 추대하자는 선전은 김정일이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영도력」을 인정받고 있는 듯이 북한주민들을 호도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부터 평양의 선전기관들은 한국내에서 김일성의 「유훈」을 따라 김정일을 중심으로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김정일을

따르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고조시켰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인 「자비심」을 가지고 있음을 선전키 위한데 목적을 두고 있다(내외통신주간판 953호, 1995. 5. 18).

1995년 6월 김정일에 대해 『절세의 위인,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북한의 평양방송은 찬양하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는데 평양방송은 김정일의 당사업 시작 31주를 맞아 내보낸 「정론」프로에서 김정일의 「위대성」과 「영도력」을 찬양하는 가운데 김정일을 『만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안고 탄생하여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신 절세의 위인,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찬양수사에 있어서도 「공산주의 미래의 밝은 태양」, 「향도의 발」에서 시작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민족의 태양」, 「우리 민족의 운명이고 조국통일의 상징」이라는 등 이전의 김일성과 동등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내외통신 9553호, 1995. 6. 20 1편).

북한의 모든 정책은 김정일로부터 나오며 이는 조선 로동당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다원주의를 기반으로하는 민주주의와는 달리 북한의 체제는 획일주의·통제주의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 (Totalitarianism)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김정일에 대한 찬양정책은 북한청소년조직과 집단활동에도 그대로 하달되어 북한청소년활동의 대부분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강화가 차지하고 있다.

4) 정치체제 하부구조로서의 청소년조직과 집단생활

북한의 모든 사회조직은 김정일과 노동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능을 최대의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사회조직은 정치체제의 하부구조라 할 것이다. 북한의 청소년조직과 집단생활도 예외가 아니다. 노동당의 정책결정 수행과정에서 청소년조직은 그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김정일과 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조직이다.

한편 김정일 우상화작업에 북한청소년조직과 활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조직의 대표적인 사로청은 김정일을 위한 전위대로서의 임무와 역할에 선봉역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체제의 등장에 따르는 청소년사회화의 강화가 북한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김정일체제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체제의 강화를 위해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화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함으로써 사상의 강화라는 당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겠으나 역으로 북한청소년들의 당에 대한 반감 또한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이 이율배반적이기는 하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강화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은 북한체제에 변화가 일고 있거나 심지어는 이상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즉 체제의 불안 요인이 증대해 가면서 북한청소년들의 체제에 대한 거부나 불만이 증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 경제체제의 특성

북한에서의 청소년조직과 활동의 특성 중 하나는 중앙의 경제계획 또는 경제정책을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동원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청소년단체의 활동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북한의 경제체제가 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통제경제라는 점에서 북한청소년조직의 경제활동에의 강제적 참여와 동원이 가능하단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체제란 주어진 지리적 영역 내에서의 경제활동, 즉 생산, 유통, 분배,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질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바, 하나는 의사결정의 분권화, 시장제도, 사유재산권, 동기유인, 자유개방경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관료제도, 집단적 소유권, 통제 및 명령체계, 비경쟁, 자급자족의 폐쇄경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적 명령경제체제이다.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첫째, 소유제도 둘째, 자원배분원리 셋째, 의사결정수준 넷째, 분배제도 등에서 자본주의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양재성, 1993 : 47-8). 북한의 경제체제는 정부가 사실상 모든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1) 북한경제의 특성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를 내세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저히 배제하는 등 이 지구상에서 가장 경직된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1992년 4월에 전면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의하면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고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북한헌법, 제 20조-22조 참조).

북한 주민들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근로자들이 자기를 위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나, 협동농장원들이 결산분배에 의해 자기 몫으로 받는 현물, 화폐 또는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재에 불과하다. 다만 협동농장원들에게 주어진 텃밭에서 생산한 생산물이나 부업으로 얻는 생산물은 개인소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상 요약하면 북한의 사회주의적 소유제도는 전인민적 소유 즉 국가소유와 협동적 소유 즉 협동단체의 소유로 대별할 수 있고, 이밖에 극히 부분적인 개인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양재성, 1993 : 49-50).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제도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나 세 가지의 근본적인 경제문제들 즉, ① 무엇을(생산물의 구성) ②어떻게(생산의 방법) ③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생산물의 배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시장과 가격기구의 매개와 조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북한과 같은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자원의 배분이 인위적으로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시장경제체제는 생산의 무정부성으로 인하여 불경기와 경제공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본질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생산, 분배, 소비를 전면 계획화 함으로써 시장경제에서와는 달리 안정된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48년 공산정권 수립시 내각에 국가계획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계획경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58년에는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공유화가 완료되어 계획경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였다.

현재 북한의 모든 경제운용은 정무원의 [국가계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노동당의 지침을 받아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인민경제계획’은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일원화와 세분화를 동시에 요구한다. ‘인민경제계획’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각 부문(농림, 수산 및 광공업)별 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상품유통계획, 무역계획, 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 수매양정계획,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계획관리업무의 방대성으로 인하여 북한 중앙행정기구인 정무원의 총 47개 기관(15위원회, 28부, 1원, 2국, 1은행) 중 약 80%에 해당하는 기관이 경제관리기관으로, 시장경제체제하의 분권적 관리체제보다 오히려 관료화에 따른 비능률만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양재성, 1993, 50-51).

2) 경제관리운영

북한은 경제관리의 원칙을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운영은 노동당의 전반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당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행정기구를 지도·감독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다. 북한이 견지하고 있는 경제관리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 1985 : 709-712).

(1)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이것은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강, 노력조직, 협동생산조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직사업’에 있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지도·관리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물질적 자극보다는 정치사상적 자극에 중점을 두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청소년단체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의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당정치사업의 우선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다.

(2)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배합시키는 원칙

이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와 행정지휘관의 유일적 지휘를 배합하는 원칙을 말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해당 경제단위의 최고 지도기관인 당

위원회가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것이 잘 집행되도록 지도·통제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그리하여 북한은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를 잘 배합시키기 위하여 ‘균중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3)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원칙

계획의 일원화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계획과 사업을 유일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이 세부 부분에 이르기까지 서로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당국은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관리의 중앙집권적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4) 독립채산제 실시의 원칙이다.

북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공장·기업소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받아서 생산활동을 조직하며, 생산을 위한 지출은 자체의 수입으로 보상함은 물론 공장·기업소에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하게 함으로써 물자절약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장·기업소가 당에 의해 지시된 계획에 따라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자금·회계의 측면에서 통제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따라서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한정적인 것이 특징이다.

3) 북한경제체제의 한계

북한은 1980년대 이후부터 경제계획의 실패와 이에 따르는 경제파탄을 겪어왔다. 특히 북한이 87년부터 추진한 제 3차 7개년경제계획(87~93년)은 완전히 실패로 그치고 말았으며 그 충격은 매우 컸다. 이에 따라 북한은 93년 12월 당제6기 21차전원회의에서 제 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사인하고 향후 3년간 완충기간(94~96년)을 설정,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미달부분을 완수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같은 완충기간에 북한은 농업 제일주의, 경공업 제일주의, 무역 제일주의의 3대 중점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처럼 북한이 제 3차 7개년 경제계획의 미달부분을 완성하기 위한 완

충기간까지 설정하고 기존정책을 되풀이하여 제시한 것은 경제파탄으로 인해 새로운 경제계획을 시작할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경제는 90년 이래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는 등 정권수립 이래 총체적 위기국면에 처해있다. 북한의 경제성장면에서 보면 89년 2.4%의 성장을 유지하였으나 90년에는 -3.7%, 91년에는 -5.2%, 그리고 93년에는 -7.6%로 거듭되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내외통신주간판 947호, 1995. 4. 6). 북한의 이러한 경제침체는 북한경제의 특성상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방의 경제분석가들은 북한이 냉전체제 붕괴 이후 무역 거래에서 경화를 요구받게 됨에 따라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북한은 2-3년 계획의 경제 조정기간을 설정하고 무역과 농업 그리고 경공업에 중점을 둔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은 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나진·선봉 등지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고 외국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조선일보, 1995. 5. 1).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외자유치계획은 그들의 의욕과는 달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계속 차질을 빚고 있다. 종합적으로 북한경제는 계속된 부의 경제성장, 무역규모의 축소, 외자도입의 부진 등으로 파탄국면에 직면, 점진적으로 자생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경제가 파국을 면치 못하는 원인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경제체제의 폐쇄성, 명령경제체제의 모순, 생산수단의 사회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결국 북한의 부분적인 경제 개방정책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자유무역지대는 엄격하게 외부와 차단되고 있으며 김정일의 교시는 아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북한 경제정책의 원칙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4) 경제체제의 하부구조로서의 청소년조직과 집단활동

이상과 같은 북한의 경제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경제개방정책등은 북한 청소년조직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즉 청소년조직과 활동에서 경제활동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은 물론 경제회복을 위한 부분적

인 개방정책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의식구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한편 북한의 경제관리운영에서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에서도 강조되고 있듯이 당정치사업으로 규정된 경제활동 사항은 청소년조직인 사로청 심지어는 소년단에까지 지시사항으로 하달된다. 따라서 북한의 청소년조직은 북한경제 활동을 담당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다. 학교의 의무노동, 소년단과 사로청의 집단노동활동 등은 북한 청소년조직과 활동이 북한경제활동의 일부로 공식화 되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2절 북한사회체제의 특징

1. 공산주의의 두 가지 사회체제 유형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회 구조는 두 가지의 상호 대립적인 모형으로 이해된다. 그 하나의 모형은 무계급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서구자본주의적 계급구조에 유사한 모형이다. 전자는 초기의 ‘사회주의적 재건기’에 보다 적합하는데 비해, 후자는 공업화 단계에 돌입하는 현대 사회주의국가의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초기 재건기에는 노동자, 농민 출신이 당을 통해 대거 엘리트의 지위로 진출했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이념의 프롤레타리아적 입장이 현실 정책에 크게 반영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가 안정기에 들어섬에 따라 계급투쟁보다는 산업의 효율성에 보다 큰 관심이 쏠리고, 거기에서 종전의 사회주의적 질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유발되었다. 즉 사회발전을 위한 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감에 따라 내부적인 모순에 부딪치게 되었다. 사회주의이념에 따라 ‘소유 계급’이 사라진 반면에 사회주의 공업화의 결과로 ‘영리 계급’이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오늘의 북한사회의 계급구조를 선진 사회주의공업국의 계급구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북한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공업화를 염두에 둘 때, 변화 과정상 앞으로 선진 사회주의사회의 계급구조와 유사해지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이병혁, 1990 : 266-267). 선진사회주의 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일반주민들의 의식이 혁명시기의 의식보다는 물질우선주의의 양상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공통된 현상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비근한 사례로 중국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치가 출신 보다는 테크노크래트 출신의 각료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선진 사회주의국가의 계급구조로 변신하고 있다. 또한 일반 주민들의 생활의식구조도 혁명시기의 의식구조와는 판이하게 다른 물질우선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로부터 사회전체의 구조가 자본주의 생활패턴으로 크게 변화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북한의 사회체제

1) 북한헌법과 사회체제의 성격

북한사회의 체제적 성격은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 1조와 제 2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며,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 6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졌다.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옹호하며 보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노동당규약 전문에도 당면목표를 전국적 범위내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북한사회는 이념상으로 볼 때 사회주의국가로서 기본계급인 프롤레타리아를 노동자, 농민, 병사 및 근로자 네 범주로 분류하여 이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기본정책으로 삼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사회’를 지향한다. 북한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지향은 북한의 현실이라기 보다는 공식적인 이데올로

기적 담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계급없는 사회의 달성이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급 혹은 계층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각종의 집단과 이들 집단의 상하 위계가 엄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여러 학자들이 있다. 대표적 학자로 질라스(Milovan Djilas), 보토모어(T. B. Bottomore), 골드토프(J. H. Goldthorpe), 파킨(Frank Parkin)등을 들 수 있다(이병혁, 1990 : 266).

2) 북한 사회체제의 구조적 성격

북한 사회체제의 구조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사회는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고, 단일 정당에 의한 완전한 지배권이 확립되어 있다.

당은 혁명의 중추적 추진세력이고, 또한 국가 최고의 명령 기관이다. 당은 국가 조직의 기간이고 독재의 기반이다. 따라서 혁명과 이익을 위하여 모든 가치체계는 중앙집중적인 당에 의해 통제된다. 북한청소년조직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조직은 당에 복종하며,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당의 명령은 절대적인 힘으로 사회조직과 청소년들을 통제한다. 따라서 당의 결정은 절대적이며 모든 사회조직 및 청소년들은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고도의 중앙집중적 통제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유재천, 1990 : 247).

북한에서의 당의 지위는 절대적이다. 이러한 당의 지위와 역할이 김정일체제가 등장하면서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여러 측면에서 당의 역할을 강화하여 왔다. 북한은 1995년 5월 10일 노동당의 말단기층조직인 당세포의 강화를 위해 「충성의 당세포 창조운동」을 적극 확산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이날 노동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세포의 역할과 기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당세포를 충성의 세포로 만들자」는 구호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송은 이어 당세포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충신, 지극한 효자로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세포는 당의 최하 기층조직으로 대개 5명에서 30명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충성의 당세포 창조운동」은 지난 90년 11월 김정일이 당역할을 확장하

기 위해 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에게 「회답서한」을 보내면서 받기됐다(내외통신 9494호, 1995. 5. 12 1편).

북한에서는 당의 절대적 우월성을 부여하기 위해 당원에게 높은 사회적 위신과 특권적이고 우대적인 보수가 지급된다. 현재 북한에는 300만 당원이 특권계급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분성이나 사회적 기회에 있어서 일반 주민과 엄격히 구분된다. 이 점이 앞에서 살펴 본 북한사회의 계급화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원은 북한사회의 실제적인 지배계급이 되며 일반주민들은 피지배계급으로 크게 2분화되는 것이다.

둘째, 북한사회는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 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 사회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회이념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의 신헌법 제 4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공식화 하고 있다. 한편 당의 정책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받게 되며 이에 따라 혁명을 위한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사회적 가치를 지배하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조국의 혁명과 이익을 위한 사상이므로 절대적 가치기준이 된다. 북한에서는 어떠한 다른 사상이나 주의도 곧 종파주의를 형성, 혁명적 조건을 분열시킨다고 보고 철저하게 통제된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유일적 사상체계로서 북한청소년들을 비롯한 전 주민들의 모든 생활영역을 지배하고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전당·전인민의 의지’가 된다. 그 결과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청소년들의 가치를 지배하는 사상적 획일사회가 형성된다.

북한사회에서 주체사상을 내세우는 이유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도입하여 체제화하는 과정에서 재래적 특수성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고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보편적 원칙과 지역적 특수성을 연결짓는 합리화를 주체사상에서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1인 숭배사상을 지속시킬 필요성도 바로 주체사상으로 합리화되고, 갖가지 현실적 고난을 감수해야 하는 국민의 불만도 주체사상으로 무마하고 있다(이병혁, 1990 : 269-270).

최근 북한은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대외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과 비판의식등이 싹트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체사상교육과 혁명의식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사례로 북한은 최근 체제결

속 강화의 방법으로 전체 주민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생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급변하는 정세 등을 내세워 『항일유격대원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고 주인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송은 이어 「항일유격대식 생활」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에도 좌절하거나 굴하지 않고 모든 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며 혁명적이면서도 알뜰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주민들에게 이같은 정신과 사상강화를 위해 주민사상학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직별로 쫓기모임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내외통신 9547호, 1995. 6. 15 2편). ‘김일성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행동하라’는 구호가 말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북한은 ‘수령의 교시를 끝까지 충성으로 목숨바쳐 관철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교시가 어떠한 법령이나 당 결정에도 우선하는 절대성과 무조건성을 가진 독특한 사회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에 절대적인 이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 북한사회는 ‘집단주의 원칙’에 준거한 통제적 조직사회이다.

북한사회에서는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주민을 조직 속에 묶어 두고 집단적능력의 상호경쟁으로 효율성 향상을 추구한다.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조직은 상이한 계층의 독자적인 이해 관계를 대변하는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지배계급이 요구하는 특정 방향으로 전체 주민을 동원하고 정비하기 위해 하향식으로 만든 당의 후비대에 불과하다. 이처럼 북한의 집단주의 체제하에서는 모든 주민이 조직 속에 묶여져야 하며, 당의 지령에 따른 일사불란한 확실성이 요구된다. 이는 바로 북한이 지향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행동의 특성이기도 하다(이병혁, 1990 ; 271).

북한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이익이 우선되며 개인의 이익은 사회의 이익에 복종된다. 북한헌법 제 49조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를 떠난 개인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으며, 개인은 항상 전체의 한 세포로서 움직여야 하고 개체의 권익은 언제나 전체의 권익을 통

하여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는 조직으로 구성되며 개인은 조직 속의 개인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결과 개인의 사적 이익은 조직적으로 통제받으며 공익이 절대적 가치로 존재하게 된다. 공익과 사익의 갈등의 필연적 존재는 조직적 통제로 개인 각각의 사적 이익을 통제하게 되고, 이 결과 북한사회는 통제사회로 나타나게 된다.

북한이 집단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통제사회임을 증명하는 사례는 많지만 그 대표적인 예로 ‘인민반 반장제도’라는 것이 있다. 북한사회는 말단 주민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인민반 반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이러한 인민반의 반장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이는 김일성의 사망 이후 주민들의 동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북한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보면 강화된 인민반장의 권한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주민들에게 예외없이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이동이 있을 때 반드시 인민반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이다. 예전에는 사회안전부의 「분주소」(과출소)에 신고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끝났다. 두번째는 「분주소」에 앞서 인민반장에게 신고토록 한 것이다. 인민반장의 허가 없이는 사회안전부에서 허가해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인민반장들의 노임도 농촌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유급화시키고 그 액수도 인상시켜 주었다. 과거에는 평양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인민반장들의 노임이 유급화 돼 있었다. 인상된 인민반장들의 노임은 한달에 68원으로 예전보다 8원이 올랐다(내외통신 주간판955호, 1995. 6. 1).

네째, 사회주의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인간개조작업이 끊임없이 수행된다.

즉, 근로자들을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온 사회를 혁명화, 노동계급화하기 위한 공산주의 교양사업이 체계적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사업을 위하여 북한의 모든 사회제도를 정치적 목적과 밀착시키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세계의 문화가 그들의 사회내부에 침투하여 개인주의적이고 부르조아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없도록 경계하는 한편 이의 유입을 적극 막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의 획일성과 통제성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 인간개조작업의 수단으로서의 ‘문화’는 당정책노선을 구현시키는 전위적 역할을 담당하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주민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는 수단이 된다(유재천,

1990, 246-247).

다섯째, 새로운 유형의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

북한에서의 엘리트와 대중의 분류는 출생, 10여세의 고등중학 입학시, 20세 전후의 대학 입학시 등 세 차례에 의해서 수행된다. 북한에서는 출생시부터 (1) 김일성의 직계가족 및 친·인척, (2) 김일성과 함께 혁명운동을 했던 동지들의 가족, (3) 김일성에게 공로가 있거나 일제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가족 및 무산자들, (4) 6·25 참전인 및 가족, (5) 북한정권에 공로도 없고 반대도 안한 일반인 또는 수동적인 계층, (6) 자본가, 지주층, 반동분자 등의 적대계층 등 6개의 계층이 있다.

이러한 계층구분은 북한청소년들의 진학이나 사회진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계층구분은 학업성적과 함께 상급학교 진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혁명유자녀들과 당간부의 자녀들은 인민학교를 마치면 일반의 고급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만경대학원 등 이돌만을 수용하는 특수학원으로 진학하여 대학까지 가게 되는 특전을 가지고 있다.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는 때에도 출신성분, 1980년부터 실시된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적, 내신성적 등을 참고로 하여 당과 교육자들로 구성된 입학위원회에서 입학을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에서 제시한 6개의 출신성분은 북한청소년들에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차경수, 1994 : 78).

3. 사회운영의 기본원칙

1) 집단주의화

북한에 있어서의 집단주의 원칙은 하나의 헌법적 규범으로 되어 있다. 모든 생활에서 집단주의정신의 제고가 요청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사회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사회조직을 매개로 함은 물론이다. 북한의 신헌법 제 4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 68조는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이익, 조국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

급을 사회경제적 처지와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자본계급을 반대하는 공동투쟁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며 자기 희생, 조직성, 규율성을 가지는 혁명적인 계급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가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집단주의는 인민 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강화하고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에 헌신하려는 공통된 지향과 열의를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촉구하며 사회주의 사회제도의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이러한 집단주의는 천리마 운동, 청산리 방법 등 혁명적 생산투쟁에도 적용되는 사회구조적 실체이다. 천리마운동은 공장, 기업소 등 좁은 의미의 생산활동에 한정되지 않고 청소년을 비롯한 도시노동자, 사무원, 농촌, 서비스 부문까지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생산투쟁 운동으로서 개인의 경쟁이 아닌 청소년조직, 작업반, 직장, 공장 단위의 집단적 운동이며 통제체제이다(유재천, 1990 : 244).

한편 이와 같은 집단주의를 통해 북한은 주민들의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벌여 왔다. 북한은 최근 경제회복을 위한 주민들의 노동의욕 고취 및 사상강화를 목적으로 「7월11일 붉은기 동·인민반」 쟁취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각급 행정경제위원회 행정지도국 주관아래 「7월11일 붉은기 동·인민반」 쟁취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정의 혁명화」뿐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에도 기여토록 하였다.

북한은 이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지역별로 동간부와 인민반장을 동원해 지구별 회의를 수시로 소집하는 한편 모범단위를 본보기단위로 설정, 이를 따라배우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민주조선은 전했다. 실례로서 함경북도의 경우 지난 1987년 이 운동이 추진된 이후 현재까지 4천9백60여개의 인민반이 「7월11일 붉은기 인민반」 칭호를 쟁취했다고 밝혔다. 「7월11일 붉은기 인민반(동)」 쟁취운동은 김정일이 1972년 7월 11일 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을 실무지도 명목으로 시찰, 동·인민반사업의 개선강화를 지시한 이후 8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주의 대중운동이다(내외통신 9539호, 1995. 6. 10 1편).

이러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적 조직생활로 구체화되며 매개된다. 그들은 공

산주의의 중요한 징표의 하나를 강한 혁명적 조직성에 두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혁명적 조직성은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강화된다고 보고 누구나 강한 조직생활을 통하여 혁명적으로 단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직화

북한에서 노동당에 의한 주민통제는 밑으로부터 조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당이 결정하여 절대적 통제하에 수행한다. 권력구조상 노동당 우위 원칙에 따라 당의 교시와 당 결정이 법령보다 더 큰 구속력을 갖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적 통제의 강화를 위해 당은 각종 외곽 단체인 사회단체들을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다. 당이 통치력의 핵을 장악하고 비당원인 일반주민 개개인을 주거별, 연령별, 성별, 계층별로 조직화하여 이들 조직의 지도 기관을 장악하고 이들로 하여금 당과 주민들과의 매개적 기능을 담당케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출생하면 탁아소와 유치원에 집단적으로 수용되고 또 각급 학교를 통해서 조직적인 통제를 받게 됨은 물론 7세 부터 65세 까지(여자는 60세) 1개이상의 각종단체에 가입하여 조직 생활을 해야 한다. 이처럼 개인을 조직에 묶어 두는 것은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한 당적인 행동지도와 사상적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유사시 동원 능력을 극대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각종 사회조직이 곧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단체이자 정치통제단체이다.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화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한 공동체적 생산을 수행하는 사회적 원칙으로서 전사회를 구조적으로 구속한다(유재천, 1990 : 246). 한편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의 조직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 교양을 받고 혁명적 단련을 쌓으며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운다.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는 오직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학생들이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과정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 참가하는 것을 가장 큰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하며 조직의 규약상 의무와 위임분공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비판을 강화하여야 한다.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조직생활만이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 학생들 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며 특히 조직생활 총화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학교 소년단, 사로청조직은 학생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호하는 정치적 보호자이며 그들의 친근한 교양자이다. 학교 소년단조직과 사로청조직들은 학생들의 정치적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데 큰 힘에 맞게 분공을 주고 그것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며 분공실 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다시 새로운 분공을 주어 모든 학생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3.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3)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3) 생활통제 : ‘생활총화’

북한은 주민들에 대해 집단주의와 사회단체를 매체로 한 조직화를 통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조직내에서의 생활통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생활총화’라는 것이 있다.

북한주민들은 매주 토요일 1회씩 하는 생활총화에는 각자 소속 단체별로 참석한다. 총화시간이나 내용은 조직별로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조직원의 충성도나 사상검토를 제일 중요시 한다는 점은 똑같다. 각자가 돌아가면서 자기비판을 한 다음 상호비판을 하는 형식도 비슷하다.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이나 유학생, 원양어부들도 생활총화를 갖는다. 출장을 가는 경우 출장지의 해당조직에 편입돼서 한다. 출장지 당세포비서가 서명한 생활정형보고서를 직장에 제출해야 한다.

북한 어린이들은 인민학교 2학년이 되면 소년단에 가입한다. 소년단은 사로청 산하단체로 별도 조직은 없다. 학년-반-분조 등 학급편성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총화는 15명 내외로 구성된 분조단위로 진행된다. 토요일 정규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경부터 1시간 동안 한다. 학생, 조직원으로서의 생활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비판한다. 친구간의 우정에 관한 것도 토의대상이 된다. 과외활동에 대한 독려도 있다. 소년단은 좋은 일 하기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과외활동을 한다. 과-고칠 수집·토끼기르기 등 경제지원이다.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에는 반별로 하며 분기, 반기, 연간 생활총화는 학년별로 진행한다. 고등중학교(중-고교) 5~6학년부터는 사로청(만 30세까지)에 소속된다. 이들은 말단조직인 초급단체별로 생활총화를 한다. 초급단체는 적게는 5명, 많으면 30여명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토의 내용은 소년단과 비슷하지만 사상문제에 관련된 비판이 조금씩 많아진다. 군인들의 경우 사병들은 대부분 사로청원이지만 하사관급 이상은 당원이 많다. 때문에 이들은 군사훈련은 함께 받지만 생활총화는 따로 갖는다.

소위 이상 모든 군관과 정치지도원들도 당원이다. 당원은 당세포별로 한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기능공이나 농민은 사로청, 직맹, 농군맹 등에 소속돼 각 조직별로 생활총화를 갖지만 간부와 당비서들은 당세포별로 한다. 사회는 세포비서가 맡는다. 당이나 정무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당세포별로 생활총화를 갖는다. 이들의 생활총화는 토요일 아침 8시경부터 한다. 정무원총리나 중앙당 비서도 당세포에 소속돼 있어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다른 조직에 비해 당세포 생활총화는 엄격하다. 세포비서의 눈밖에 난 사람은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중요 안건인 경우 몇주씩 이어지기도 한다. 직장에 나가지 않는 가정주부의 경우 여맹조직이나 인민반에서 생활총화를 한다(조선일보, 1995. 4. 2).

4. 사회단체

북한의 각 사회단체들은 한국의 사회단체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의 각 사회단체들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철저하게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서 가맹원의 이익이나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북한 사회단체들의 성격은 노동당규약 제 56조에 잘 나타나 있다. 56조에는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런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며 사상교양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내외통신종합판(55), 941호, 1995. 2. 23 : 253-4).

북한에 조직되어 있는 사회단체는 약 1백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들 사회단체는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즉 하부조직으로서 가맹원을 실제로 두고 있는 조직과 가맹원은 없이 각 단체를 망라한 단체이다. 가맹원을 두고 있는 단체로는 「직맹」, 「농근맹」, 「사로청」 등이다. 이들 단체는 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당이 정책을 추진·선동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신년사」가 발표될 경우 각 단체 이름으로 이를 지지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이의 관철을 다짐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연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어 부여된 임무와 역할수행 문제를 강화하고 검증하고 있다. 통상 2-3월에 열리는 전반기 회의에서는 그해의 조직 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가맹원들에게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로서 당정책을 관철하는데 앞장설 것을 독려하고 있으며 하반기 회의에서는 한해동안의 성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부조직이 없는 단체는 특수한 목적 지향적인 역할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대남선전 및 선동 등과 관련된 것이다. 「조평통」, 「조국전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국전선」의 경우 노동당뿐만 아니라 「사로청」을 비롯한 「직맹」, 「여맹」, 「기자동맹」, 「문예총」, 「천도교청우당」, 「사회민주당」등 24개 주요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단체를 가맹원을 두고 있는 근로대중단체와 가맹원이 없는 통일추진단체로 구분하여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로대중단체

북한은 당과 청소년단체인 사로청과 근로대중조직체와의 관계를 당규약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규약 제 56조에 의하면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 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引傳帶)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약 제 57조에는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열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해 동맹들을 당의 두리에 결속시켜 3대 혁명 불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노동당규약 제 9장 ‘당과 근로대중의 조직’).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 북한에는 크고 작은 근로대중조직 및 사회단체가 100여개 있다 하나, 이들 단체들은 자유주의국가들에서 말하는 자율적인 단체들과는 성격이 판이하다. 북한의 각종 직능별 사회단체는 대부분이 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선전기능과, 동원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신철균, 1990 : 42). 그중 가장 큰 사로청, 직맹, 농근맹, 여맹등에 대해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약칭 : 사로청)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은 1946년 1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었다. 그후 1951년 1월 「남북조선민청」을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통합하였다. 1964년 5월 12일 5차대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면서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외곽단체의 하나가 되었다.

가입대상은 14-30세에 이르는 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하는 만큼 학교와 직장뿐 아니라 군대내에까지 조직이 있다. 현재 「사로청」의 맹원수는 약 8백만으로서 북한의 최대 조직체이다. 당규약에 의하면 “사로청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라고 하였다(당규약 9장). 사로청은 다음과 같은 과업을 내세우고 있다.

① 청년들을 당의 사상체계로 무장시키고 당을 목숨으로 지키며 당의 노선

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한다.

- ②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운동을 계속 견지하여 기술·문화 사상 혁명을 촉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건설키 위해 투쟁한다.
- ③ 청년들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과 당정책, 김일성노작을 연구 체득케 하여 공산주의 사상과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켜 '계급적 원수'를 미워하고 반제·지주·자본가제도를 반대하여 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투쟁한다.
- ④ 남한을 미제와 반동정치에서 해방하고 통일을 위해 투쟁한다.
- ⑤ 남한의 노동청년, 농민청년, 청년학생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 ⑥ 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 청년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 주위에 묶어 세운다.

1981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 사로청 제 7차 대회는 6차 대회 개최 이후 10년만에 개최되었는데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하여 당·정 간부들과 공산국가와 제 3세계의 친북단체들이 전례 없이 많이 참가하였으며 이례적인 것은 “남북 및 해외동포 청년학생들로 구성되는 통일촉진청년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이후 북한당국은 사로청을 통해 남한의 청년들을 목표로 하여 그들의 통일정책과 대남정책을 주입시키는 조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산하조직으로 도(직할시)위원회, 시(구역)·군위원회, 초급단체위원회(공장·기업소·협동농장·교육문화 보건기관, 인민군대 및 기타 단위)가 있다. 그리고 소년단을 산하에 조직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들을 조직화하여 혁명화, 노동계급화 시키고 있다(신철균, 1990 : 47-48). 더 자세한 사항은 III부 사로청에서 다루고 있다.

(2) 조선직업 총동맹(약칭 : 직맹)

「조선직업총동맹」은 1945년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출발했으며, 1947년 5월에는 「세계직업연맹」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이는 1951년 1월 「북조선직업총동맹」이 「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흡수, 통합하여 「조선직업총동맹」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직맹」은 10개의 산업별, 직업별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맹원수는 220-25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타 단체에 가입한 대상자를 제외한 30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직맹의 임무는 규약을 보면 “직업동맹은 로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 수행으로 조직·동원된다. 동맹내의 당 사상체제를 확립하며, 부르조아사상의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토통일원, 1981 : 92).

(3) 조선농업근로자동맹(약칭 : 농근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1945년 12월 8일 농민들의 전국적 조직체인 「전국농민조합연맹」의 조직으로 부터 출발하였다. 농근맹은 1949년 12월 「국제농업 및 임업노동자 직업동맹」에 가입하였다. 1951년 2월 11일 「조선농민동맹」으로 다시 발족했으며 1964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1946. 2. 25, 노동당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발표)가 발표되면서 농업근로자동맹으로 개칭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대상은 농민만을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업에 관련 있는 부문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가입시키고 있다. 즉 협동농장원, 국영목장원, 군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직원, 관개(灌漑)관리소 직원, 농기계제작소, 근로자, 농기구공장 근로자, 자재공급소 직원, 가축위생방역소 직원 및 사무원까지 총망라하였다. 맹원수는 최근 약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농근맹」의 규약을 보면 “농업근로자동맹은 노동당의 영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전개하는 당의 믿음직한 보조자이며 당과 우리나라 농업문제와 근로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다”라고 하여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의 당노선과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신철균, 1990 : 55).

(4) 조선민주여성동맹(약칭 : 여맹)

「조선민주여성동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 1951년 1월에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

로 통합 개칭된 노동당의 여성전위조직이다. 그리고 1946년 10월에는 「세계민주여성연맹」에 가입하였다.

현재 여맹원의 수는 약 250만명으로 추산되며, 주로 여타 단체(농근맹, 직총, 사로청)에 속하지 않은 일반 여성들이 맹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1995년 현재 여맹위원장은 김일성의 처이자 김정일의 계모인 김성애이다.

여맹의 임무는 “여성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여성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김일성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바쳐 옹호 보위하고 당의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90 : 58).

2) 통일추진 전위단체

북한의 통일추진 전위단체로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선적십자회」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주로 대남 위장평화통일 선전공세 및 남한 적화여건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당 전위조직이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성명, 담화등을 통해 반한·반미 선전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하부조직이 없는 단체로서 특수한 목적 지향적인 역할에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를테면 대남선전 및 선동 등과 관련된 것이다. 「조평총」, 「조국전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조국전선」의 경우 노동당뿐 아니라 「사로청」을 비롯한 「직맹」, 「여맹」, 「기자동맹」, 「문예총」, 「천도교청우당」, 「사회민주당」등 24개 주요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게 광범위한 사회단체들을 망라하여 포함시키는 이유는 북한에서 주장하는 남북대화 및 통일문제가 전체 북한주민의 의사인 것처럼 합리화시켜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교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부조직이 없는 단체가 대남선동과 선전에 목적이 있다는 것은 「조평통(祖平統)」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밝힌 창설목적과 기능 및 임무가 그 근거이다. 평양에서 발행된 정치사전에는 창설목적이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각계 각종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단합하여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주요 기능과 임무는 ①남조선 각계 각종 인

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통일실현 고취 ②노동당의 통일 및 남북대화정책 대변 ③한국사회상 비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하나도 예외없이 북한노동당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전위단체인 것이며 이러한 성격은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지속될 수 밖에 없다(내외통신 종합판(55) 941호, 1995. 2. 23 : 254-6).

북한은 남북대화 및 교류를 명분으로 「문예총」, 「직총」 등의 명의로 대남선동공세를 펼쳐 왔다. 1995년 3월 6일 북한은 각 사회단체들을 앞세워 한국의 「한총련」(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에 편지를 보내왔다. 이들 편지는 이른바 「대민족회의」를 소집키 위한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이나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갖자고 주장했다. 또한 “자주 민주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바쳐온 남조선의 여러 단체들이 8·15공동경축과 대민족회의 소집에 적극 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편지를 보낸 북한 사회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학생위원회」등 이었다. 북한의 「문예총」(조선문화예술총동맹),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 등도 이에 앞서 1995년 3월 1일과 3일 같은 내용의 서한을 한국의 학술, 문화, 여성단체들에 각각 보내왔다(내외통신 종합판(55), 941호, 1995. 2. 23, 253-4).

2장 북한의 청소년정책

1절 북한의 사회화정책과 청소년사회화

1. 북한의 사회정책의 기본방향

한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 경제적 요소에 따라 정치문화의 의미와 내용이 각기 특이하게 정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사회화에 있어서도 그 국가 사회의 정치문화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천한다. 일반적으로 공산사회에 있어서 정치사회화는 혁명초기 단계에서는 기존의 존재적 조건을 공산주의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제도로 대체하려는 창조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지만 공산

주의제도가 정착되어 그 체제를 유지하고자하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현존 체제를 유지·존속시키려는 보수적 경향이 나타나고 정치사회화의 목적도 체제유지 기능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도홍렬, 1990 : 128).

현재 북한의 사회정책의 기초는 북한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당과 정권의 정책목표와 연관되어 있다. ‘조선로동당규약’ 전문을 보면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정책의 기본틀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사회정책은 계급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과 당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즉, “조선로동당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텔리화를 추진하고”(「북한로동당규약」 전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인민의 정치 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북한헌법」 제 10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념적인 측면에서도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로서 기본계급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 및 모든 근로인민으로 분류하고 있다(「북한헌법」 제 4조).

북한의 이와 같은 사회정책은 김정일체제 등장 이후에는 김정일의 지도노선에 포함시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 사례로 북한은 최근 각 지역별로 해당 당조직의 주관아래 김정일이 1995년 6월 발표한 논문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당시 황해도의 해주방송에 따르면 강령군 인민위원회에서는 당조직 지도아래 김정일의 논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학습토론을 벌이면서 논문에 담겨진 기본 사상과 내용체계를 습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체계를 철저히 파악한데 기초해 연구발표회를 수시로 갖고 각 문장에 담겨진 의미를 새겨가며 학습토론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과일군 과수종합농장에서도 초급당위원회의 지도아래 모든 당원·근로자들이 논문학습에 주력하였는데 주로 원문독보와 연구발표 등을 통해 논문에 담겨진 사상과 내용체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재령군 내림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과 및 남새가공공장 근로자들은 논문의 원문을 세번 이상씩 학습한데 기초해 연구발표와 학습담화를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주방송은 덧붙였다(내외통신 9589

호, 1995. 7. 13 1편).

이러한 사회정책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유도되어 주민들에게 이를 따를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5년도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에게 제 1의 권리로 「충성의 권리」를 제시하면서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을 요구했다. 북한은 당기관지 노동신문 최근호의 정론을 통해 『혁명하는 인민으로서, 공민으로서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은 충실성이며 그것은 하나의 의무인 동시에 가장 신성한 삶의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북한주민들에게 있어 「충성의 권리」는 『가장 값높은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실성이 제일 생명이라면 충성의 권리는 인간의 제일 권리』라고 규정하고 『충실성이 없는 생활은 공허이고 수치이고 빈곤이며, 충성의 권리가 없는 인간은 설 곳이 없고 살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이같은 주장을 내세워 전체 주민들에게 「김일성의 유훈을 관철할 권리」, 「김정일을 기쁘게 할 권리」 등을 적극 행사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빛나는 삶을 위하여 우리 모두 충효의 한 길을 걷자』고 촉구했다(조선일보, 1995. 4. 27). 이러한 사회정책은 청소년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공산주의 인간화, 노동계급화, 주체사상적 인간화등을 북한청소년 사회화정책에 그대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5년 이후 주요 사회화정책과 청소년정책 및 활동의 대부분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활동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2. 북한에서의 사회화

1) 사회화의 의미

한 국가체제를 유지·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 선차적인 과업은 그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어떻게 양육하고 학습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한편 인간의 존재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비로서 소속된 사회집단의 문화가 기대하고 지시하는 대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가진 사회화는 사회 전체를 유지·발전시키는 수단적 장치로서 이용된다. 이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하나의 보편적 현상이다. 어떠한 체제이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체제가 필요로 하는 인간형을 양육하고 양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서의 사회화는 체제유지를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궁극적으로 정치사회화를 추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정치사회화는 정치문화를 학습하여 사고·감정·행동의 기준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이며 국가사회의 정치문화를 유지하거나 변형하기도 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정치사회화는 정치문화에 의해 조건지어지고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한 국가사회의 체제와 이념에 따라서 인간본성에 대한 개념 규정과 정치 사회화의 의미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북한에서는 정치 사회화를 가리켜 정치 사업, 정치사상 사업, 정치사상 교양, 주체사상교양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한 <현대조선말사전>에 나와 있는 제 개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도홍렬, 1990 : 126).

○사상사업 :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 속에서 로동계급적 관점과 혁명적 세계관을 확고히 세워 수령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양하고 개조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적극 불러 일으키기 위한 사업.

○정치사상사업: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수령의 혁명위업 수행에 끝까지 충성 다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혁신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정치조직사업.

○정치사상교양: 혁명적 세계관을 세우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도덕적 풍모를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양·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은 정치사상교양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북한의 <철학사전>에 의하면 ‘주체사상교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철학사전, 1985 : 6558-9).

“사람들을 주체의 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이다” “주체사상교양은 모든 사회성원들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양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하자면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개조하여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주체의 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김일성과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를 말한다”, “주체사상교양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봉건유교사상, 부르조아사상을 비롯한 낡고 비로동계급적인 사상을 뿌리뽑기 위한 심각한 사상투쟁을 동반한다”

북한에서 정치사회화를 통해 만들려고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인간’이란 김일성·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적 인간인 것이며 사회주의적 혁명을 위해 죽고 사는 도구적 인간을 가리키게 된다. 북한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에 의하면 “우리는 후대들이 그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그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으로 신조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여기고 ……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도홍렬, 1990 : 127-128).

2) 사회화의 기본원리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혁명가라고 하는 목표에 맞는 인간을 형성하려고 계획적으로 사회화를 시도하는 통제주의와 강제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동일한 행동의 모형이 탁아소, 가정, 학교, 직장, 대중매체 등에서 사람의 한평생 동안 반복되는 연속적 사회화의 원리에 의해서 행동발달을 통제하고 획일화한다.

북한헌법 제 49조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규

정과 제 68조의 “국민은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개인과 전체를 동일시하여 항상 집단의 이익과 변명에서 인간행동의 의미를 찾는 집단의 원리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시범적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에 강제적으로 따르게 하는 시범과 통제의 원리에 의해서 사회화와 교육이 이루어진다.

북한의 전주민은 누구나 탁아소, 학교, 소년단, 사로청, 군대, 직장 등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도록 하면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조직의 원리이고, 자주적 결정보다는 미리 정해진 국가와 당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강제성의 원리이다. 모든 청소년들은 8세에서 13세까지 소년단에 가입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14세에서 30세까지 소년단의 상급기관인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즉 사로청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년단 입단시에는 “나는 조선소년단에 입단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선언하고 사로청 입단시에는 다시 “당과 동맹이 요구하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헌신분투할 것”이라는 매우 공격적, 투쟁적인 선서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조직의 원리와 강제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또 대중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사과, 비판하게 하는 자기비판의 원리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의 각 속에서 널리 쓰이는 교육의 한 방법이다. 학습과정에서는 추상적, 일반적인 가치나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과제중심의 학습이 강조된다. 특수한 모습으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차경수, 1994 : 79-80).

3. 북한청소년 사회화의 단계

북한은 모든 인민들을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성장 단계에 상응하는 특정한 사회화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북한은 ‘어린이보육교양법’(1976.4)과 ‘사회주의교육테제’(1977. 9)에 근거하여 각종 사회화 주관자로 하여금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와 ‘공산주의 인간성’을 주입하고 있다. 삶의 주기에 상응하는 청소년사회화의 성격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기

영·유아기에서는 탁아소 교육과 유치원 교육을 받게한다. 북한은 초기 사회화 단계부터 어머니의 보살핌을 제한하고 국가와 사회가 어린이의 양육 방법에 깊이 관여한다. 어린이들은 생후 3개월부터 탁아소에 집단 수용되어야 하며 4-5세 부터는 유치원에 가서 교양원들의 교육을 받는다.

교양원들은 김일성 혁명력사 이야기, 만경대 모형에 의거한 김일성의 어린 시절 소개, 미군·지주·자본가·관리들의 횡포 이야기, 혁명가요 부르기, 반미적인 연극 활동, 반미적 전투적 내용이 담긴 만화와 그림, 전쟁놀이, 무용, 운동, 산보등을 지도한다.

이곳에서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와 그에 대한 무조건 절대적 복종을 배우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썩’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배우는 것이다.

2) 아동기

아동기에서는 인민학교 교육과 소년단 조직생활을 중심으로 사회화된다. 어린이들은 만 6세부터는 인민학교의 공산주의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소년단원으로서 사회단체 생활을 시작한다. 소년단의 조직생활은 만 13세가 되는 고등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된다(도홍렬, 1990 : 133).

이 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생활 환경은 ①학교 교과서의 학습을 통하여 김정일에의 충직, 적에 대한 적개심 함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등을 통해 사회적 특성을 배양하며, ②소년단의 정치사회활동을 통하여 당과 김정일에 무한히 충실하며 어떠한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붉은 전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생활태도를 견지하도록 교육받는다.

어린이들에 대한 정치사회화는 198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경향이 다. 1982년 6월 6일 ‘조선소년단’결성 36주년을 맞아 ‘소년단’은 김일성과 당에 절대 복종하는 ‘주체혁명의 후비대’로 육성시켜 나갈 것을 재다짐하는 가운데 청소년들에 대한 주체사상 교양사업을 적극화시키도록 촉구한바 있다.

소년단원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배움의 천리길 행군’, ‘광복의 천리길 행군’, ‘김일성의 청소년시절 따라 배우기운동’, ‘숨은 영웅 모범 따

라 배우기운동’,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 답사’, ‘김일성 소년영예상’ 수여 등과 같은 사회화과정을 받게하고 있으며, 그리고 땅콩 가꾸기와 유지작물 재배, 파고철 수집운동과 같은 생산·노동운동과 키르기운동 등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다(Ⅲ-2장 소년단참조).

3) 초기 사춘기

이 시기는 고등중학교와 사로청에 소속되어 사회화 되는 기간이다. 인민학교를 마친 소년들은 대부분 후기 아동기(6-11세)와 초기 사춘기(12-15세)에 해당되는 만 10-16세 기간은 고등중학교의 교육을 받게 되며 동시에 중등반 학생은 소년단, 고등반 부터는 사로청 맹원으로서 정치사회활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기간부터 벌써 고등중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특수 교육기관의 입학자로 선발되어 이른바 민족 간부로서의 예비 과정을 일찍부터 시작하는 특수청소년층도 생긴다(도홍렬, 1990 : 134). 사로청의 맹원이 된 학생은 당의 직접적 통제를 받고 있는 사로청의 조직 활동을 통하여 당과 혁명에 충실한 공산주의의 후계자로 양육된다.

초기 사춘기에 해당되는 북한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은 집단생활을 하게 된다. ① 주간 행사계획에 의거한 각종 회의, 사회 봉사, 문화 위생, 기술 연마, 체육 ② 경험 교환회, 경제건설의 선봉대로서의 노력 동원, 집단 기술운동의 돌격대 활동, ③ 목표량 독려, ④ 칭호 수여, ⑤ 자연 개조, 농촌 지원 등을 맡고 있으며, ⑥ 이에 필요한 학습회와 강습회(토끼 관리, 병 예방과 치료, 토끼 먹이 등의 강습)에도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생활 속에서 북한의 청소년들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더불어 적에 대한 적개심을 배양해가면서 체제지향적인 후비대로 양성된다.

4) 후기 사춘기

후기 사춘기에서는 상급학교 진학과 직장배치 과정을 통해서 정치사회화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청소년 사회화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후기 아동기를 지나 이에 이르게 되면 북한청소년들은 각기 북한체제에서 각자가 놓여지게 될 사회적 위치의 행방이 가려진다. 고등중학교나 특수 교육기관을 마친 청소년들에게는 대학 진학, 엘리트 양성의 천재 교육, 군대 입대, 직장 배

치 등 제도화된 사회 진출의 기회가 차별적으로 부여된다. 이중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자격을 얻어 진학하는 사람은 소수에 속한다.

나머지 대다수는 본인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국가기관 등 각 분야의 직장배치에 배치받게 된다. 따라서 스스로가 북한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소속단체의 신입과 추천을 받아 낼 수 있는 정치적 표징과 실무적 표징을 축적하여야 한다(도홍렬, 1990 : 135).

이러한 사회화의 기본 원칙은 그 이후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 북한의 이러한 사회화 과정은 북한 주민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식 구조를 양성하였다. 오늘날 북한의 후계 세대인 북한의 청소년들은 공산주의사회에서 태어나서 북한 특유의 사회화 교육을 받아왔으며 더우기 외부의 영향력이 극도로 제한된 폐쇄사회에서 교육을 받아온 세대라는 점에서 남한의 청소년들과는 많은 부분 다른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4. 북한의 청소년 사회화 이념

정치사상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북한에서의 청소년 사회화는 매우 중요한 사회교육의 영역으로 간주되고 있다. 1972년부터 북한은 취학전 의무교육 1년과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포함하여 도합 11년간의 학교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한 청소년들은 거의 모두가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어떤 사회조직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20세에서 27세의 청소년들은 군대에 입대하며 일부는 대학에 다니고 있다.

북한에 있어 청소년 사회화의 방향과 이념은 여타 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헌법’이나 ‘조선노동당 규약’, ‘어린이 보육교양법’,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그리고 각종의 ‘김일성 연설문’ 등에 잘 나타나 있다. 학교교육이나 가정교육, 사회교육 등 교육체제의 전 범주에 걸쳐 공통된 북한의 청소년 사회화는 고유적인 ‘이념적 틀’을 지니고 있다. 북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고유적인 이념적 틀이라 함은 곧 혁명분자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라는 3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三化의 목적)를 의미한다(북한연구소, 1977 : 537-538).

철저한 폐쇄·통제·획일사회인 북한은 이러한 이념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를 모토로 하여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탁아소와 유치원, 각급 정규학교 및 사회교육 기관, 정치·경제·사회단체 및 조직 등을 통해 철저한 정치사상교육과 기술 교육, 군사교육을 받고 있다. 북한의 헌법 제 39조에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는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북한 교육전반의 방향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의 중요성과 그 접근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 것과 함께 사회관계 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양교육을 받는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며 그들 속에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예술지식, 체육기술을 보급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교양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다.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양시설들은 학생교양의 믿음직한 기지이다. 사회교육 시설들을 거점으로하여 정치사상 강연, 과학토론회, 발표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여러가지 소조활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출판사·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 듣는 등의 모든 것이 다 교육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교육테제의 상기와 같은 논의 등은 곧 청소년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사회교육에 있어 학교중심형 사회교육과 일반 청소년 대상 사회교육의 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최운실, 1990 : 45-46). 즉, 북한에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화는 대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학교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중심형 사회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여타의 직장 중심 또는 산학연계

형 사회교육이다.

산학연계형 사회교육의 한 예로 ‘농촌청년열성자회의’가 있다. 이는 농촌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은 물론 생산성 제고를 독려하기 위한 사로청의 한 활동이다. 한 사례로 1995년 2월 ‘농촌청년열성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중앙과 지방의 사로청일꾼들과 농촌청년분조장·청년작업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로청위원장 최용해의 보고에 이어 참가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중앙방송, 1995. 2. 28). 이 회의에서는 각지 농촌의 청년분조장과 청년작업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최용해의 보고가 있는 후 농촌청년들에 대한 사상무장강화방안이 집중 논의 되었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북한이 농업제일주의를 새로운 경제전략으로 제시한 후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올해에도 식량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 청년분조장과 청년작업반장들을 내세운 곡물증산 대책을 토의하기도 했다(내외통신 종합판(55), 보9385호, 1995. 2. 28 : 268).

이와 같이 산학연계형 사회화는 교육적 측면보다는 청소년들의 사상강화는 물론 노동을 촉구하기 위한 성격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헌법 이외에도 김일성의 연설문, 사회주의 교육의 원리에 대한 해설,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교육 등에 관한 해설서를 보면 “투쟁하는 혁명가 양성”, “청소년들의 혁명화·노동계급화·공산주의화” 등이 교육의 목표로 직접 제시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차경수, 1994 : 78).

청소년에 대한 사회화의 모델과 선택의 대안은 사회주의이론, 주체사상에 맞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고 가정, 학교, 청소년단체, 대중매체 등은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직되어 있다. 따라서 당정책에 의해 입안되고 추진되는 청소년활동이 전국의 대중매체와 청소년단체등이 일시에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대대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청소년의 이념을 토대로 형성된 이상적인 공산주의청년의 모습은 북한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유형이 모범적인 청소년상으로 제기되고 있는가. 이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다(엄종식, 1988 : 60).

- ① 사로청동맹의 조직생활을 4년이상 했으며 각급 해당 직장에서 현재도 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자.

- ② 기술고등학교를 나와 2년 이상의 직장생활을 거쳐 현재 대학 정규교육과정을 밟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적 교양과 앞으로 활용될 전문기술 습득을 이수 또는 수행중의 미래의 당적 핵심분자.
- ③ ‘세계최대의 강적 미제’와 겨루기 위해 전투태세를 갖춘 인민군 전사중의 가장 선도적 전위분자.
- ④ 북한전역의 천리마 생산운동고조에 언제나 노동실적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영웅적 천리마 기수’
- ⑤ 언어, 사상, 예술, 생활등의 일체 문화대혁명에 선구적으로 개척에 뛰어 드는 새로운 조선문화의 젊은 창조자

이상의 5가지 유형은 북한사회에서 확실히 공산주의청년의 모범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의 청소년들은 모든 이러한 전형을 목표하여 사회화되고 있다.

5. 북한청소년의 정치사회화과정

최근 북한사회에서는 ‘낡은 인테리’에 대한 ‘젊은 인테리’의 양성이라는 기치 아래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교육의 중요성은 정치사회화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교육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역시 정치사상교육이다. 혁명의 후비대가 되는 청소년을 철저한 ‘공산주의적 새인간형’으로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혁명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전에 김일성은 “청소년은 대를 이어가면서 혁명을 계속해야 할 우리 혁명의 후비대일 뿐 아니라 사회발전에 있어 사람들을 교육, 교양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 교육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김송기, 1972 ; 최운실, 1990 : 46 인용).

북한은 특히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과외 교양기관들을 거점으로 조직화·체계화할 것을 강조하며 청소년 정치사회교육이 일종의 과외교양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기도 하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나 또는 과외시간에라도 ‘온갖 낡은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배우며, 혁명적 세계관을 수립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혁명분자, 공산주의자로 키우기 위함에서이다”(로동신문, 1973. 10. 4)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회화는 대부분 당의 정책이 사로청에 전달되면 전달받은 사항을 사로청 조직이 구체화시켜 집행한다. 북한 청소년 사회화의 과정인 사로청의 주요 활동사항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 2월부터 실시된 ‘노력경쟁’이다. 북한은 청년들을 경제건설에 적극 동원하기 위해 10월 당 창건 50주까지를 기한으로 ‘노력경쟁’의 일환으로 사로청조직 실적경쟁을 전개하였다. 2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부문별·단위별로 경쟁을 진행하였다. 경쟁내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내외통신 종합판(55) 보9413호, 1995. 3. 18 : 196).

- ① 김정일에 대한 청년들의 충성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 ② 각종 생산·건설과업 관철
- ③ 작업시간 엄수 및 생산능률 제고
- ④ 어렵고 힘든 부문에 대한 자원 근무
- ⑤ 각종 절약운동 및 유휴자재 수집운동
- ⑥ 기술혁신운동의 전개

이 요강은 노력경쟁운동의 지도를 위해 각급 사로청조직들이 사로청중앙위가 내려보낸 ‘조직요강’을 근거로 목표를 세우고 그를 철저히 집행함은 물론 모범사례를 적극 소개선전함으로써 경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주력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위의 요강중에서 최근 북한은 경제회복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당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당은 이러한 사항을 사로청에 하달하여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수준 제고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매스컴들도 동시에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의 사로청 기관지 ‘로동청년’은 “청년학생들을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키는 것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사로청조직들의 기본임무이며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보도하면서 각급 사로청 조직들에 대해 학생들의 과학기술부문 학습열의와 학과 실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내외통신 종합판(55)보9415호, 1995. 3. 20 : 241).

이러한 보도는 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 중요한 청소년사회화는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이라 할 것이다. 김일성사망과 부분적 개방화 이후로 청소년사상교육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3월 사로청 8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들에 대한 사상강화 및 ‘군사사상’ 주입을 촉구한 바 있다. 사로청 중앙위¹⁾ 위원 및 후보위원과 각급 공장·학교의 사로청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는 당 창건 50주와 해방 50주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과제와 사로청조직들에서 학생·청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다(평양방송, 1995. 2. 24).

전원회의에서 최용해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사로청 조직을 “김정일의 청년동맹으로 강한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을 가진 부대로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청소년들을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8백만의 총폭탄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최용해는 청년들에게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적들이 덤벼들 경우 산악같이 일어나 침략자들을 단매에 쓸어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해 호전의식과 군사상을 주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회의에서 학생·청년들을 ‘민족간부·혁명의 역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과업과 방안을 제기했다(내외통신종합판(55) 보9423호, 1995. 3. 24 : 258).

북한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사설을 통해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임무는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동청년」은 이어 김정일을 『청년들의 운명이며 마음의 기둥』이라고 찬양하는 가운데 특히 청년들이 『김정일의 영도적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그마한 틈도, 추호의 양보도 몰라야 한다』고 주장, 김정일체제 구축에 「선봉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년들은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김정일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동청년은 이와 함께 전체 청년들이 김정일을 옹호·보위하는데 있어 「총폭탄」이 될 것을 역설했다(내외통신 9435호, 1995. 4. 1 1 편).

2절 청소년사회화방법과 동원수단

1. 청소년사회화 방법

1) 교수·교양방법

이는 교원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이야기·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배우는 학생은 토론과 논쟁의 ‘문답식 방법’을 통해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해설과 설복’이 동시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기본방법은 ‘긍정적 모범으로 감화’시키는 것이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항일혁명 인물들의 투쟁’이나 ‘김정일을 따라 배우자’는 사례들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에는 집체학습이라는 사회화방법이 동원되는데 이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학습받는 것을 일컫는다. 이곳에서 다루는 의제는 다양하나 주로 정치, 김부자에 대한 우상화 등이 주를 이룬다. 학습·강의·토론·자습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는 「집단토의제」, 「집체학습」을 들 수 있다.

집단토의제는 단체 또는 기구의 소속 구성원들의 집단적 토론에 의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해당 단체·기구 책임자에 의한 교수교양방법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력을 지대하게 받는다. 결과적으로 로동당으로부터 하달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원들이 수업안을 과목 분과별 또는 강좌별로 토의,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교단에 서는 것을 들 수 있다.

집체담화도 일종의 교수교양방법으로 어떤 주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좌담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당 또는 사회단체 책임자가 제기된 의제를 참가자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예로 당·군사노선을 주입시킬 때, 집체담화를 주재하는 초급당비서나 기관장이 참가자들에게 『당 군사노선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라』 등의 질문을 던진 후 좌담회를 갖게한다. 좌담회가 끝난 다음 당·군사노선에 대해 설명해 준다(주간판944호, 1995. 3. 16).

2) 조직생활의 강화방법

북한에서 청소년의 조직생활은 ‘공산주의의 품성과 태도를 집단적으로 단련하는 정치생활’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노동당과 그의 외곽단체인 사로청과 소년단이 차지하는 정치사회화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청소년조직생활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사상교육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실제로 정치활동에 참여케 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 시절은 「조선소년단」(인민학교 2학년인 7세-고등중학교 중등반인 13세까지)에서, 그 이후의 청소년 시절에는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14-30세)에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특히 소년단의 활동은 ‘과외교양기지’로 일컬을 만큼 중시하고 있다. 이는 III부 소년단, 사로청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3) 대중화방법

북한의 「전국사로청 일꾼대강습회」(1995. 3)에서는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방안』 등이 취급된 적이 있다. 청소년들의 사상교육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평양선전기관들의 논조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시 노동청년지는 사설에서 이른바 “혁명적 수령관”이 계급교양의 핵심을 이룬다면서 여기에 청소년 사상교육의 초점을 맞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의 이같은 청소년 사회화를 위한 대중화방법은 표면적으로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다.

첫째로, 직접적인 방법은 「청소년 사상교육=체제고수」라는 등식을 강조하는 것을 일컫고 있다. 『옛 소련이나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도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을 하지 않고 계급투쟁을 포기한 것과 관련돼 있다』, 『청소년들속에서 계급교양을 하지 않고 계급적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계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노동청년 사설이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청년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그만한 애로와 난관도 뚫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사소한 불편 앞에서도 불평을 부리며 나아가서는 수정주의사상에 몰 젖어 혁명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직접적인 사상교육은 다시 구체적으로는 두 세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① 「혁명적 가요」 애창축구 ② 「국방체육」 강화 등이다.

「혁명적 가요」 애창은 『노래가 담고 있는 사상·정서적인 감화력에 적극 호응하면서 혁명적인 사상감정을 자신의 것으로 뜨겁게 그대로 행동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촉구되고 있다. 청소년들을 「김정일군대」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의 노래로는 김정일이 좋아한다는 「동지애의 노래」와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전호숙의 나의 노래」 등이 제시됐다. 이 노래들은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 애국교양을 비롯해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절실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방체육」 강화는 청소년 학생들을 체력과 사상적으로 강인하게 단련시켜 이들을 「김정일의 군대」로 만든다는 목적 아래 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로 권장되고 있는 종목은 수류탄던지기, 창격전, 태권도 등이고 사로청조직의 주도로 전개되고 있다.

둘째로, 간접적인 사상교양 방법은 매스컴을 매개로 남한이나 서구문물을 비난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95년 3월 17일자 평양방송, 3월 13일자 중앙방송의 보도가 그 예이다. 3월 17일 평양방송은 『남조선에서 20대 청년들 가운데 39%가 불치의 병인 에이즈에 감염돼 있다』고 허위 보도했다. 평양방송은 이것은 『온갖 패덕 패륜현상과 퇴폐적인 사회풍조가 만연된 남조선 사회상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라고 비난선전했다. 13일자 중앙방송은 『미국사회에서 범람하는 폭력문화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를 마비시키고 이들을 살인자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부패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청소년 범죄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북한의 이같은 매스컴을 매개로 한 남한과 서구에 대한 비판적인 청소년사회화는 김정일체제의 속성상 끊임없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내외통신주간판946호, 1995. 3. 30).

4) 교육과 노동의 결합방법

이는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혁명의 실천으로 활용해야 ‘산 지식’이 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교육은 생산노동에 직접 참가하여 노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구분을 막고, 이론과 실천을 결합한다는 명분을 내걸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이론적인 기반도 되고 있다.

교육과 노동의 결합방법의 한 예로 청소년들을 농사활동에 동원시키기도 한다. 북한은 모내기에 학생과 근로자들을 집단 동원하고 있다. 각급 당조직의 주관아래 전개되고 있는 「농촌지원전투」는 학생들이나 공장·기업소 근로자, 행정기관 종사자들이 직접 농촌지역에 파견되어 모내기를 하거나 경제선동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중앙방송, 1995. 5. 27). 또한 직접적인 노력지원 뿐만 아니라 영농물자나 거름 등을 지원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데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의 경우도 일과후 협동농장에 파견되어 노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 북한은 특히 「농촌지원전투」에 있어서도 청년층이 「돌격대」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내외통신 9520호, 1995. 5. 29 2편).

북한청소년에 대한 노동동원은 군대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동원되고 있다. 북한은 청년들에 대해 「군-민일치미풍」을 내걸고 전 군중적으로 진행중인 군부대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은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을 통해 『군대를 원호하는 것은 최고사령관 김정일의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보장하며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군인들이 맡겨진 전투임무 수행에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원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과정에서 군인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예술소품공연, 위문편지 보내기 등에 주력하는 한편 여러 가지 원호물자를 마련, 군부대에 전달함으로써 군인들을 고무·격려하고 있다(내외통신9520호, 1995. 5. 29 2편).

5)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방법

이 방법은 정규 학교교육 이외에 다른 정치사회화의 매체인 가정과 ‘사회교양수단’(언론매체)들을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977년 9월에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 가정을 혁명화하여, 그 혁명적인 영향을 자녀들이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북한청소년들이 유년시절부터 국가기관에 의해 사회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혈연주의, 가족주의에 대한 문화적 지향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북한연구소, 1994 : 539-540).

북한에서 언론매체의 역할은 당의 대변인 역할에 있다. 북한에서 언론매체

가 정치사상교양을 위해 담당하는 역할은 주로 당의 역할과 수령에 대한 찬양 및 충성,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는 1990년대 이후 더욱 중시되어 왔다.

사회교육을 위한 언론매체 가운데 영화를 통한 북한청소년 사회화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북한은 이를 위해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를 설치했는데 이는 북한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영화를 전문적으로 제작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이다. 1971년 5월 7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안에 있던 「과학영화촬영소」와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안에 있던 「아동영화촬영소」를 통합하여 현재의 이름인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로 조직됐다.

이 영화촬영소의 기본 임무에 대해 북한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간한 〈백과전서〉는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어린이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아동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평양시 중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하에 아동영화창작단, 만화영화창작단, 지형영화창작단, 과학영화창작단 등을 거느리고 있다. 이 영화촬영소는 설립이후 현재까지 약 5백편의 아동영화를 만들어 냈는데 대표작으로는 다부작 아동영화 「소년장수」(42부), 「영리한 너구리」(46부), 장편 만화영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가 꼽히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어린이들의 충성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만화영화」를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동영화 창작에 많은 자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아동영화에서 「인형영화」나 「지형영화」는 제작비는 적게 들지만 『예민한 생활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는데 제한성이 있어 비용이 많이 들지만 「만화영화」 제작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국제방송, 1995. 3. 21). 북한은 현재 아동영화 시나리오로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돌려 주었다는 내용의 동화를 소재로 수십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북한이 아동영화를 처음으로 만든 것은 1960년으로 영화명은 「신기한 복숭아」였다(내외통신주간판 948호, 1995. 4. 13).

북한은 영화 이외에도 노래와 시를 소재로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시켜 왔다. 사로청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청년은 청소년들을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5백만의 총폭탄으로 키우는데는 여러 가지 소재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노래와 시로써 교양 교육사업에서 실효를 높이고 있다. 함흥자동차부속품공장 초급사로청위원회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

의 일반화를 추구했다.

노동청년에 따르면 함흥자동차부속품공장 초급사로청위원회에서는 최근 청년학교와 작업현장, 모임장소들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전사의 염원〉, 〈동지애의 노래〉 등과 장편 서사시 〈백두산〉 등을 내걸고 모든 청소년들이 이를 부르고 외우도록 하는 한편 그에 담겨진 사상적 내용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해설을 병행하고 있다. 이곳 초급사로청위원회에서는 또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노래와 시실효모임과 시 낭송모임, 노래감상, 해설모임들도 계기에 맞게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정된 노래와 시를 가지고 초급단체별로 경연을 벌이기도 하였다(내외통신 9509호, 1995. 5. 22 2편).

6) 집단동원 방법

이 방법은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력 경쟁운동을 통해 개인 혹은 집단간의 노동력 동원 결과 사상교양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하는 평가를 내린다. 이를 통해 생산성의 증가는 물론 청소년들의 사상개조운동으로서의 성과도 함께 얻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동원적 특성을 갖는 선거행사나 각종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 그리고 일정한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개되는 관련행사, 캠페인, 구호제시 등과 같은 대규모 군중운동도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화의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북한연구소, 1994 : 540-501).

몇가지 사례 가운데 한 예로 북한에는 ‘전국학생문답식 학습경연’이라는 행사가 있다. 북한은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전국 대학·고등전문학교학생 문답식학습경연」을 진행하고 있다. 「문답식학습경연」은 학과별, 학교별, 도별 경연을 거쳐 여기서 선발된 우수단체들로 중앙경연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개최됐는데 전체 학생들이 『김정일의 사상이론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빛내어 나가도록 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1995년 3월 중순 평양시에서 개최됐던 중앙경연에는 도별 경연에서 선발된 31개의 대학, 고등전문학교 학생 5백50여명이 참여했는데 김일성대학과 삼흥대학, 평양고등기관사전문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문답식학습경연」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등 김정일이 발표했다는 각종 「문헌」들이 학습교재로 다루어지고 있다(내외

통신 9456호, 1995. 4. 17 2편).

한편 북한은 김일성의 생일(4.15)에 즈음해 1995년 4월 13일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2천여명의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일성의 생가 참관행사인 「만경대고향집 찾기」 행사를 가진 것으로 평양방송이 4월 14일 보도했다. 또한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전국 학생소년 이야기모임」이 4월 13일 사로청 중앙위원장 최용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열리기도 하였다(내외통신 9453호, 1995. 4. 14 2편). 이러한 ‘만경대고향집찾기’, ‘전국 학생소년 이야기모임’ 등은 대표적인 집단동원 방법의 사례로 지적할 수 있다.

7) 병진방법

이는 특정한 교수방법이라기 보다는 전체 사회교육의 연계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학교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까지 하나같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를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이처럼 각 ‘교육공정’이 조직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북한연구소, 1994 : 541).

2. 동원수단

어느 정치체제나 사회조직은 조직원들의 참여를 극대화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용한 각종의 동원수단을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체제가 사용하는 통제수단에는 “규범적인”(normative) 수단, “물질적인”(material) 수단, 그리고 “강제적인”(coercive) 수단 등이 있다(Alexander Dallin and George Breslauer, 1970 : 192-193). 북한은 청소년조직을 지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사해 왔다.

1) 규범적 수단

규범적 수단은 긍정적(positive) 또는 상징적(symbolic) 힘으로서 교육, 사회화, 위신의 제공, 인정, 혹은 사랑 등을 포함한다. 이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

이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인민대중이나 청소년이 따를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참여케 하는 방법이다. 노동자들의 모범, 집단의 모범, 혁명 선열들의 탁월한 모범이 생활의 이상으로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정열을 북돋아 주며 그러한 것은 자기도 해낼 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주며 개개 청소년들의 사상발전의 전망을 준다는 것이다.

긍정적 모범은 현실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따를 수 있는 방향성을 또한 지녀야 한다. 따라서 모범은 대중운동의 성격을 지녀야 하며 대중을 대화와 설득의 방법으로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이상희, 1992 : 301). 한편 집단주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개인적 모범도 집단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게 되며 그 모범이 일반화 될 때에는 집단적인 힘을 지니기 때문에 그 위력은 대단하게 나타난다.

규범적 수단으로 최근에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김정일의 ‘감사’공세가 있다. 북한 김정일의 두드러진 특징은 주민들에 대한 「감사」·「친필서한」·「생일상」이 더욱 빈발해지는 것이다. 김정일은 1995년초 「친필서한」을 검덕광산 당세포 조직에 보낸데 이어 청소년들과 주민들에게 「감사」·「생일상」을 남발하면서 경제난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노력경쟁 제고와 민심수습에 안간힘을 쏟아 왔다. 이와 관련, 김정일은 김일성의 83회생일(4.15)을 계기로 수십개의 기관·단체들과 개인 및 그 가족들에게 각종 명분으로 「감사」와 같은 선심공세를 잇달아 펼치면서 그의 「인덕정치」를 과시하였다.

1995년 4월 18, 19일 양일간 북한의 중앙방송은 김정일은 검덕광산의 증산투쟁을 적극 지원했다는 이유로 사로청·직충중앙위와 해외동포 영접총국 등 15개처에 대해 경제전략 관철에 이바지한 공로로 김일성대학 지리학부, 생물학부 종사자들과 평양철도대학 등에 각각 「감사」를 보냈다. 그밖에 군부대 지원사업에 모범을 보였다는 이유로 외국문종합출판사 종사자들을 포함해 34개 기관·단체 및 개인들에게도 무더기로 「감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관련단체들에서는 「감사전달식」 명목의 모임을 갖고 김정일에 대한 절대충성과 그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배가를 한것으로 알려선전매체들도 김정일의 이같은 사실을 부각, 선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력경

쟁을 부추기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김정일은 또 이같은 「감사」 공세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노력배가를 독려하기 위해 「친필서한」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는 1995년 새해 첫날부터 『내나라, 내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가자』는 요지의 「친필서한」을 전체 주민들에게 보낸바 있다. 김정일은 이어 “당은 우리 노동계급을 굳게 단속합니다”라는 내용의 두번째 「친필서한」을 김덕광산의 한 당세포조직에 보내고 이들의 노력배가를 강조한 것으로 중앙방송이 1월 20일 보도했다.

북한은 김정일의 1995년 새해 서한이 공개된 직후부터 중앙의 당·정기관은 물론 지방의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에 이르기까지 이의 관철명목으로 일제히 「결의모임」을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노력배가를 독려했다. 김정일의 이서한은 지금 하나의 구호화하여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고취와 경제전략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외에도 4월 19일에는 평양시 선교구역의 1백3세된 한 할머니에게 김정일의 이름으로 「생일상」을 차려준 것을 비롯해 김정일은 국가적 주요 행사 등을 계기로 주민 개개인들에 대해 선심공세를 전개하였다. 한편 북한은 김정일의 「친필서한」·「감사」·「생일상」등을 북한주민들에 대한 『김정일의 끝없는 사랑과 애정표현』으로 선전함으로써 「인덕정치」의 표징으로 내세우고 있다(내외통신 9462호, 1995. 4. 20 2판). 어쨌든 김정일의 이같은 특유의 통치형태는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누적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동요를 무마시키는 한편 이들 사이에 맹목적인 노력경쟁을 유발, 자력갱생적 경제건설을 다그쳐 보자는 교육책으로 보인다. 또 나아가서는 주민들에 대해 「통치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키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한편 감화교육으로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5년초 북한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의 「우상선전물」을 구해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한 처녀의 어처구니 없는 충성심을 감화교육의 모범으로 선전하였다. 철원군 부암리의 출판보급원이었던 김명화는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불길속으로 뛰어들어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와 이들 부자를 소재로 한 미술품을 구해낸데 이어 관련문헌까지 내오려고 일곱번씩이나 화염 속으로 들어갔다가 전신 80%에 3도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북한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지는 그녀의 소행에 대해 김정일을 결사옹위하

려는 「총폭탄정신」으로 추켜 세우면서 『김정일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녀의 총폭탄정신은 길이 살아 우리 청년의 삶과 투쟁을 고무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또 한 차례 이를 계기로 북한 청년들은 「따라 배우기」를 대대적으로 치루었다(내외통신 9470호, 1995. 4. 26 1편). 김일성·김정일의 생명도 아니고 초상화나 몇권의 우상도서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이 당연시되는 북한청소년의 가치기준으로 사회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라 할 것이다.

2) 강제적 수단

강제적 수단이란 부정적인 또는 물리적인 것으로서 법규, 규제, 체벌, 형벌 등을 가리킨다. 북한에서 법률적 규제가 특별히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된 이후부터이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은 김정일의 권력 체제를 실질적으로 담보해 주는 법률체계로서 주체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전에 김일성은 “법은 사회주의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표현형식이다. 일정한 사회경제제도와 계급투쟁을 떠난 법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김일성저작선집』, 1980 : 219).

북한은 사회주의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낡은 사상의 침투를 막아야 하고, 사회주의가 발달된 상황에서 보다 높은 생산규율이 요구되며, 법은 그 시대에 적합한 규율이기 때문에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발전의 단계에 따라 구 법령체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입법을 단행하여 왔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새로 제정하고, 이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1976.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1978.4) 등 제 법령들을 제정하였다.

북한에서 법질서가 본격적으로 강조된 것은 1977년 12월 15-17일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6기 1차회의에서 중앙행정기구 및 인사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면서 「중앙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사회주의 법무생활 지도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부터이다. 북한은 인민들이 법무생활을 일상화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위원회는 시기별, 대상별로 적절한 준법교양 내용과 방법을 제시해 주고 모든 부서들이 자기 직능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법무생활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도록 하였으며 그 진행정형

을 수시로 총화하면서 이 사업을 심화시켜 나갔다. 지구마다 모범단위, 시범 단위를 꾸려놓고 경험교환회, 참관등을 조직하거나 김정일의 「사회주의의 법 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놓고 학습하며 모범청호 쟁취를 위한 경쟁을 지역마다 전개하기도 하였다(로동신문, 1989. 7. 31).

청소년을 비롯한 전체주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당조직이다. 당이 전면에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당정책을 관철시키고 조직동원하고 직접적으로 집행한다. 사회안전부나 국가보위부는 뒤에서 조직을 통제한다. 집단이나 공장들의 최고 실권자는 당조직에 있는 당간부이고 그 밑에 있는 국(局)에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가 있는데 사회안전부에서는 주로 경제범, 살인범, 강간범, 절도범 등을 취급하고, 국가보위부는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곳으로 사상적으로 변질된 청소년들을 색출하는 기관이다. 이들은 공장내 작업반과 부서별로 비밀요원을 두고 감시한다(조갑제·정호승, 1990 : 89).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실제로 북한은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1995년 들어 로동청년지에 「준법교양실」을 신설, 내보내고 있다. 로동청년은 「준법교양실」 신설과 관련해 「청년들이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을 깊이 학습하고 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며 법을 자각적으로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한 사로청 주관 아래 청소년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양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사로청간부 및 청년해설원을 통해 해설선전 사업을 벌이며 청년기동해설대를 조직하여 직장이나 공장별로 순회시키며 위법행위의 「해독성」과 「처벌」에 대해 주입시키고 있다(내외통신 9518호, 1995. 5. 27 1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청소년들 속에서 최근 각종 위법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 청소년들의 위법행위 증가는 정세변화에 따른 사상적 이완과 물질적 욕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북한은 청소년들의 준법기풍 확립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북한의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도덕」 함양을 촉구하는 논조를 연일 내보내고 있으며 사상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공산주의 도덕」 주입은 청소년들이 조직과 집단의 통제에서 벗어나 공중도덕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특히 청소년들의 사상문제

와 관련, 사로청 주관아래 『개인·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자본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대중적으로 강하게 벌려 나갈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로청조직뿐 아니라 각 가정과 연계, 「가정교양」을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생활양식에 몰들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3) 물질적 수단

물질적 수단이란 기술적(technical) 혹은 유용적(utilitarian)인 힘으로써 임금, 보상, 보너스, 뇌물, 그리고 승진을 포함하는 자극을 말한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물질적 수단에는 장학금지급, 진학, 취업등과 같은 직접적인 수단이 있으며 또한 상훈, 영웅칭호부여 등과 같은 상징적인 수단도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영웅칭호 부여와 상훈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의 ‘영웅주의’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성과 용감성을 발휘하는 생각과 행동을 일컫는 말이다. 영웅주의는 대중적 영웅주의와 개인적 영웅주의로 나뉘어진다. 이 때 대중적 영웅주의는 대중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 개인적 영웅주의는 자기만을 챙기는 이기주의로 해석되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북한은 주민들을 당의 정책대로 끌고 가기 위한 방안으로 당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제정하고 대중적 영웅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 때 「영웅」들은 그 행위에 따라 「전쟁영웅」, 「통일영웅」, 「노력영웅」 등으로 구분된다. 그 적용사례들을 살펴보면 6. 25 참전자인 이수복 등을 「전쟁영웅」으로, 상업관리에서 모범을 수행했다는 정춘실을 「노력영웅」으로, 전향을 거부하다 북으로 송환된 이인모 노인을 「통일영웅」 등으로 구분하여 선전하고 있다(내외통신주간판 951호, 1995. 5. 4). 영웅주의의 강화 및 확대는 북한 체제의 존립기반 공고화에 도움이 되는 영웅상을 양산한 후 영웅들을 따라 배울 것을 촉구하여 당의 동원정책 수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

영웅칭호는 개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나 학교 등에도 영웅칭호를 부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5년 1월 중앙인민위원회의 정령을 통해 함북 회령시 오덕산 기슭에 자리한 회령고등중학교를 「김기송 고등중학교」로

개명하였다. 또한 김기송의 동상을 「김기송 고등중학교」교정에 세웠으며 8월 11일에 있었던 제막식에는 함북도당책 이근모, 교육위원장 최기룡, 사로청위원장 최용해 등이 참석하였다. 김기송은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을 위한 「소년혁명가」의 전형으로 소개되고 있고 제막식에서도 ‘김정숙과 함께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여 영웅적 위훈을 세운 소년 혁명가’, ‘항일 아동단원들의 전형’으로 찬양되었다(내외통신 주간판 966호, 1995.8.17 : C3).

또 다른 사례로 최근 북한의 한 고등중학교가 10명의 「영웅」들을 배출한 「영웅군단」으로 등장하여 북한에서 화제가 되었다. 화제의 학교는 함남도의 홍원고등중학교로 이 곳의 졸업생 10명이 군사·과학기술 부문에서 「공로」를 세워 「공화국영웅」(5명)과 「노력영웅」(5명) 칭호를 각각 수여받았다고 민주조선이 보도하였다. 그 내용은 2회 졸업생인 유연기는 6·25전쟁 당시 비행기 11대를 격추한 「위훈」으로, 37회 졸업생인 안동혁 군인은 폭발하는 수류탄을 막아 김일성부자의 초상화를 보호한 「공로」로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극찬하였다. 김정일은 이 소식을 듣고 10명의 영웅을 낳은 이 학교를 「영웅홍원고등중학교」 것과 학교내에 이들의 군상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영웅」칭호 획득에 따른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명언 외우기를 통한 교양사업>, <우리 학교의 11번째 영웅은 누가 될 것인가>, <우리 학교의 첫 여성영웅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제하의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새로운 「영웅」출현을 촉구하기도 하였다(내외통신 9552호, 1995. 6. 19 2편).

한편 물질적 수단의 하나인 북한에서의 상훈은 국가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주어지는 훈장, 메달 등의 총칭이다. 북한의 훈장으로는 국기훈장과 전사영예훈장을 비롯 이순신훈장, 자유독립훈장, 김일성훈장, 석탄광업복무영예훈장, 수산복무영예훈장, 3대 혁명붉은기훈장 등이 있다. 메달로는 공로메달, 조국해방기념메달, 농업기념메달 등이 있다. 북한의 상훈중 특징적인 것은 칭호가 동시에 부여된다는 것이다. 칭호들중 가장 으뜸은 앞에서 살펴본 영웅칭호이며 그 외에도 공훈칭호, 인민칭호 등이 있다. 이들 칭호는 문화, 예술, 체육, 과학기술 등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수여되고 있다. 북한에서 수여되는 상훈의 대상자는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며 행동하며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튼튼히 보위하며 수

령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운 일꾼』으로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대상자는 각 사회단체의 추천후 「국가수훈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돼 정무원의 비준 후 수훈이 결정된다. 상훈 수상자는 진급 및 승진시 특별 배려를 받으며 노후에는 일정액의 기초 생계비를 보조 받는다. 또한 수상시 일정액의 상금과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받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심화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부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외통신주간판 956호, 1995. 6. 8). 이러한 북한의 상훈은 청소년을 비롯한 전체주민들의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 유도과 체제유지를 위한 열성당원의 양성, 사회주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개인 및 단체간의 노력경쟁을 유도키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영웅칭호는 그 부모와 자식에 까지 물려줄 수 있다. 영웅칭호를 받은 사람이 기차를 이용할 경우 무료승차 대우를 받음은 물론이고 영웅칭호자 좌석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어디를 가나 특별대우를 받으며 군중집회에 가면 의례적으로 주석단에 모셔진다. 영화나 연극도 무료이고 좌석 또한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웅칭호를 따려고 누구나 노력하게 된다(김진계·김응교, 1990 : 261-2). 성분이 좋은 북한청소년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직장에 근무할 때, 주택을 배정 받을 때 등 여러 면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물질적 수단의 사례를 소개하면 북한은 「3대 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영예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갖은 방법으로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경쟁심리와 분발을 부추기고 있다. 로동신문이 소개한 신천군의 한 초급당위원회의 경우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제고시킬 묘안으로 「영예등록장」을 설치, 과업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등록시키고 이를 대중들에게 적극 선전함으로써 노력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자들은 속보판·영예게시판 등에 소개되며 각종 견학사업이나 사적지답사 등에도 우선적으로 추천·선발되는 특혜를 받는다. 또한 3혁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평가사업이 실속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각급 당조직 주관으로 영예등록자들의 사업성과와 경험에 대한 「평가사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대중들을 상대로 「모범따라배우기운동」도

전개하였다(내외통신 9470호, 1995. 4. 26 1편).

북한은 최근 당의 축산정책 관철 및 군지원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여러 사회 단체와 행정단위에 당중앙위·중앙인민위·정무원 공동명의로 「순회우승기」를 수여했다(중앙방송, 1995. 5. 30). 「순회우승기」를 받은 단위는 평양 만경대구역 역포구역 강동군, 평남 숙천군 등으로 모두 40여개 단위에 이른다. 「순회우승기」는 노력경쟁 등에서 우승한 단체에 「돌림식」으로 수여되는 것발로 북한은 전년도 과업의 달성정도를 총화해 우수한 단체나 지역에 이를 수여하면서 주민들의 노력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1994년 3월 군지원활동에서 모범을 보였다는 이유로 만경대구역, 강동군 등 35개의 행정단위에 「순회우승기」를 수여했으며 또한 1995년 3월에는 94년도 경제부문에서 성과를 올렸다는 칠리탄광,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에 「순회우승기」를 수여한 바 있다(내외통신 9522호, 1995. 5. 30 2편).

규범적 수단과 물질적 수단이 동시에 구사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최근 여성트럭운전사, 탄광광부 등 이른바 3D업종 근로자들이 최고 우대직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함북도 길주군의 한 초급사로청위원회는 3D업종에 관한 「긍정감화교양사업」의 진행을 통해 여성트럭운전사 탄광광부 신발수리공 재봉공 등을 「공산주의미풍의 선구자」, 「우리시대 청년의 참모습」으로 소개하면서 이들의 모범적 활동사례를 「청년전위 영예등록장」에 기록, 각종 표창과 함께 답사·견학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다.

이곳에서는 여성트럭운전사 및 탄광광부들의 「모범기풍」을 청년들속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강연회를 비롯해 해설담화, 독보회, 실효모임 등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로동청년」은 이와 함께 이곳 청년들의 직업의식에 대해 『이전에는 청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감을 가지지 못하고 안착되어 일하지 않는 현상이 발로되었다』고 강조, 북한청년들의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내외통신 9456호, 1995. 4. 17 2편). 북한은 청년들이 3D업종에 대한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회와 인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참된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라고 강조하며 고등중학교 졸업생이나 제대군인 등을 이 분야에 적극 진출시키고 있다.

Ⅲ 북한청소년조직과 활동

1장 학교조직과 생활

1. 교육정책과 제도

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와 교육목표

1977년 9월 5일 북한에서 발표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북한청소년 교육의 지표 또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교육정책은 이 테제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되는데 이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에 필요한 인간양성, 즉 공산주의적 인간으로서의 개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교육목표는 견결한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투사 및 공산주의적 새인간 양성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교육방향으로는 첫째, 전반적 의무교육 둘째,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셋째, 어린이 보육교양의 강화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공통점은 정치사상교육이 위주이며 그 다음 북한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교육과 노동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르는 교육방법으로는 첫째, 계도계몽 둘째, 이론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셋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넷째 조직사회의 강화이다(서동익, 1988 : 33-34). 북한의 교육정책은 의도적 지도를 근간으로하고 있는데 의도적 지도 내용은 북한정권이 지향하는 바를 학생들 능력의 범위내에서 의도적으로 지도함을 말한다. 애국심과 충성심의 기초적 감정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향해 강화된다. 이것은 학생에게 정치적 정보, 정치적 효능감, 애국적 감정, 혹은 정치적 참여도를 높여 주는 것이다(박문갑, 1989 : 65).

북한 학교교육의 첫단계인 인민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하는 교육의 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김일성 우상화와 충성심 양양, 둘째, 김정일 찬양과 후계 정당화 셋째, 혁명정신과 적개심 고취 넷째, 사회주의 도덕교양 강화 등이다.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 반미·반한사상 고취, 사회주의 우월성 주입, 계급의식

및 혁명정신 함양, 노동성 고취 등을 주된 내용으로 의도적인 공산주의 인간으로 육성하고 있다. 4년간의 인민학교과정을 통하여 받은 영향은 북한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에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민명천, 1983 : 226). 인민학교 이후 고등중학교, 대학교의 교육내용은 인지발달단계에 따라 인민학교의 교육내용을 단계별로 더욱 심화확대시켜 나아가고 있는데 이는 다음 문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사람들의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주기 위하여 학교들에서는 교육단계에 맞는 정치사상과목들을 내오고 교육단계가 높아지는데 따라 정치사상과목교육을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유치원교육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어린시절>과목을 내오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께서 어린시절에 지니셨던 위대한 품모와 고매한 덕성을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다.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등 보통교육부문 학교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도덕>과목을 내오고 교종과 학년에 따라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의 내용을 폭넓고 깊이 있게 설정하여 교양하고 있다. 대학교 고등전문학교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 <철학>, <정치경제학>, <계급투쟁에 관한 이론>, <혁명의 전략전술에 관한 이론>을 깊이 체득시키며 우리 당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알려주고 있다. 학생들이 우리 당 정책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고등중학교 이상의 교종들에 대해서는 매 시기 제기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정책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는 체계를 세워 당정책교양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은 과학기술과목 교육에서도 진행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84 ; 114-5).

2) 학교교육의 과업

집단주의에 근거한 공산주의사상을 주입하는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해 공산주의적 인간을 조형하기 위해 더욱 더 학교교육에 국가의 전 목표를 내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공식적인 학교 수업은 정치사상교육의 핵심기관으로서 취학전에 이루어진 의도적인 정치사회화의 이론과 실재를 경험할 수 있

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곳이다. 학교는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사전 통제된 기관인 만큼 가정과 구별되며, 정치적 메시지의 전달기관이 된다(Ted Tapper, 1969 : 20).

개인이 가정에서 습득한 가치, 태도, 관습, 생활규범 등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반면에 학교에서는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차츰 강화시키므로 가정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경험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형성된 태도나 행동유형들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을 키울 수도 있다. 학교는 공식적이며 의도적인 교수를 통해서 또는 비공식적이며 무의도적인 경험을 통해서 정치적 신념을 가르칠 수 있다.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화의 목적은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하기 위함인데 지금까지 김일성의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가지고 그 이론을 전개하여 왔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학교 교육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 중 3. 사회주의교육방법 5) 학교교육).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이다. 청소년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탐구력과 인식능력이 완성되고 육체적으로 빨리 발육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세계관 확립과 품격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 학교교육의 기본과업은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현대적 과학기술을 가진 혁명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중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고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 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현대적 과학기술을 소유한 혁명인재를 키워야 한다”

북한에서의 학교교육의 과업은 3대 혁명인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의 완수이며 이러한 혁명 인재를 키우는 공식적인 조직이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학교를 통한 정치사회화의 지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칙에는 ① 당성·당의 유일사상 체계확립의 원칙 ② 당파성·계급성의 원칙 ③ 주체확립의 원칙 ④ 이론과 실천의 통일원칙 ⑤ 혁명화·노동계급화의 원칙이 포함되고 있다(극동문제연구소, 1974 : 361).

북한의 교육정책은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측면과도 연계되어 추진되기도 한

다. 예를 들어 북한은 최근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과학기술수준 제고를 위해 학생들의 과학기술 탐구활동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사로청기관지인 로동청년은 1995년에 들어와 각종 기사를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역할을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생과학탐구상 쟁취운동을 비롯해 학생과학연구 소조활동, 과학연구발표회, 창안품전시회, 과학경연, 과학기술통보, 토론과 논쟁, 문답식학습경연 등의 활동을 적극 조직·전개할 것을 촉구했다(내외통신종합판(55) 보9415호, 1995. 3. 20 : 241).

3) 의무교육제도

북한은 1975년 9월 부터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였다. 의무교육에는 수업료와 교과서, 교복과 학용품이 무상 또는 일부 부담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의무교육제의 실시로 모든 것이 무상이기는 하나 무상으로 받는 만큼의 보상으로 노동을 해야 한다.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 이후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일하면서 배우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서동익, 1988 : 31).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일하면서 배우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로동을 사랑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모든 학생들이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율을 지각적으로 지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중 2.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1) 정치사상교양)”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내놔으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다. 오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근로자, 고등학교,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와 같은 교육형태들로 이루어져 있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중 4. 우리나라사회주의교육제도 3)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4) 북한의 학제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학제는 각각 4년, 6년으로 되어 있으며 학기는 공히 2학기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가 9월 1일을 기해 1학기를 시작하는 것은 같으나 2학기는 인민학교가 2월 15일에, 고등중학교가 2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방학기간이 상이하다. 인민학교는 겨울방학이 12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47일간인데 비해 고등중학교는 12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33일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여름방학은 인민학교가 7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38일간이며 고등중학교는 8월 12일부터 8월 30일까지 20일간이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수업기간은 인민학교가 1학기 17주, 2학기 22주이며 고등중학교는 1학기 14-17주, 2학기 14-21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수업기간이 적고 또한 학년별로도 수업기간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고등중학교의 경우 의무적으로 생산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고등중학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4주 가량의 생산노동에 참가해야 한다(김성일, 1990 : 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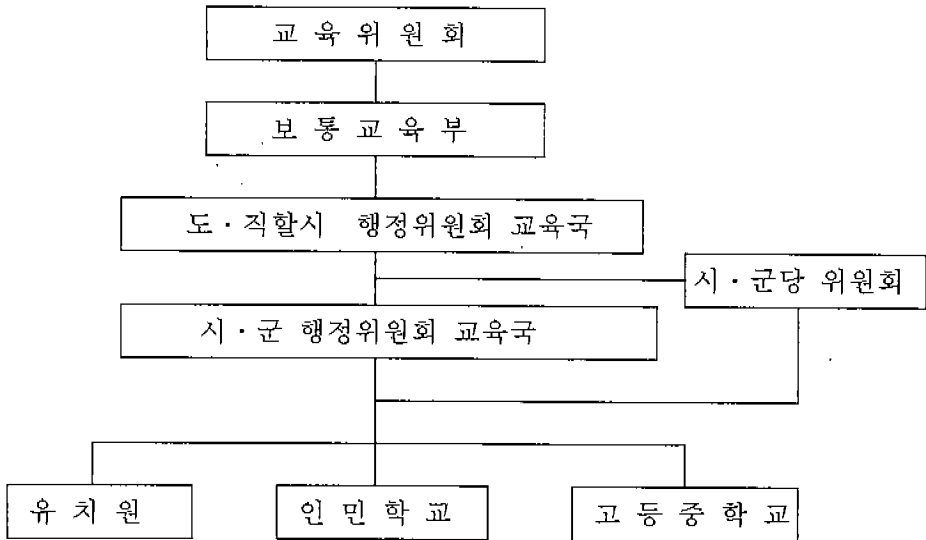
5) 교육행정조직

북한의 교육행정기구는 1948년 인민공화국이 선포된 이후 「교육성」을 신설하고 1954년 부터는 당의 중앙부서에 「과학 및 학교교육부」가 신설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조정을 거쳐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1973년에 정무원(한국의 내각)에 설치하고 그 아래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를 만들어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정무원의 한 부서이며 북한교육부문의 최고 감독기관으로서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기획·수립·지휘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통교육부는 초등, 중등교육 및 사회교육을 전담하며 사범대학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등교육부는 사범계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교수교양과 관리운영을 지도하게 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 종합대학은 정무원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교육부의 조직체계<도표-1>와 고등교육부의 조직체계<도표-2>는 다음과 같다(서동익, 1988 : 3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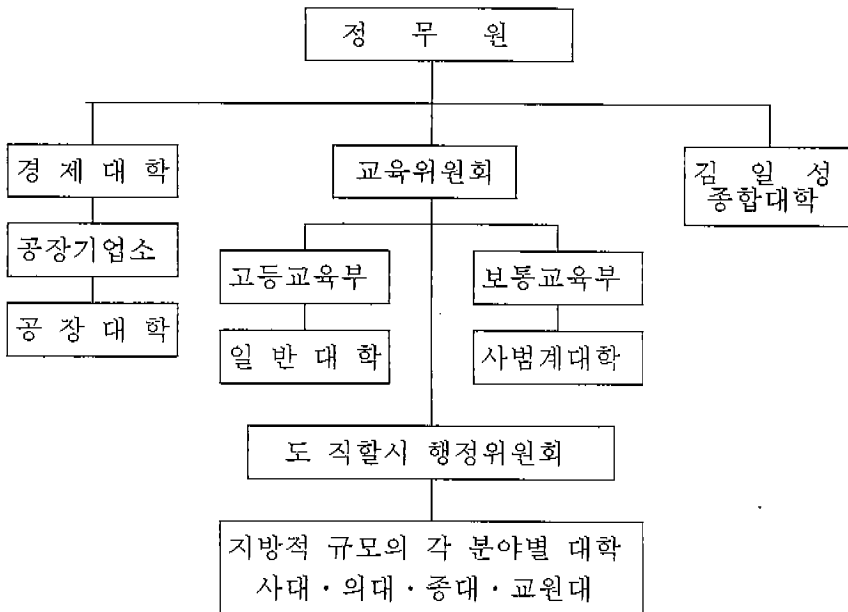
<도표-1>

보통교육부의 조직체계



<도표-2>

고등교육부 조직체계



2. 학교의 정치적 통제

1) 학교내 당의 통제조직

북한의 교육행정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당의 통제하에 있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당의 통제조직으로는 학교 내에 설치된 「초급당위원회」가 있다. 당의 통제력은 중요한 행정업무는 물론 학교 인사문제까지 깊숙히 개입되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 내에 설치된 당세포조직의 권한이 교장의 권한을 능가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북한사회의 모든 학교는 학교관리의 형식상의 책임은 교장이 지지만 실권은 학교 내에 설치된 초급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다. 초급당위원장은 일명 ‘정치부 교장’이라고도 부른다. 정치부 교장은 형식상으로는 학교장 밑에 있지만 행정실무면의 모든 권한을 장악하고, 학교관리의 형식상 책임자인 교장의 주관주의와 관료주의를 당의 지시에 따라 통제한다.

대학의 경우 대학내에는 당이 파견한 「전임 당책임비서」를 두도록 하고, 책임비서에게 대학운영의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도록 하고 있다. 전임 당책임비서는 「대학당위원회」, 「학부당위원회」등을 통해 대학의 관리운영과 교수 교양의 내용 전반을 당의 지시에 따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다(서동익, 1988 : 38).

2) 교원의 정치적 관점

청소년 시기에는 감수성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사회의 권위적 대변자가 되며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이 접하는 최초의 정치적 권위자의 모형이 되도록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의하면 교원들의 역할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 상태가 결정된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다 …… 교

원들이 후대 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노동계급화 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혁명화·노동계급화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노동계급화 할 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 수 없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중 5. 교육기관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2) 교원의 위치와 역할)

북한의 교원들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교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중요시하고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당이나 근로단체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교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해 북한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교원들은 당, 근로단체 조직에 망라되어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체계적인 사상교양을 받을 뿐 아니라 집단의 방조를 받으며 자신의 결함을 고쳐 나가고 있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우리 나라 교원들은 자기의 중요한 실천활동인 교수교양사업에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고 있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돌궂는 현실속에 들어가 인민대중에게서 배우면서 사회정치활동과 과학기술보급활동을 널리 벌리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84 : 119).

북한에서 교원은 정치적 도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교육을 전적으로 교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당의 지시, 김정일의 지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교원들은 당·정에 의해 절대적인 지시를 받아 실천하는 것이 주임무이며 이러한 점은 전국규모의 교육자회의를 통해서 홍보되고 있다. 그 일례로 북한의 「전국 교육일꾼열성자회의」가 1995년 2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부주석 이종욱을 비롯한 당·정 고위간부들과 각지의 교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새시대 혁명발전에서 요구되는 앞으로의 교육업무 발전방안들과 청년세대들을 당과 지도자에 열렬히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중앙통신, 95. 2. 22; 내외통신종합판(55) 보9337호, 1995. 2. 23 : 264). 이러한 회의의 목적은 물론 북한교육의 방향이 노동당에 의해 절대적으로 지도되고 있음을 주지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3) 정책적 도구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학교운영방안은 전부가 로동당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어 나간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는 로동당의 과학기술정책이나 경제정책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들을 최대한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0년 이후 「정무원고등교육부」의 주관하에 각 대학의 과학기술인력을 일선 산업현장의 기술개선사업에 적극 동원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정부기관지 「민주조선」에 의하면 고등교육부에서는 부서내의 과학지도국, 제 1, 2기술대학지도국 등을 내세워 산하 대학들의 교원·연구사들과 함께 경제전략 관철에 힘쓰고 있는 각지의 공장·기업소들에 나가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토록 하고 있다.

고등교육부에서는 또한 각 대학별로 생산기술 개선을 위한 연구과제를 할당, 매월 1회씩 진행하는 「대학과학행정일꾼협의회」를 통해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있다. 「민주조선」은 고등교육부의 이같은 사업은 특히 농업·경공업을 비롯해 석탄·전력·금속공업 등 『경제전략 관철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부문들을 과학기술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큰 힘을 넣고 있다』고 발표하였다(내외통신 9472호, 1995. 4. 27 1편). 「로동청년」은 “학생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사업은 혁명의 어느시기에나 중요하게 나하지만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도 심화발전하고 있는 오늘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로동청년, 1995. 5. 13)라고 강조하고 있듯이 현재 북한학교운영의 방향은 당의 지도노선과 당의 정책목표인 경제회복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3. 학교생활

1) 학교수업과 반조직

북한 인민학교의 반편성과 수업분위기는 상당히 경직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영선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는 4년제이며 각 학년의 1개 반은 70-80명의 학생들로 편

성된다. 대부분 남학생과 여학생은 반을 따로 편성시켜 교육시킨다. 인민학교의 하루는 김일성에 대한 예찬과 노래로 시작되었다. 학교에 등교하면 담임 교원이 우선 학생들을 김일성초상화 앞에 정렬시켜놓고 「충성의 선서모임」부터 진행한다. 선서 내용은 모두 열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김일성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 집행 관철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특히 김일성의 충직한 아들 딸이 되어 그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겠다는 말로 짜여져 있다. 이것은 일명 「김일성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선서모임은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다음, 교원이 큰소리로 선서문을 한 구절씩 읽어내려가면 학생들이 엄숙한 자세로 그 구절구절을 따라 읽어야 한다. 선서가 끝난 뒤 또다시 김일성에 대한 칭송가를 부르게 되어 있다. 선서모임이 끝나면 곧 수업이 시작된다. 수업시간이 새로 진행될 때마다 학생들은 김일성초상화를 바라보며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각듯이 인사를 해야 한다. 교원은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김일성초상화 앞에 엉덩이를 돌려서는 안된다.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 그 교원은 김일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교원은 항상 45도로 몸을 틀어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자세가 매우 부자연스럽다”(이영선의 증언 ; 서동익, 1988 : 49-50)

북한 청소년의 조직생활은 다음의 증언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학급편성과 반내의 조직편성에 있어서도 조직을 체계화 시켜놓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인민학교 1학년에 처음 입학한 날 반을 배치받고 의자에 앉았다. 의자에 앉자 분단기를 나누어 주었다. 우리 줄은 1분단이였다. 분단은 1반에서 6반까지 갈라 놓았다. 그런 다음 반장을 뽑아주었다. 나는 그때 반장이 되었다. 처음에 분단위원장을 지적해 주고 그 다음 학급반장 기수위원들을 지적해 주었다. 학급서열은 분단위원장, 그 다음 학급반장, 그 다음 기수 위원들, 그 다음 반장들이었다.

분단위원장은 리(里)여맹비서의 아들이었고 학급반장은 당원의 아들, 그리고 기수위원들도 당원의 자식들이 모두 차지했다. 그 외에 반장들은 아무나 호명해서 시켰다. 분단위원장의 표시는 별이 3개에 줄이 2줄이었다. 학급반장은 별 2개에 줄 2줄이었다. 위원들은 별 1개에 줄 2개로 표시했다. 반장은 별 3

개에 줄 1줄이었다. 1개 학급은 약 40명씩이고 내가 인도하는 2반은 7명이었다”(이록재의 증언 ; 서동익, 1988 : 56-7)

2) 특별활동

북한에서의 특별활동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는 학교행사나 직업 준비 과정으로서 학생회, 음악반, 연극부, 운동부 등의 각종 특별활동과 다른 하나는 공식적·비공식적으로 특별한 정치조직과 연결된 특별활동을 들 수 있다.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이라는 전서에서는 특별활동에 관련한 조직생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이 학생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통한 교양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은 어릴 때에는 소년단 조직생활을 하고 좀 크면 사로청 조직생활을 하며 그 다음에는 당조직생활을 하든지 다른 근로단체조직생활을 하든지 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사로청, 소년단 조직은 학생들에게 사상적 양식을 넣어주며 정치적으로 키워준다. 부모가 자식의 육체적 생명을 보호하는 혈육적 보호자라면 사로청, 소년단 조직은 학생들의 정치적 생명의 보호자이다”(사회과학출판사, 1984 : 93).

북한의 소년단과 사로청조직과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북한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특별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어려서 부터 혁명과업에 대한 높은 정치적 자각과 책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습성을 기르도록 교양할 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활동을 의도적으로 정치학습화 하여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 줄 아는 참다운 사회의 주인으로, 군중을 조직동원할 줄 아는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우기 위하여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키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84 : 94-5)라고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을 정치활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특별활동을 통해 조직원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3) 학교에서의 과외활동

학교에서의 과외활동은 동원지시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다. 동원지시가 있을 때는 농촌에 나가 옥수수껍질까기, 옥수수영양단지심기, 김매기, 모내기 등. 농촌지원활동과 학교내의 작업으로 일관된다. 간혹 고급 당간부들이 내왕할 때는 학생들이 구역마다 배치되어 도로청소 등도 책임진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시키니까 과외활동이란 명분으로 말없이 수행하지만 학교에서 지나치게 학생들을 동원해서 궂은 일을 시키기 때문에 불평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별한 동원지시가 없는 평상시에는 달리기, 체조, 군중무용 등 주로 체육경기로 과외수업을 하고 기타 분야별 학습활동도 자주 한다. 분야별 학습활동은 학과목 연구서클, 예능서클, 독후감상발표회, 영화감상회, 혁명전적지답사, 창작발표회, 시낭송회, 미술전람회, 담화회, 전투영웅들과의 대화 등인데 학생들은 이런 서클에 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분야별 과외활동은 학교마다 편차가 많고 학생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수령연구실」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연구조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은 우선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며 정치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고 학습에 뛰어나야 한다(서동익, 1988 : 67-68). 나머지 학생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이때부터 북한청소년들은 평등의 구호 밑에 사회적 불평등에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북한청소년 사회화의 이중성과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4) 학생들의 의무노동

북한학생들의 의무노동은 「이론과 실천의 통일」이라는 원칙 아래 제도화되어 있다. 1959년에 공포된 「내각결정 18호」에 의하면, 인민학교 학생은 연간 2-4주, 고등중학교 학생은 6-8주, 고등전문학교 학생은 12주, 인문·사회계 대학은 12주, 기술계 대학은 14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무노동기간에는 수업을 전폐하고 노동만하게 된다. 이밖에도 특별한 학생동원지시가 내려오면 방과후 수시로 4-5시간씩 노동현장에 동원된다. 동원방식은 종래의 각 지역 소년단·사로청 중심의 동원에서 탈피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당중앙위원회의 계획에 의해 중앙통제식으로 동원되

고 있다. 작업내용은 주로 「농촌지원」과 「좋은 일하기 운동」으로 구분된다.

(1) 농촌지원 운동

농촌지원은 주로 농번기 때 3-5개월간 나간다. 먼 지역은 숙제 수업마저 전제하고 나가며 가까운 지역은 오전수업을 마치고 나간다. 학생들이 나가서 농촌을 지원하는 분야는 모심기, 김매기, 관수작업, 추수 등이며 이러한 노력동원은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일하기」는 주로 학교내 정치조직에 의해 실시된다(서동익, 1988 : 68-9).

북한은 모내기 등과 같은 농촌 지원사업에 학생을 동원하는 일은 각급 당조직의 주관 아래 있다. '농촌지원 전투'는 학생들이나 공장·기업소 근로자, 행정기관 종사자들이 직접 농촌지역에 파견돼 모내기를 하거나 경제선동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직접적인 노력지원뿐만 아니라 영농물자나 거름 등을 지원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는데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의 경우도 일과후 협동농장에 파견돼 노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조선일보, 1995. 5. 29).

따라서 5월초부터 한달간 북한의 학교에서는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농촌의 모내기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모내기는 20~25일정도 걸린다. 모내기가 끝나면 김매기에도 동원된다. 모두 3차례의 김매기 중 학생들은 1~2차례 동원된다. 9월말부터 시작되는 가을 추수때에도 한달 정도 동원돼 수업을 못한다.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이면 누구나 농촌지원에 참가해야 한다.

대학생들은 1년에 두달이나 두달보름정도 동원된다. 지역은 농업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한다. 도별로 몇개 대학씩 내보낸다. 어느 협동농장에 학생들을 보낼 것인가는 대학 자체로 결정한다. 대개 같은 학교 학부생들은 같은 협동농장에 배치된다. 학생들은 농촌으로 떠나기 전 [식량정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대학 경리부에서 발급한다. 이를 지원나간 협동농장에 제출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 지원기간이 1주일 정도로 짧은 경우 대학에서 직접 농촌까지 쌀을 나르기도 한다. 잠은 농가에서 자는데 방 1개를 빌려 5~6명씩 조를 짜서 지낸다. 식사는 차례대로 당번을 정해 해결하나 때로는 자신들이 묵고있는 집에서 밥을 해준다. 부식은 농가에서 조달하며 오

전-오후 두차례의 새참도 농가에서 준비한다. 대개가 국수를 맡아 온다. 이러한 일들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때문에 일부 농촌에서는 대학생들의 농촌동원을 귀찮게 생각한다. 학생들은 협동농장의 각 분조(1개 분조가 20~30농가)에 배치된다.

이들은 분조장의 지휘를 받는다. 모내기에서 논두렁 고치기, 물꼬뜨기등 하는 일은 다양하다. 규정된 1일 [노력공수](일한 량)를 채웠는지 분조장이 확인한다. 분조장과 잘 사귀어 남들보다 쉽게 확인받는 학생들도 있다. 확인받은 공수증명서는 동원이 끝나고 학부에 제출해야 한다. 학부는 대학에, 대학은 다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다. 당국에서는 대학별, 학부별 경쟁을 부추긴다. 하루 일과중 농사일이 끝나면 학생신분으로 돌아간다. 아주 바쁠 때를 제외하고는 현지에서도 수업이 계속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공부하며 복습도 해야 한다.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 교수들도 농촌동원에 참여한다. 저녁엔 대부분 자유시간을 갖는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농촌노력동원에 안가려고 애쓰는데 이유는 육체노동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부식이 변변찮은 것도 이유로 꼽힌다. 농촌동원기간에 학교에서는 이유없이 만나간 사람을 조사하며 이유없이 불참한 것이 적발되면 심한 경우 퇴학도 당한다. 실제로 1988년경 외국어대학에 다니던 고위간부 자녀 2명이 퇴학당하기도 했다(조선일보, 1995. 5. 17).

(2) 좋은 일하기 운동

북한의 학생들은 농촌지원활동 이외에도 건설현장에 대한 지원활동에도 동원된다. 그 사례로 북한은 1995년 들어 당 창건 50주(1995.10.10)를 앞두고 건설 중인 당 창건 기념탑, 청류다리 2단계 등 역점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해 대학생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을 지원형식으로 투입하였다. 북한의 사로청기관지 노동청년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평양시 사로청위원회 주관으로 김일성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대동강고등물리전문학교 등 평양 시내 대학과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여 핵심적인 건설대상 지원사업을 벌였다.

이들 대학생 및 고등전문학교 학생들은 각종 주요 건설대상에 나가 직접 노력지원을 하거나 군중무용, 예술소품공연을 진행해 군인들과 건설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북한은 또 각급 학교별로 건설자재나 지원물자를

마련, 이를 건설현장에 전달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1995년의 경우 당창건 50주를 맞아 당창건 기념탑과 청류다리(2단계), 금릉2동굴, 문수-연못동 도로확장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이를 10월 10일전에 완공할 것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학생들을 노동현장으로 대대적으로 투입시켰다(내외통신 9430호, 1995. 3. 29 2편).

5) 군사교육

북한은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시키고 있다. 군사교육 시간에서 대학은 연간 2백 40시간, 고등중학은 연간 1백 20시간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대학과 고등전문학교는 준정규군의 성격을 지닌 노동적위대의 편제를 적용한다. 노동적위대의 연령에 미달되는 학생(17세 이하)은 '붉은청년근위대'로 조직되어 제복, 제모를 착용하고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김성일, 1990 : 38).

4. 학교내 동년배 집단생활

학교생활에서 사회화되는 과정은 공식적인 교육과정 이외에도 동년배인 교우들과 서로간의 정치사회지식이나 정보등을 대화를 통하여 주고 받음으로써 비공식적인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의 동년배간에는 넓은 의미에 속하는 도덕적 제 가치를 형성하며 성장하고 있으나, 고교나 대학에서는 급진적인 정치적 태도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교과과정보다는 새로운 동년배들의 영향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R. Middleton & S. Putney, 1963 : 377-383).

동년배집단의 기능은 첫째, 그 집단이 소속된 사회의 광범위한 문화의 전수 기능을 담당하며 둘째, 동년배 간의 정치적 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고 셋째, 동년배 상호간의 이데올로기적인 견해를 제공받기도 하며 네째, 정치성향과 정치태도를 구성원 각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M.K. Jennings & R.G. Niemi, 1974 : 229-250).

비교적 비슷한 신분과 친밀한 연결을 가진 동년배 집단은 청소년기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때에는 부모나 교사를 대신하는 준거인물로서 동년배

관계가 형성된다. 동년배 집단은 개인의 정치적·참여적 역할을 언제 어느 정도 담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의미가 있으며, 정치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상변화를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속적인 암시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박문갑, 1989 : 77). 이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의 동년배집단의 영향력도 상당히 존재하리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사실상 동년배집단의 경우 극히 친밀할 경우에는 당의 정책이나 고급당원에 대한 비판등과 같은 체제에 비판적인적인 의견도 교환된다고 한다(귀순자 안혁의 증언, 1995. 6).

러시아의 경우 최근 한국의 유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가장 반사회적인 집단으로서 등장한 것이 청소년집단이라 한다. 러시아 등장 이전 이미 1980년대 말에서부터 당시 소련의 젊은이들은 당의 지시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뿐더러, 체제로부터 소외를 느끼고 반체제적·반공적 성향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바도 있다(안택원, 1987 : 172-4). 이는 사회화의 목표와 성취 간의 편차이며 「새로운 소비에트 인간」과 실재하는 소비에트 인간 사이의 격차이기도 한 것이었다. 동년배들의 사회적 동조성(social conformity)이 저하될 뿐더러, 공적으로 주장되는 가치와 대상적 괴리에서 비롯되는 가치갈등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동년배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도 「상호보호(相互保護)」와 「희생자에 대한 집단적 차단」 등에 의하여 그 실효성을 반감시킨다(박문갑, 1989 : 77).

북한에서 새로운 정치관을 지닌 동년배와 가까운 결속을 형성해 나갈 때, 정치성향·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메카니즘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동년배 집단일 수 있다. 친구나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일차 집단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정치적 정보와 아이디어의 근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북한귀순자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이지만 동년배집단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에 관해서 상당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귀순자 김창화, 어성일, 동영준, 김운학 등과 안명철의 증언; 박문갑, 1989 : 77 인용).

따라서 동년배의 영향은 생각보다 여러가지 방향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집단이 소속한 사회에서 문화전수기능을 동년배 집단에서 담당하게 되며, 정치성향 그리고 정치태도 등을 동년배 상호간에 전달하는 기능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아직까지도 당의 감시와 통제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자유로운 상호간의 정치적 의사전달은 아직은 많은 제한

이 있다.

제 2 장 소년단

1. 조직의 창설과 임무 및 목적

1) 임무 및 목적

‘조선소년단’은 만 9-13세의 어린 학생들을 모범적인 소년단 활동을 통해 우수한 ‘사로청원’ 즉 ‘조선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일종의 소년 전위조직이다. 북한 소년단은 1946년 6월에 발족한 이래 현재 약 350만명의 소년단원을 확보하고 있다. 소년단은 사로청 소년단부에서 지도하고 있으며 학년 또는 학급별로 분담 조직화가 되어 있다. 이러한 소년단의 임무에 대해 이미 1971년 6월 김일성이 소년단원에게 강조한 바 있으며 당시 제기된 조직생활 강령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철저한 사상적 무장을 담고 있다(중앙교육연수원, 1981 : 23-26).

첫째, 소년단원은 소년단 조직생활을 잘 해야 한다.

둘째, 소년단원은 학교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셋째, 소년단원은 사회주의 제도를 열렬히 사랑하며, 사회와 재산을 아끼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넷째, 소년단원은 ‘혁명의 원쑤’를 끝까지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용감히 싸워야 한다.

다섯째, 소년단원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

여섯째, 소년단원은 아름다운 공산주의 도덕 품성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소년단원은 ‘로동’을 사랑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와야 한다.

여덟째, 소년단원은 사회정치활동을 잘 해야 한다.

아홉째, 소년단원은 미제와 그 앞잡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야 한다.

열째, 소년단원은 세계 여러나라들과의 국제주의적 친선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열 가지의 소년단원의 임무는 지금까지도 견지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임무속에는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라는 三化의 이념원리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어, 소년단이 북한청소년의 정치사상교양교육에 있어 중요한 사회교육의 기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소년단의 구체적인 설립목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다(정치사전, 1973 : 1017)”라고 규정되어 있다. 입단서약서, 소년단원의 구호, 소년단의 임무, 소년단의 지도지침 등에 나타난 소년단의 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년단은 어릴 때부터 우수한 공산주의자를 양성하기 위한 공산주의 후비대로서 출발한다. 소년단의 입단서약서에는 “나는 소년단에 가입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할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을 하면서 선서의식을 실시한다. 또한 소년단원의 구호는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라고 되어 있고 소년단의 지도지침에도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로 양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② 소년단은 미래의 우수한 공산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속에서도 노동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의 꼬마건설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단의 임무는 “지덕체를 갖춘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가 될 것,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돕는 꼬마건설자가 되어야 할 것”(1973년 2월 소년단 제2차열성자대회결의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년단의 지도지침은 “…… 노동을 사랑하고 공동재산 애호기풍을 진작할 것, 학급별로 소년단체 10정보 이상 조성, 토끼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할 것, 방학동안 소년선전대조직, 당정책해설의 일꾼으로 활용할 것”등을 강조한다. 즉 생활속에서 구체적인 노동과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③ 어릴 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소년단의 임무는 “김일성에 끝없이 충직한 아들 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김일성의 위대성을 주입함으로써 김일성에 대한 자연스러운 충성을 이끌어 왔다. 김일성 사망 이후에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되었다.

④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감과 투쟁심을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

다. 소년단의 임무를 보면 “계급적 원수를 끝까지 미워하며 그를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야 하는 용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가입

소년단은 현재 약 350만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소년단의 가입대상은 만 6세부터 만 13세까지의 어린이이며, 인민학교 1, 2학년(만 6~7세) 어린이는 결성이 있는 일부 어린이만 가입하고 3학년(만 8세)이 되면 전학생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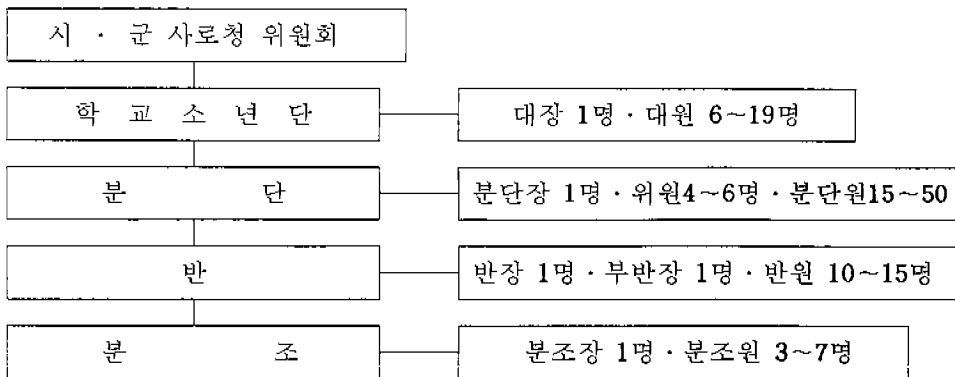
소년단의 입단식은 김일성 생일(4월 15일) 또는 소년단 창설기념일(6월 6일)을 전후하여 지역별 소년단 연합대회에서 이루어진다. 소년단 입단식은 군당위원회 간부들이 진행한다. 입단식 행사절차는 맨 먼저 김일성 찬양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 입단하는 학생들이 대열 앞에 나가 김일성의 충직한 아들딸이 되어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맹세문을 낭독한다. 그리고 당간부들이 나와서 소년단 넥타이와 뱃지를 달아준다. 소년단 넥타이는 붉은 색 바탕으로 된 삼각형태이며 이것은 모든 사람을 붉은 사상으로 물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조직 구조

소년단의 조직은 <도표-3>와 같다

<도표-3>

소년단 조직



소년단은 독자적인 기구는 없으며 노동당의 위임에 의하여 사로청중앙위원회가 지도한다. 소년단들은 지역별, 학교별로 조직 운영된다. 소년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는 당 또는 사로청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중 특별히 당사업에 열성적인 자를 선발하여 지역 사로청위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소년단 지도원으로 임명되어 담당케 하고 있다. 학교 소년단 밑에는 학년별로 분단(분단장, 위원 4-6명)이 있고, 학급별로 반(반장 1, 부반장 1, 분조원 10-15명)이 있다.

3. 활동내용

북한의 소년단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년단은 각종 회의의 활동이나 봉사대회, 회상기 낭독 모임, 서클 모임, 노력봉사와 계몽선전 활동, 문학모임, 청소, 공장견학, 운동 및 훈련, 그리고 소위 꼬마 5개년계획 또는 꼬마 6개년계획이라 불리우는 활동으로서 각종 장난감의 헌납운동이나 녹화 근위대활동, 모범위생 근위대활동, 학교별 ‘소년산림’ 조성사업, 토끼 사육, 방학기간 중의 소년선전대 조직, ‘당정책’ 해설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김영숙, 1984 : 45-46).

한편 이와 같은 소년단의 임무·역할 수행을 위해 각 도단위로 ‘소년단 야영소’를 설치하고 있다. 이들 단체·집단활동들은 정치사상교화의 목적과 함께 신체단련과 심신수양의 목적도 지니고 있다. 소년단의 활동을 유형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치자에 대한 충성활동

소년단은 수시로 개최되는 각종 집회를 통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 도 단위에서 ‘소년단야영소’를 설치하고 모범 소년단원을 대상으로 하절기(6월-9월, 10일간)를 이용, ‘김일성의 어린시절학습’을 비롯한 해양훈련, 등산, 행군 등을 실시하고 김일성에 대한 충성교육을 강화해 왔다.

이미 1977년 6월 김일성의 혁명사적지로 지정된 포평을 비롯, 장자산, 만봉호 등지에 연간 연인원 1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대규모 소년단야영소를 만들어 사로청, 소년단 조직이 주축이 되어 김일성 우상화 학습의 일환

으로 매년 ‘배움의 천리길’을 실시해 왔다. ‘배움의 천리길’은 양강도 후창군 포평에서 평양의 만경대에 이르는 길을 칭하는 말로서, 김일성이 조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하여 1923년 3월 26일 만주의 팔도구를 출발하여 이 길을 도보로 행군했다고 하는 김일성 유년시절 혁명역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외에도 ‘백두산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백두산 스키답사 행군’ 등이 있다. 또한 ‘만경대고향집찾기’라는 행사도 있는데 김일성의 생일(4. 15)에 즈음해 1995년 4월 13일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2천여명의 청소년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일성의 생가 참관행사인 「만경대고향집 찾기」 행사를 가졌다(평양방송, 1995. 4. 14 보도 ; 내외통신 9453호, 1995. 4. 14 2편).

김일성 생일이나 소년단창립일을 기해 축하행사의 일환으로 ‘소년단연합대회’가 개최해 왔는데, 1975년 이후 김정일의 생일을 계기로 연합대회를 앞당겨 개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대를 이은 혁명과업 완수’를 강조하는 등 김정일 후계체제에 따른 준비작업을 진행해 오기도 하였다. 1975년 당시부터는 소년단의 역할을 한층 높이기 위해 소년단원들에게 ‘김일성 소년영예상’을 대량 수여함으로써 김일성사상에 대한 절대성을 다짐케 하고, 맹목적인 충성심을 주입시켜 김일성사상 일색화운동과 사회주의 건설사업에서 선봉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동해 왔다.

한편 소년단은 학교에서 과외활동으로 ‘김일성혁명사상연구실 운영 (각급학교 단위로 설치, 방과후 조편성에 의해 이용)’, ‘김일성혁명활동 연구모임(담임교사 주관으로 김일성혁명활동 토의, 월 2회)’, ‘김일성혁명활동 연구소조(김일성 혁명활동 토의선전, 매일 1회)’, ‘소년선전예술대 경연(김일성을 소재로 시, 노래, 이야기 등 경연모임)’, ‘1만페이지 책읽기운동(김일성노작 및 교시 1만페이지 읽기)’ 등의 활동들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은 1995년 2월 15일 평양에서 「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를 개최하고 소년단원들에게 김정일을 보위하는 ‘3백만의 총폭탄 6백만개의 수류탄’이 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북한 각 도 소년단 대표들과 평양시 소년단들을 총합하여 1만2천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사로청위원장 최용해는 보고를 통해 “오늘 소년단 앞에는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영웅스러운 과업이 나르고 있다”면서 이를 촉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최용해는 소년단원들은 김정일에게 순결한 충성심을 지닌 ‘당의 참된 소년근위대’가 되어

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그만을 믿고 끝까지 따르며 자나깨나 장군님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먼저 생각하는 충성동, 효자동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년단원들은 김정일의 청소년 시절을 적극 따라 배워 실천에 옮기며 김정일의 군대가 될 희망과 포부를 안고 국방체육과 대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총리 강성산, 부주석 이종옥, 당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과 군차수 백학림, 김광진 등 고위간부가 참석하여 청소년정책과 소년단에 대한 북한당국의 기대를 짐작하게 한다(내외통신종합판(55), 보9367호, 95. 2. 16 : 79). 여기서 총폭탄과 수류탄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폭탄과 수류탄과 같이 조직의 목적을 위해 자폭할 결심을 강화시키는 교육적인 효과도 노리는 것이다.

한편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전국 학생소년 이야기모임」이라는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1995년 4월 13일 사로청중앙위원장 최용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열렸다(내외통신 9453호, 1995. 4. 14 2편). 이날 대회에서는 소년단 입단식을 갖고 당·정간부들이 새로 입단한 소년단원들에게 「붉은 넥타이」를 매어 주었다. 북한청소년들의 통치자에 대한 충성활동은 통치자에 국한되지 않고 당과 군에 대한 충성활동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례로 북한학생들은 해마다 군에 대해 ‘청년전위호’화 ‘소년호’라는 대포를 마련하여 전달하는 행사를 벌여 왔다.

2)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 활동

북한은 청소년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실제로 노동을 경험하게 한다. 1959년 3월 2일 ‘내각결정 18호’에 의해 의무노동제를 법제화하였다. 노동은 주로 노력동원으로 이루어지는 데 1950년부터 시작된 ‘좋은 일 하기 운동’으로 불리우는 소년단의 노력동원은 위생근위대 활동, 녹화근위대 활동, 소년단립과 사로청립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건설 지원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들이 주동이 되어 그간 실시해 온 구체적인 주요 활동 내용은 크게 꼬마계획과 외화벌이 두 가지가 있다.

(1) 꼬마계획 및 외화벌이

꼬마계획은 북한의 경제계획년도에 맞추어 소년단원들에게 할당된 노력동원 계획이다. 공장이나 기업소 또는 협동농장에 인민경제지표가 하달되면 이와 때를 같이 해서 파고철, 파유리, 파종이, 송이버섯 등을 수집하도록 한다. 꼬마계획의 할당량은 1인당 연간 파고철 20kg, 파유리 9kg, 파종이 5kg, 송이버섯 10kg, 찌리상자 2개 등으로 규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배급 쌀을 공제하든지 또는 일일총화에서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 훔치는 등 많은 부작용도 낳고 있다. 농번기에는 소년단을 중심으로 농촌지원사업(년 2-4회)으로 3-5개월에 걸쳐 모심기, 제초작업, 관개작업, 추수 등에 동원된다.

외화벌이는 대표적인 것이 토끼를 길러 연간 4마리를 바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이러한 일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사로청 기관지인 로동청년은 소년단이 국가에 헌납한 토끼고기와 모피의 양을 정기적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귀순자 이창수의 꼬마계획과 농촌지원사업에 관한 증언을 통해 그 실상을 엿볼 수 있다.

“동네마다 학습반이 다 있는데 오늘은 누구네 집가서 공부하고 내일은 누구네 집가서 공부하고 한바퀴 돌면서 공부한다. 숙제를 같이하고, 그 다음에 꼬마계획 하러 가는데 길바닥 가다가도 파철 쪼그만거 철조각 있으면 들고가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신의주 타이어공장에 고무 가지러 한번 갔었는데 타이어 만들고 찌꺼기 내다 버리는거 주워서 수매를 했다. 수매하면 수매증을 주는데 수매증과 돈을 학교에 바쳐야 한다. 모내기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세수하고 이빨닦고, 7시에 식사하고 7시 반에 나가서 8시부터는 모내기를 시작한다. 모내기 시작하고 일을 하는데 학생도 무조건 도급제이다. 모판에 모종 묶은 것 얼마만큼 옮기고, 또는 강냉이 영양단지 얼마만큼 옮기면 휴식하는 식으로 일량이 정해져 있다. 또 오늘은 얼마큼 해야한다라는 하루의 일량도 정해져 있다. 애들은 모내기 나가서 보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 재미라는 것은 자원물자 나올 때이다. 자원물자라고 모내기 나간 아이들이 배고파하니까 부모들이 빵도 만들어서 보내고 그러는데 실지 잘사는 사람 같으면 쌀가지고 떡도 많이 해서 보내겠지만 식량사정이 뻥하니까 두세명을 선발해 가지고 배낭같은 것을 메고 저녁에 집집마다 다 돌면서 음식을 얻어온다. 쌀이 여유 좀 있는 집은 떡도 해주고, 쌀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집에서

전을 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고, 출다고 아버지의 동복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속내의 보내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있다”

(2) 기타활동

그 외에도 소년호 열차, 기중기, 자동차, 비행기, 탱크, 트랙터 등의 헌납운동, 녹화근위대, 모범위생근위대 활동, 각 학교마다 10정보 이상의 소년원림 조성, 산나물 수집 등의 노동에 동원된다. 또한 소년선전대를 조직 당정책 선전이나 선거운동을 하기도 한다.

헌납운동의 한 사례로 북한의 청소년학생들이 군창건 63주 (1995. 4. 25)를 맞아 42문의 대포를 마련해 4월 21일 군부대에 전달했다(중앙방송, 1995. 4. 22). 북한의 중앙방송에 따르면 북한 각지의 청소년 학생들은 그 동안 「군대를 돕기 위한 좋은 일하기 운동」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모은 돈으로 42문의 「청년전위」호와 「소년」호 대포를 마련, 군 창건 63주에 즈음해 군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남포경기장에서는 당중앙위원회비서 김중인과 남포시당책 겸 인민위원장 박승일, 사로청위원장 최용해 등 관계 간부들과 군장성, 청소년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전위」호와 「소년」호를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됐다. 북한은 청소년들에게 「애병정신」을 함양하고 군-민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돕기 위한 좋은 일하기 운동」 명목으로 집짐승 기르기, 파철수집, 산나물 캐기, 산열매 따기 등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은 돈으로 해마다 군창건일을 맞아 탱크, 대포, 군함 등을 증정하는 것이다(조선일보, 1995. 4. 22). 한편 「소년단 규찰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학생은 물론 어른도 통제할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정화운동으로 이러한 운동에 동원되기도 한다.

3) 체력훈련활동

북한은 체육을 ‘신체를 다방면으로 발달시키며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굳센 의지, 규율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배양함으로써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체육에 대한 북한의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은 체육이 개인적 취미활동이기 보다는 정치성과 혁명성에 결부된 국가

적 목표 추구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학준외, 1987 : 183-4). 이처럼 북한이 체육을 중시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집단주의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할 것이다. 체육활동을 통해 강인한 체력을 함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한 공산주의청년으로 키운다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북한의 체육활동강화에는 북한 나름대로의 큰 고민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그것은 북한청소년의 체격과 체력이 영양부족으로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외부의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가 어려운점도 있다. 북한당국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0년대 들어와서는 김정일의 지시로 각 학교에 철봉을 설치하고 여기에 매달려서 키를 키우는 운동을 벌여 왔다. 인민학교 학생들은 매일 조퇴시간부터 ‘배움의 천리길’ 달리기를 한다. 학급별로 줄을 서서 하루 5리씩 뛰는데, 달릴 때는 두 패로 나누어 앞에 열이 ‘배움의 길’ 하면 뒤에 열이 ‘천리길’ 하면서 달리기를 한다. 그 다음 인민보건체조를 하고 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김학준외, 1987 : 58).

‘보천보 달리기’라는 것을 실시하기도 한다. 보천보달리기란 매일 방과후 1킬로 구간을 설정하여 총 100킬로에서 200킬로를 달리는 훈련이다. 각종 기념일에는 집단정신 구현을 위하여 수백에서 수만명을 동원하여 대규모 집단체조를 실시한다. 한편 준군사훈련인 국방체육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줄타오르기, 수영도하훈련, 산야횡단, 강행군, 남자는 봉체조, 여자는 예술체조를 매일 30분 정도 실시한다. 그외에도 각종 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체력단련 및 집단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4) 문화예술활동

북한의 문예정책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공산주의 인간학에 입각한 창작활동과 문예작품에서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원칙을 적용하고 예술의 대중화와 작품의 계획생산 등을 내세워 개인의 예술활동을 당이 통제하고 있다(정신문화연구원, 1987 : 335). 따라서 대부분의 문화예술활동은 개인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은 그 내용에 있어 더욱 통제를 많이 받고 있다. 각종 공연, 영화상영, 전시회 등은 노동당이나 정부당국이 일

방적인 연간행사계획에 의해 집행하고 있으며, 소년단도 문화예술활동의 공연자로 동원되거나 참관하게 된다. 영화감상회는 월 2회 이상, 미술전람회, 예술경연대회, 체육경기대회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다(김학준외, 1987 : 88).

3장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사로청)

1. 설립과 가입

1) 설립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은 1946년 1월 17일 김일성의 직접 지도하에 맹원수 152,500여명, 대표자 47명으로 강령 및 규약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청년동맹 북조선위원회의 결성에 대하여”라는 김일성 연설과 함께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발족되었다. 1946년 6월 24일에는 세계민주청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그뒤 1951년 1월 남조선민총을 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통합결성하고, 1964년 5월 12일 5차대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송광성, 1993 : 142-6).

조선민주청년동맹을 사로청으로 개편한 이유를 그들은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결과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민주청년동맹의 구성에도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에 계급적으로 상이한 각계 각층의 청년들을 망라하고 있던 민주청년동맹이 오늘날은 노동청년을 비롯하여 근로농민청년과 근로인텔리청년, 근로인민 출신의 학생으로 구성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서동익, 1988 : 72).

2) 가입

사로청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층은 14-30세로 되어 있으며, 고등중학교와 대학에 다니는 학생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30세가 될 때까지 맹원으로서 활동한다. 맹원은 누구나 규정되어 있는 맹비(盟費)를 내야 한다. 노동당에 입당할 때에는 사로청에서 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로청에 가맹하기 위해서는 ‘청원서’와 ‘소년단위원회 및 동맹원 1명의 보증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가맹청원서에 대한 심사는 초급 단체총회에서 실시하며 가맹에 대한 최종 결정은 시·군동맹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확정된다. 가맹이 승인된 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을 해야 한다(북한연구소, 1983 : 1318).

“나는 조선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 맹원으로서 항상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에게 무한히 충직하며 혁명 선배들처럼 일하며 배우며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을 조직과 동지들 앞에서 엄숙히 맹세한다”

2. 조직의 목적과 임무

1) 조직의 목적

사로청은 “항일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직된 청년들의 공산주의적 대중적 혁명조직으로서 조선로동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며 우리 혁명의 직접적인 계승자”로 조직되었다. 사로청의 조직목적은 “로동당의 영도 밑에 북조선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83 : 562) .

이러한 목적에 따라 사로청은 “청년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당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하고 당 및 국가기관의 간부후보를 양성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청년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에 김일성은 “우리 조선 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언제나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이것은 우리나라 청년조직들과 모든 청년들의 활동에서 기본으로 되어야 합니다(조선노동당, 1968 : 103)”라고 하여 당에 대한 충성을 조직의 기본 원리로 강조한 바 있다.

2) 과업

이러한 목적과 과업 등을 기초로 하여 사로청은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다(통일원, 1979 : 299-301). 「사로청」은 청년들의 대중적 사회단체이다. 「사로청」은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선봉적 민주청년들을 자기대열에 단결시킨다. 사로청의 맹원은 자기 조국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및 문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을 자기의 최대 임무로 인정한다. 사로청은 그 실천활동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과업을 수행한다.

① 본 동맹은 맹원과 전체 청년들에게 정치적 자각과 전면적인 문화수준을 제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그들이 조국 민주건설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과 자기인민에 대한 애호사상을 배양한다. 본 동맹은 우리 조국의 민족적 재생을 저해하는 반동적 일제 및 봉건적 사상 잔재를 청년들의 의식에서 근절시키기 위하여 투쟁한다. 본 동맹은 청년들에게 미치는 반동적·반인민적 제국주의사상의 부패한 영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근로자들의 선진적이며 과학적인 진보적 민주주의사상으로 청년들을 교양한다.

② 본 동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정부와 그 정강 주위에 전체 민주청년을 결속시키며 청년들의 투지를 민주개혁의 전 조선적 공고·광대와 부강한 통일적 민주주의 독립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한 투쟁으로 인도한다.

③ 본 동맹은 북조선 제 정당·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의 민족통일전선에 속하며 민주개혁의 전 조선적 실시와 그 광대·공고화를 기하는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모든 시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한다.

④ 본 동맹은 우리 국가의 기본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모든 원칙을 철저히 실시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⑤ 본 동맹은 민족 경제를 부흥발전시키며 그것을 조선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의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

⑥ 본 동맹은 청년들에게 우리 조국의 복리와 번영을 위한 노력에 대한 애착심을 배양한다. 본 동맹은 청년들을 생산증산전쟁에 적극 강화시키며 인민경제의 각 분야에서의 생산능률의 정상적인 제고를 조성하며 선진기술과 작업의 선진방법을 습득함에 청년들을 방조한다.

⑦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의 부흥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촉진시키며 또 청년들의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는 대중적 체육문화를 숭상하여 발전시킨다.

⑧ 본 동맹은 남조선 청년들도 북조선 청년들과 같이 동일한 자유와 권리를 정치, 경제 및 문화생활 부분에서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옹호는 애국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본 동맹은 인민군대의 복무를 고상한 영예와 의무로 인정하면서 인민군대를 열렬히 사랑하는 정신으로 청년들을 교양한다. 본 동맹은 청년들에게 군사지식과 군사기술을 소유하도록 방조한다.

⑩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은 세계민주청년동맹의 정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국제주의 정신으로 청년들을 교양하며 조선청년들과 세계민주청년들과 전세계민주청년들의 선봉대인 소비에트 청년들과의 단결의 공고를 전력을 다하여 협동한다. 본 동맹은 인민의 공고하고 장구한 민주주의적 평화를 위하여 민주와 진보를 위하여 반동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에서 세계의 자유를 애호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원조하도록 청년들을 조직한다.

이처럼 사로청의 행동강령은 첫째, 정치적으로 봉건적 사고와 자본주의 제국주의 사상을 척결하고 남조선해방을 위해 연대투쟁하고 정부와 헌법수호 및 통일전선을 지지하고 둘째, 경제적으로 민족경제부흥과 인민의 번영과 복리를 추구하며 셋째, 체력과 문화창달에 앞장서며 넷째, 군사적 무장과 국제교류에 앞장서는 등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국제사회 참여까지를 언급하였다.

3) 임무

이러한 행동강령 아래 사로청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연구소, 1983 : 1317).

- ①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 교양
- ② 공산주의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정치학습 조직
- ③ 학생의무노동 조직 및 감독
- ④ 기술혁명으로 생산능률 제고
- ⑤ 체력증진
- ⑥ 공공재산 수호정신의 고취

- ⑦ 반제·반일 투쟁의 선전선동
- ⑧ 김일성 혁명전통 교양사업 지도
- ⑨ 계급교양사업 지도
- ⑩ 학생들의 교외활동 지도
- ⑪ 소년단에 대한 지도

이처럼 사로청은 북한의 당면시책이나 김일성·김정일 지시 등의 관철을 위한 대회, 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맹원들의 분발과 충성심 제고를 추구한다. 또 “청년을 김일성에 충성하고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 나아갈 주체위업의 계승자”(노동신문, 1981. 10. 22)로 키우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근본적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빛내기 위해 몸바쳐 싸워 나가도록 교양한다”(노동신문, 1989. 8. 24)라고 사로청의 임무와 목적을 밝히고 있다. 사로청은 북한노동당의 지도하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며 당의 후비대로서 군대, 공장, 기업소 및 농어촌에서 정치사상을 교양하며 각종 노력동원의 중추적 역할을 맡기 위해 조직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기능과 사업

1) 기능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사로청의 기능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서동익, 1988 : 73).

- 첫째, 북한의 사로청은 소련의 공산주의 청년동맹이나 중국의 공산청년단과 같이 노동당의 지도 아래 일체의 활동을 하며,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여 인민대중에게 침투시키는 선봉적 역할을 하며, 당의 후비대로서 군대·공장·기업소, 농어촌에서 노동당의 전위역할을 한다.
- 둘째, 노동당의 대열을 보충하여 주는 예비당원을 양성한다.
- 셋째, 전 동맹원을 노동당에 입단할 수 있도록 교양하며 남한의 적화통일을 기도하기 위한 인적 차원의 예비대 역할을 한다.

넷째, 경제계획의 조기수행을 위해 노동력 동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째, 김일성 독재체제의 견고화를 통한 족벌정치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 사업

사로청은 조직의 목적에 따라 첫째, 정치사상교양 둘째,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노력동원 셋째, 조국보위사업과 통일을 위한 투쟁 넷째, 소년단사업 책임 지도 다섯째, 1946년 6월 24일 세계민주청년연맹에 가입한 이후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국제청년운동의 전개 여섯째, 사로청대학·사로청학교(도·시·군)를 통한 간부양성 등의 사업을 한다.

그 밖에 신문으로 ‘로동청년’, ‘새날’, ‘소년신문’, 잡지로 ‘청년생활’, ‘새세대’, ‘개희망’을 비롯한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문화활동 기지로서 평양학생소년궁전과 청년극장, 청년공원야외극장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명승지들에 여러 개의 중앙소년단야영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도·직할시의 사로청단체들에서도 청년회관,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등을 운영한다(송광성, 1993 : 147).

4. 조직 구조

1) 조직

사로청의 조직은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앙부서는 조직부·선건부·국제부·학생소년부·노동청년부·체육부·대학생청년부·재정경리부·노동청년신문사·사로청출판사·중앙학교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지방조직은 도·시·군 기층조직(초급단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군 내에도 사로청조직이 있다.

사로청의 조직체계는 완전히 중앙집권체제로서 세포말단조직에 이르기까지 당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다. 사로청조직원들의 역할에 대해 로동청년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대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 지도를 사로청에 전적으로 맡겨주신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높은 신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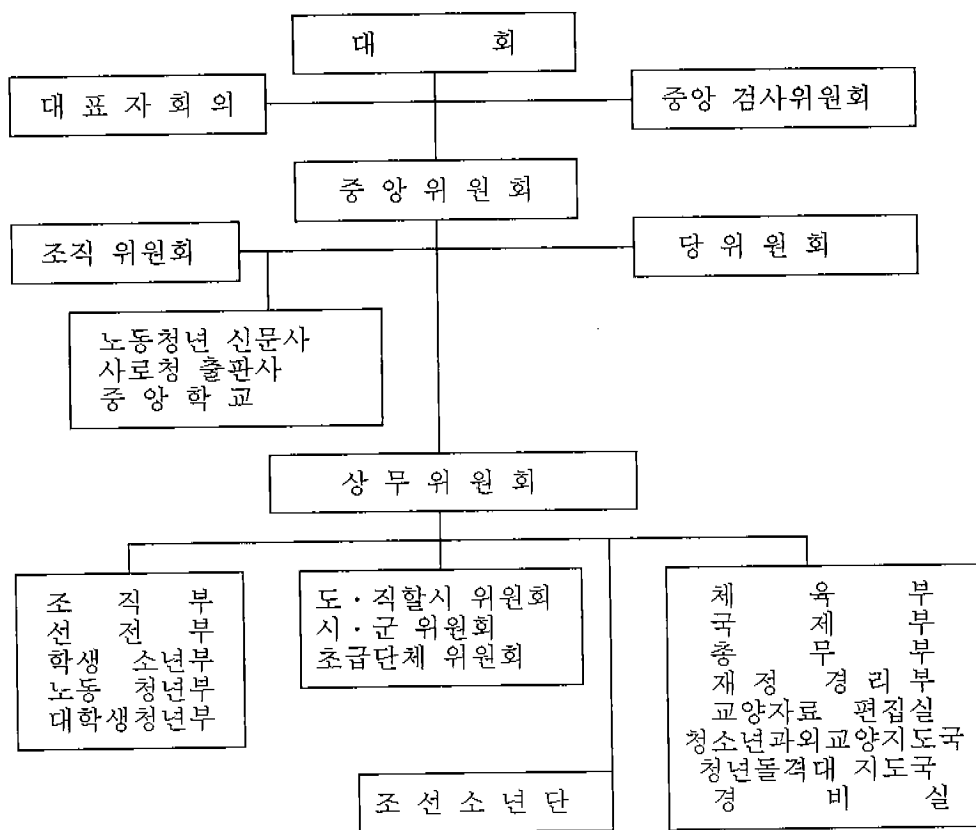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지도를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로동청년, 1995. 5. 13). 사로청의 기구는 <도표-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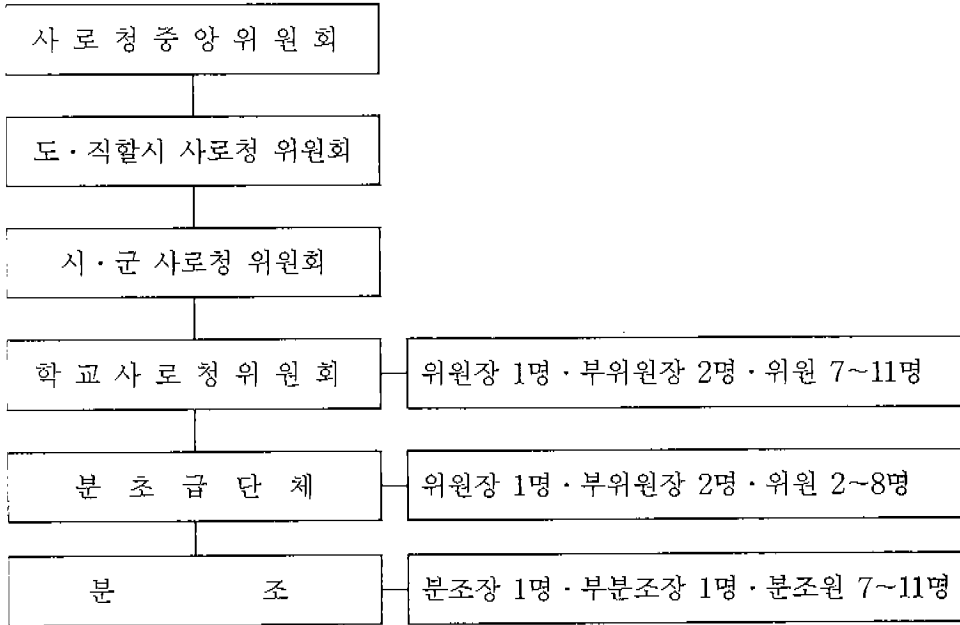
2) 학교 사로청

북한의 사로청은 학교행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내 사로청 조직의 구조를 보면 <도표-5>과 같이 사로청중앙위를 중심으로 확고한 수직적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사로청 활동이 이루어지는 각 급학교에 대한 지도사업은 해당학교 사로청위원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구역 사로청위원회가 사로청지도담당교원을 임명, 배치하기도 한다(송광성, 1993 : 149).

<도표-4>

사로청 조직 체계





각급 학교의 사로청원에 대한 지도사업은 해당 학교 사로청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로청 지도사업 담당교원이 시·군(구역) 사로청 위원회로부터 임명·배치되기도 한다. 학교내 사로청지도사업 중 중요시 되는 것은 소년단의 모범분단운동과 천리마학습, 또는 천리마학교 칭호 쟁취를 위한 경쟁이다. 이와 같은 경쟁운동은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 학급 또는 전 학교의 우등·최우등 운동이 강제화되고 있다(서동익, 1988 : 75).

한편 사로청은 당의 정책을 부여 받아 이를 학교정책에 연계시켜 지시를 내리기도 한다. 일례로 1995년 3월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청년학생들을 과학기술인재로 준비시키는 것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사로청조직들의 기본임무이며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각급 사로청 조직들에 대해 학생들의 과학기술부문 학습열의와 학과 실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내외통신 종합판(55), 보 9415호, 1995. 3. 20 : 241).

5. 활동 내용

북한의 사로청은 당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전위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보았다. 북한은 최근 경제건설을 당의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사로청의 적극적인 경제적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례로 북한은 청년들을 경제건설에 적극 동원하기 위해 1995년 10월 당창건 50주까지를 기한으로 '노력경쟁'의 일환으로 사로청조직 실적경쟁을 전개하였다. 1995년 2월 1일 부터 10월 10일까지를 4단계로 나누어 각 부문별·단위별로 경쟁을 진행하였다. 경쟁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정일에 대한 청년들의 충성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 ② 각종 생산·건설과업 관철
- ③ 작업시간 엄수 및 생산능률 제고
- ④ 어렵고 힘든 부문에 대한 자원 근무
- ⑤ 각종 절약운동 및 유희자재 수집운동
- ⑥ 기술혁신운동의 전개

이 요강은 특히 이 같은 노력경쟁운동의 지도를 위해 각급 사로청조직들이 사로청중앙위가 내려보낸 '조직요강'을 근거로 목표를 세우고 그를 철저히 집행함은 물론 모범사례를 적극 소개 선전함으로써 경쟁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주력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내외통신종합판(55), 보 9413호, 1995. 3. 18 : 196). 사로청의 활동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치자와 당에 대한 충성활동

사로청은 각종 대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김일성에 대한 충성교육을 한다. 사로청의 주요 집회와 행사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통하여 끊임없는 충성과 사상성 함양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예로, 1989년 사로청은 김정일의 생일에 맞추어 정일봉까지 책을 읽으면서 행진하여 정치, 교육, 기술서적 1만6천 페이지를 해마다 읽는다는 목표아래 수령과 지도자동지의 뛰어난 저술을 깊이 연구하며 정리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여기서 16이란 숫자는 김정일의 생일과 관련시킨 것이다.

이러한 김일성의 유일사상 고취와 교육은, 첫째로 김일성생일 경축행사의

일환으로 축제나 충성결의 형식의 모임 등을 통하는 것과, 둘째로 사로청이나 소년단의 기념집회에서 편지나 교시 등의 하달을 통하는 방법, 셋째로 김일성 유적지를 답사하는 방법, 넷째로 각종 포상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이러한 충성교육이 극치를 이룬 것은 김일성 사망 이후 개최된 1995년의 사로청 전원회의였다. 북한은 1995년 3월 사로청 제8기 6차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청년들에 대한 사상강화 및 ‘군사사상’ 주입을 촉구하였다. 사로청중앙위위원 및 후보위원과 각급 공장·학교의 사로청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당창건 50주와 해방50주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과제와 사로청조직들에서 학생·청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다(평양방송 95. 2. 24; 내외통신 종합판(55) 보 9423호, 1995. 3. 24 : 258).

회의에서 최용해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사로청 조직을 “김정일의 청년동맹으로 강한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을 가진 부대로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모든 청소년들은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8백만의 총폭탄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최용해는 청년들에게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적들이 덤벼들 경우 산악같이 일어나 침략자들을 단매에 쓸어 버리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 호전의식과 군사상을 주입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회의에서 학생·청년들을 ‘민족간부·혁명의 역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과업과 방안을 제기했다(내외통신 종합판(55) 보 9423호, 1995. 3. 24 : 258).

한편 사로청 주관 아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전시가요 보급모임과 해설모임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북한이 청소년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전시가요로는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 「정찰병의 노래」, 「샘물터에서」 등이 대표격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을 전사화하기 위한 사상교육을 강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전시가요’를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북한이 청소년들에게 전시가요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대남투쟁 의식을 고취시켜 과거 ‘부모들이 전화의 나날에 발휘하였던 그 투지와 그 기백으로 싸워 나가도록 한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로동신문 1995. 10 ; 내외통신종합판(55), 942호, 1995. 3. 2, 262 인용).

북한은 이러한 전시 가요를 청소년들에게 보급함으로써 대남투쟁의식을 고취시키는 물론 체제유지와 통치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시키려는 목적을 달

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로청은 당의 소년단 활동에서 살펴 보았던 것과 같이 당과 군에 대한 지원활동도 동시에 벌이고 있다. 북한의 청소년들이 군 창건 63주(1995. 4. 25)를 맞아 42문의 대포를 마련해 21일 군부대에 전달했다(중앙방송, 1995. 4. 22). 북한의 중앙방송에 의하면 북한 각지의 청소년·학생들은 그동안 「군대를 돕기 위한 좋은 일하기 운동」을 벌였으며 이를 통해 모은 돈으로 42문의 「청년전위」호 대포를 마련, 군 창건 63주에 즈음해 군부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남포 경기장에서는 당중앙위 비서 김중인과 남포시당책 겸 인민위원장 박승일, 사로청위원장 최용해 등 관계간부들과 군장령, 청소년·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전위」호를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됐다. 북한은 청소년·학생들에게 「애병정신」을 함양하고 군-민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돕기 위한 좋은 일하기 운동」 명목으로 집짐승 기르기, 파철수집, 산나물 캐기, 산열매 따기 등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은 돈으로 해마다 군 창건일을 맞아 탱크, 대포, 군함 등을 증정하고 있다(내외통신 9465호, 1995. 4. 22 1편).

2) 사상·도덕교육 활동

사로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보다도 북한청소년에 대한 사상·도덕교육이라고 할 것이다. 한 예로 북한은 노동당 창당50주(1995. 10. 10)와 해방 50주(1995. 8. 15)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자는 구호 아래 각급 사로청조직이 앞장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사로청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청년은 사설에서 당 창건 50주와 해방 50주를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는 것은 김정일의 구상이자 의지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과업을 실현하는데 청년들이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각급 사로청조직들이 조직사업과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일 것을 요구했다.

로동청년에 이어 각급 사로청조직과 간부들은 김일성·김정일의 「영도업적」을 전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의 노작과 문헌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깊이있게 진행할 것을 역설했다. 로동청년은 또 각급

사로청조직들 앞에 나선 임무는 『8백만 청소년들을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총폭탄으로 준비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사로청 안에 김정일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내외통신 9511호, 1995. 5. 23 2편).

북한은 최근 정세변화를 내세워 청소년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할 것을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로동청년 사설에서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북한의 사회주의를 압살하기 위해 「반복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그 어느때 보다 더 굳게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로동청년은 이어 혁명을 하자면 많은 난관과 시련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부닥치는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혁명을 전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 위협의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동청년은 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은 곧 사회주의 사상과 이념에 대한 신념이라고 주장하고 전체 청년들이 김일성·김정일의 「노작」을 더욱 열심히 학습함으로써 사상무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내외통신 9473호, 1995. 4. 27 2편). 이는 자본주의 문화가 북한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자 북한당국은 북한체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확산될 것을 우려한 데서 나온 사상강화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청소년에 대한 사상강화는 주요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부분적인 개방화이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의 평양 방문이 빈번해짐에 따라 평양시 청년들에 대한 「공산주의의식·도덕교육」을 일층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평양청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가 모두 나라의 존엄, 당의 권위와 관련된다』는 인식 하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도청년」으로서의 긍지와 자각을 일깨우고 이에 결맞는 품행을 유지하도록 기관·기업소단위로 교육과 실천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로동청년에 소개된 평양 어린이편직공장 사로청위원회의 경우 『공장안의 모든 청년들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 사는 청년다운 고상한 공산주의 도덕품모를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수도청년들의 영예와 보람’, ‘공산주의 도덕이란’, ‘현시대 청년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도덕품성’ 등에 대한 해설·선전사업을 적극 전개하였다. 평양에

서는 또한 교통질서 지키기, 아침 청소, 인사하기 등 공중도덕과 예절을 몸에 익히기 위한 실천사업도 전개하면서 이 같은 「공산주의 도덕교육」에서 모범을 보인 단위들을 「본보기 단위」로 선정, 이의 확산을 도모하기도 하였다(내외통신 9456호, 1995. 4. 17 2편).

3)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 활동

북한은 1959년 3월 2일 ‘학생사회의무노동제를 실시한데 대한 내각결정 제 18호’를 채택한 이후 고등중학교 이상 학생에 대한 강제노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등중학교는 연간 4-8주, 고등전문학교는 연간 10주, 대학은 12-14주간 의무노동에 동원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법정 의무노동시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동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73년 9월부터 6개년 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해 고등중학 5년 이상은 정상수업을 철폐하고 공장, 광산, 건설현장 및 농어촌에 들어가 ‘현장학습’을 해가면서 노력봉사에 동원된 바 있다.

학교내 사로청 지도사업 중 중요시되는 것은 소년단의 모범분단운동과 천리마학급 또는 천리마학교 칭호쟁취를 위한 경쟁운동이다. 이와 같은 경쟁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 학급, 전 학생 또는 전 학교의 우등 및 최우등화가 강조되며, 노력동원에서도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근로자들 보다 우수한 성과를 거두도록 강요되고 있다. 귀순자 한성호의 증언을 통해 사로청의 노력경쟁 동원이 북한청소년에게 어떠한 심적 부담을 주는 지를 알아 볼 수 있다(귀순자 한성호의 증언; 송광성, 1993 : 150 인용).

“사로청에서 우리가 이번 10월달에 무엇 무엇을 하겠다 하고 결의를 하면, 10월초에 한 학년에 10개 학급이면 분단장이 10명 있는데 10명을 모아 놓고, 그걸 주입시킨다. 10월달에 우리 김일성사상공부 얼마, 어느 정도 몇 시간 해야되고, 파지를 몇 백 kg, 화병은 몇 개, 병은 몇 개 모아야 한다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학급마다 파지 몇 kg, 병 몇 개 파동·파철을 얼마 모아 오라고 할당을 한다. 분단장이 가서 선생님과 전체 학급을 모아 놓고 우리 이 번 달에 이거이거를 해야한다고 지시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 주 월요일에는 화병 놓기를 해야겠다 하면 아침반이 공부 끝난 다음에 점심먹고 모여가지고 선생님이 집에 안보내고 오늘은 네 사람이 화분화병을 2개씩 가져오라고 하고 안 가져오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 그 때부터 가방은 학교에 맡겨둔다.

가방들을 모아놓고 한 아이가 지키고 나머지는 다 집이 부근이니까 애들이 집으로 뛰어간다. 집에 없으면, 아는 사람 집에 가든지, 친척집에 가서 가지고 오든지, 그래도 없으면 훔치기도 한다”

4) 국방체육 및 문화예술 활동

(1) 국방체육

사로청의 강령에 의하면 사로청은 청년들의 체력과 정신을 단련하는 대중적 체육문화를 숭선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주 임무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단과 마찬가지로 여러 체육행사를 통해서 집단적인 체력훈련을 하고 있다. 특별한 노력동원 지시가 없을 때는 학교가 파한 뒤 달리기, 체조, 군중 무용 등 주로 체육경기로 과외활동을 한다.

북한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체육활동은 군사훈련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치원 어린이에게는 전쟁놀이, 인민학교 아동들에게는 제식훈련과 포복, 체육경기나 체육활동에 슈류탄 던지기 등 어린 학생 때부터 군사훈련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고등중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은 1970년 9월 12일 창설된 ‘붉은청년근위대’에 가입하여 2년간 총 576시간의 군사훈련을 받게 되었다. 붉은 청년근위대의 입대절차는 입대연령이 된 학생들을 신체검사한 다음 합격자를 군동원부장에게 전달하면 다시 심사하여 지시를 내린다. 붉은 청년근위대의 임무는 김일성친위대, 군초급간부 보충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반혁명요소 적발, 전체 사회단체들의 사상교양, 전투력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소년단과 사로청의 북한청소년들은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국방체육이라는 체육활동을 한다. 군행정위원회의 체육구락부 주관 하에 각 학교별 체육교사가 주 2-3시간 체육시간과 과외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데 ‘장애물 극복, 외나무다리 건너기, 담넘기, 철조망 통과’, 슈류탄 던지기, ‘허수아비 찌르기’, ‘강행군’ 등이 있다(송광성, 1993 : 153). 1995년 5월 13일 로동청년은 「국방체육을 힘있게 벌려 몸과 마음을 튼튼히」라는 제목 하에 김정일의 글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김정일은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국방체육을 장려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국방체육을 장려하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조국보위 정신을 가지게 되고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될 수 있습니다”(로동청년, 1995.

5. 13)라고 국방체육의 목적과 중요성을 애국정신과 연결시켜 강조하였다.

(2) 문화예술 활동

고등중학교에서는 학업 외에 분야별 학습활동을 하는데 학과별 연구서클, 예능서클, 독후감 감상발표회, 영화감상회, 혁명전적지 답사, 창작발표회, 시낭송회, 미술전람회, 담화회, 전투영웅들과의 대화 등인데 학생들은 이런 서클에 2개 정도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청소년들 나름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학교마다 편차가 심하고 서클가입이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학생들의 과외활동 중에 가장 활발한 것은 ‘수령연구실’ 활동이다. 이 연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고, 정치생활에서 모범이며 학업성적도 뛰어나야 한다. 이들은 학생들 속에서 당정책 선전선동활동을 담당해야 하며 ‘우등불 모임’, ‘혁명전적지 답사’, ‘혁명 및 역사박물관 견학’, ‘모범분단’, ‘천리마학급 생취운동’ 등을 지도해야 한다.

학과 경연대회는 매년 1-2회, 강연회는 월 2회, 미술전람회와 예술경연대회 그리고 체육경기는 각각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사로청의 문화예술활동은 각종 기념일이나 대회에서 노동당이나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연간행사계획에 따라 실시된다. 즉 각종대회나 국가기념일 등에 집단공연을 하면서 조직의 단합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을 다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런 문화예술행사가 없을 때는 학교단위의 서클활동이 이루어진다(송광성, 1993 : 154-5).

북한은 문화예술활동 중 노래와 시를 소재로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사로청중앙위원회 기관지 로동청년은 청소년들을 김정일을 결사옹위하는 5백만의 총폭탄으로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소재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노래와 시로써 교양교육사업에서 실효를 높이고 있다는 함흥자동차부속품공장 초급 사로청위원회의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이의 일반화를 촉구했다. 로동청년에 따르면 함흥자동차부속품공장 초급 사로청위원회에서는 최근 청년학교와 작업현장·모임장소들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전사의 염원〉, 〈동지애의 노래〉 등과 장편 서사시 〈백두산〉 등을 내걸고 모든 청소년들이 이를 부르고 외우도록 하는 한편

그에 담겨진 사상적 내용을 깊이 심어 주기 위한 해설을 병행하고 있다. 초급 사로청위원회에서는 또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노래와 시실효모임과 시낭송모임, 노래감상, 해설모임들도 계기에 맞게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정된 노래와 시를 가지고 초급단체별로 경연을 벌이기도 한다(내외통신 9509호, 1995. 5. 22 2편).

5) 대외활동

사로청의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듯이 국제적인 사상적 교류를 중시하여 대외적인 활동도 중시하여 대외적인 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설립 초기인 1946년 6월 24일 「세계민주청년연맹」에 가입한 이후 주로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나 아프리카지역 국가 등의 청년조직과 교류를 맺고, 제국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동투쟁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남한에 대해서도 주로 군사훈련의 중지와 반정부투쟁의 고취, 학원탄압의 중지, 미제국주의에 대한 비난 등의 성명서 발표 및 집회 등을 빈번히 개최해 왔다.

북한의 사로청과 공산주의 국가들의 청소년 단체와는 꾸준한 교류가 있어 왔다. 특히 소련을 비롯한 동구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한 이후에는 북한과 쿠바·라오스·중국등의 청년단체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1995년 들어서 북한과 쿠바·라오스 등과의 청소년 교류가 더욱 두드러 진다.

북한 사로청과 쿠바 공산주의청년동맹은 1995년 5월 11일 평양청년중앙회관에서 공동집회를 갖고 상호 친선증진과 협력강화를 다짐했다(중앙방송, 1995. 5. 11). 북한을 방문중인 쿠바 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과 평양 주재 쿠바대사, 사로청위원장 최용해 등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선과 쿠바 인민들과 청년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양국의 청년조직인 두 단체가 관계발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사로청위원장 최용해는 연설에서 『세계 제국주의 반동세력의 악랄한 반쿠바책동을 준열히 규탄한다』면서 북-쿠바 관계가 김일성과 카스트로 사이에 이룩된 「반제국주의 전우관계」임을 강조했다. 한편 쿠바 공청단장인 제 1비서 로페스는 대표단에 대한 북한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쿠바와 조선은

비록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친선과 단결, 그리고 협조의 연계는 더욱 더 강화·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연설에서 쿠바는 미국을 「제국주의자」로 규탄하면서 『미제국주의의 책동을 분쇄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반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내외통신 9495호, 1995. 5. 12 2편).

쿠바와의 교류가 있는 직후 5월 20일에는 라오스의 「인민혁명청년동맹」과의 교류를 가지기도 하였다. “라오스의 「인민혁명청년동맹」 대표단(단장 라오스 인민혁명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웨통 루앙리라이)이 1995년 5월 2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북한의 중앙방송이 5월 20일 보도했다. 북한과 라오스는 74년 6월 수교한 후 품비한대통령(92. 4), 사만 위냐켄 국회의장(93. 7), 부주석 이종옥(92. 11),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93. 10) 등의 상호 방문을 가졌으며 최근에는 라오스 국회대표단 단장 의장 사만 위냐켄(5. 12~16)과 정당대표단(5. 13)을 잇달아 초청해 국회회담(13일)을 가지는 등 양국간의 우호협력관계 유지에 주력하였다(내외통신9508호. (1995. 5. 22 1편).

4장 붉은청년근위대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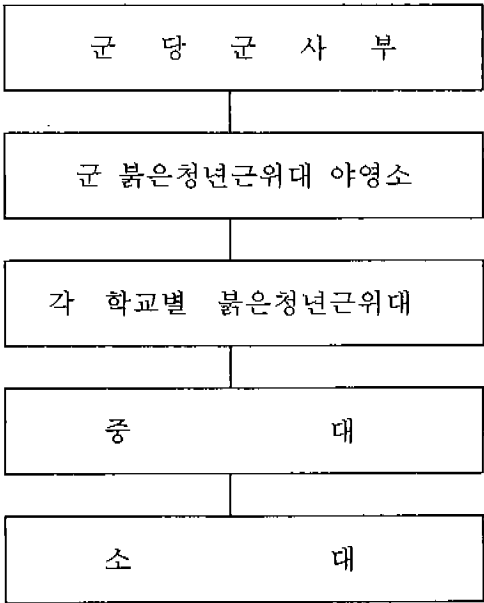
1) 붉은청년근위대

붉은청년근위대의 기본성격은 민병조직이다. 북한사회에는 노농적위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의 민병조직이 있다. 이중 노농적위대는 주로 제대한 노동자·농민층을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도대는 3급 이상의 공장·기업소 근무자와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붉은청년근위대는 고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붉은 청년근위대는 1968년 1·21사태 및 푸에블로호사건에 따른 대내 긴장상태를 이용해 창설·발기 되었다. 당시 북한의 각 사회단체는 ‘당과 김일성의 명령지시 관철에 근위대·결사대가 되자’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문을 채택해 김일성에게 전달했다. 이 결의문을 받은 김일성은 1969년 4월 각 단체의 결의문을 수락하는 형식으로 학생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의 편성을 지지했는데, 이 지시에 의해 1970년 9월 정식으로 붉은청년근위대가 창설되었다. 붉은

청년근위대의 지휘체계는 <도표-6>과 같다.

<도표-6> 붉은청년근위대 조직표



붉은청년근위대의 임무는 ‘김일성의 친위대, 군초급간부 보충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반혁명요소 적발·전체 사회단체들의 사상교양·전투력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직은 노동당 군사부의 지휘통계 아래 중대급 제대(梯隊)로 편성되어 있다. 고등중학 4학년 이상의 학생을 전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훈련동원시에는 당의 외곽단체인 사로청과 정무원 교육위원회 예하로 편입된다. 1개 중대는 4개 소대로 구성되며 병력은 2백명 이상이다. 1개 소대는 4개 분대로 구성되며 병력은 60명 내외이다. 1개 분대는 15명 내외로 구성된다.

붉은청년근위대의 무장은 대원전체에게 AK소총을 지급하고 통신장비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훈련시 중대급 공용화기로서는 기관총·박격포 등이 주어진다. 그리고 훈련은 학교내 교육과 근위대 야영훈련소 훈련으로 구분된다.

학교내 교육훈련시에는 각 학교별로 제대군관 또는 현역군관이 배치되어 주당 6시간, 연간 약 24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야외 전술훈련은 연 1개월간 의무적으로 각 시(구역)·군 소재지 근위대 야영훈련소에 입소하여 현역 중위(중대장) 이상 소좌(대대장)급 교관에 의해 집체훈련을 받게 제도화되어 있다(서동익, 1988 : 81-82).

2) 청년돌격대

청년돌격대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동대와 돌격대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취지하에 김정일의 지시로 지난 1975년 5월 창립됐으며 지난 20년간 2천4백여km의 철도와 1백50여개에 이르는 각종 건설공사를 완공하는 등 북한의 경제건설에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북한은 1995년 5월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속도전청년돌격대」 창립 20주를 기념하는 보고대회를 갖고 각 건설현장에 파견돼 있는 청년돌격대의 분발을 촉구했다. 부주석 박성철과 국가계획위원장 홍석형, 당비서 김종인, 사로청위원장 최용해 등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당이 맡겨준 어떤 복잡한 공사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전투력 있는 혁명건설부대가 될 것』을 강조했다. 당시 보고대회에서는 속도전청년돌격대가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김정일의 사회주의 건설구상을 앞장서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내외통신 9499호, 1995. 5. 16 1편).

IV 북한 청소년조직과 활동의 기능및 결과

1장 북한 청소년조직과 활동의 기능

북한청소년조직의 주요 기능은 무엇보다도 체제의 특성상 이데올로기 중심의 정치사회화에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기능에 대해 서만(Schurmann)은 공산주의 체제의 확립과 혁명 수행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커뮤니케이션의 기능 ②정당화의 기능 ③사회적 통합의 기능 ④국제적 연대감의 창출 기능 ⑤대중 동원의 기능 ⑥체제의 유지와 발전 전략으로서의 기능 등이 그것이며, 이러한 제 기능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 연계성을 지닌다(최명, 1990 : 118).

북한에서의 청소년조직과 집단활동의 기능과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우선 체제유지를 위한 공산주의적 인간조형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조작업이 최상의 가치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을 위해 정치사회화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북한에서의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자기생활과 사상을 통일한 인간이며 특히 북한노동당의 전체주의적 지배에 의해 철저히 박제된 인간을 말한다.

이전에 김일성은 북한청소년들을 사회주의사회에 적합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교육의 목적이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 노동계급을 위하여 싸우는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있다고 강조한 바도 있다. 따라서 북한청소년조직 기능은 체제를 유지하고 더욱 안정된 체제를 위한 후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활동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다.

1. 사상심화의 기능

1) 통치이데올로기의 정당화 및 심화

북한 청소년조직과 집단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청소년들에게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정치활동을 하도록 정치적인 조직을 결속시키기 위하여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사용된다. 통치이데올로기의 창시자나 주창자들은 그 이데올로기의 공약을 추구하게 되는데, 추종자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교의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다.

이데올로기의 목표는 감정을 야기시키고 활동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힘은 인간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또 인간의 정력을 동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항상 이데올로기를 받아 들인 자에게 어떤 강력한 정서적 매력을 일어나게 한다. 이데올로기란 집단이나 사회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일종의 신조, 이념, 태도 내지 특성이라고 정의되어 왔다(R.M. Christenson, 1981 : 4).

북한의 청소년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을 확고히 심어주는 데 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란 통치이데올로기는 북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마비시켜 북한 공산체제의 리더쉽, 즉 지도자(김정일)과 당의 실정에 대해서 둔감케 하거나 판단력을 무디게 한다.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을 조직생활을 통한 정치사회화를 통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왔는데 이는 북한의 청소년조직이 북한청소년들로 하여금 ① 자기의 사적 생활영역과 ② 개인의 행복 그리고 ③ 양심과 도덕의 인격률이 부여하는 영적 생활의 보호등을 스스로 거부하도록 자극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성을 상실한 무조건적 복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변신케 하기 위한 재사회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한다(박문갑, 1989 : 149).

청소년에 대한 사상심화에 대한 당정책과 조직활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은 1995년 3월 사로청 8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강화 및 '군사사상' 주입을 촉구하였다. 사로청중앙위 위원 및 후보위원과 각급

공장·학교의 사로청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당창건 50주와 해방50년을 성과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과제와 사로청조직들에서 학생·청년들과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했다(평양방송, 1995. 2. 24). 본 회의에서 최용해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사로청 조직을 “김정일의 청년동맹으로 강한 조직력과 단결력·전투력을 가진 부대로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회의에서 학생·청년들을 ‘민족간부·혁명의 역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과업과 방안을 제기했다(내외통신 종합판(55)보9423호, 1995. 3. 24 : 258). 북한에서의 청소년 조직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바로 통치이데올로기 유지와 심화에 있다 할 것이다.

2) 공산주의적 인간조형

일반적으로 공산국가의 정치사회화 목적은 미래의 공산주의적 시민과 혁명가로 조형된 인간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는 당연히 혁명가의 상은 정권에 의해 정통성이 부여됨으로써 시민의 이상상으로 현신적인 시민상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는 당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대되고, 지도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어떤 문제없이 목적에 무조건 봉사한다. 그들은 고된 일을 하고, 정직한 지도자로서의 활동적인 사람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공산주의정권을 지지하며 행동에 편견이 없고, 적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찬 잘 훈련된 추종자이기를 바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보면,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정신적 품모이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위협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요성, 공산주의 앞날의 전망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청소년들을 공산주의적 세계관을 믿게하고 낯은 것을 없애는 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호전적 성격을 육성하여 공산주의적 인간조형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이 조직생활 속의 정치교육을 통하여 주입시키려는 공산주의 사상은 절대 불변의 진리로 신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차한 논의보다는 티판없이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사회주의교육이 노동계급의 혁명

실천과 결합되어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 것은 사람들을 쓸모 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무장된 사상의 기초에 따라 행동화를 위한 것으로 유물론적 세계관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는 사회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유일 수단이 혁명이며, 세계적화를 위한 공산주의적 세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청소년들을 혁명적인 행동특성으로 무장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조형하려는 공산주의적 인간이란 그들의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한 세계관을 믿게하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혁명실천가를 의미한다. 사회발전이 점진적인 개선에 의해 진보적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혁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혁명이란 그들이 명분상 제시하는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위해 유일한 수단이며 필요불가결한 방법이 된다(북한연구소, 1981 : 299-300).

2. 통치자 우상화의 기능

1) 김일성 우상화

한 개인에 대한 우상화 정책은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은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 가계에 대한 우상화 정책을 펴 나왔다. 북한청소년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화 정책의 실현이다. 우상화 정책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되는 김일성 우상화는 ‘항일 빨치산 투쟁’의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 항일투쟁으로 독립을 위한 토대가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항일 무장투쟁은 바로 김일성이 전적으로 이끌고 지도하여 왔다고 교육시키고 있다.

본래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숭배는 마르크스주의에 반대되는 이데올로기이며 오히려 봉건주의와 부르주아 개인주의 세계관에 기초한 이데올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정치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한국은 조선조 5백년간의 유교문화권 속에서 향리적(鄉里的)이고 신민적(臣民的) 정치문화를 벗어

나지 못한 채 가부장제적 권위주의 질서의식에 깊이 젖어 있었던 데다가 일제하 35년 동안의 억압통치 특히 해방 직후부터 스탈린의 통제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배자는 손쉽게 개인숭배를 강요할 수 있고 피지배자 역시 개인숭배를 강요당해도 커다란 이질감 없이 복종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비인격적 내지 제도적 충성과 개인적 상징주의간의 구별을 체험하지 못한 곳에서는 개인숭배 내지 우상화가 그 만큼 용이해진다고 하겠다(정치교육연구회, 1982 : 216).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를 분석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 우상화 및 충성심 고취가 전체 교과서 내용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인간성장의 기초가 조기교육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체제유지를 위한 공산주의적 인간조형에 대한 그들의 정치사회화 노력은 철저한 정치사상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조형된 청소년들은 사회주의체제하의 문물과 인간만이 혁명적 존재라고 인식하는 편파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2) 김정일 가계의 우상화

김일성 개인우상화는 김일성의 친족들에 대한 숭배와 혈통 신격화 운동으로 끊임없이 진행되어 「혁명가문」으로 찬양하게 되었다. 북한의 모든 청소년 조직인 학교와 소년단 사로청은 물론 행정기관, 기업소, 협동농장과 공장 및 군부대 등에는 김일성을 위시한 그의 친족들이 모두 애국자로 그리고 김일성과 인연을 맺었다는 장소와 건물을 모형, 그림, 기록으로 전시하고 그들의 동상과 탑 및 기념비를 세워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또 친족들의 묘를 왕릉처럼 대형화하면서 성역화하고 모든 청소년들은 물론 전 주민과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집단적인 참관을 시키고 있다.

외국인들까지 참관하는 모습을 보는 북한 청소년들은 전 세계 외국인들도 김일성을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북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김정일 가계에 대한 충성심을 심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계산에 넣어 같은 시기에 외국인과 북한청소년들을 참관하도록 일정을 짜기도 한다(귀순자 안혁의 증언, 1995. 8).

혁명사적지 외에도 북한은 인민대학습당·개선문·주체사상탑 등 김정일 가

계의 치적물들을 축성해 놓았으며 김일성이 살던 초가집은 물론 포플러나무 · 바위 · 작은 공터 등 일대를 「성지(聖地)」로 꾸며놓고 있다.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되었던 1980년대 이후부터 이 이상성역 답사를 시켜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김일성 · 김정일의 청소년 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다. 북한에는 「혁명전적지 답사행군」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은 주로 청소년과 학생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기타 근로자, 군인 등도 참여하고 있다.

김정일 가계에 대한 우상은 그의 친족명을 교육기관에까지 붙이고 있다. 예를 들면 김일성종합대학을 위시해서 김일성정치군관학교, 강반석혁명학원, 김형직사범대학 등이 그 좋은 보기이다. 이와 같이 친족과 관련된 사업이 많은데 북한에는 마치 김일성 왕조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외국인들의 견해가 우연한 결과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양성철외, 1986).

3) 권력세습 정당화

공산권의 역사를 볼 때 독재자가 사망하면 권력투쟁이 유혈적인 상태로 벌어지고 선임 독재자가 규탄받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1953년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한 이후 1956년 제 20차 공산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는 맹렬하게 스탈린을 비판하고 격하시켰던 적이 있었다. 한편 중국의 경우도 모택동이 사망한 이후 중국 지도자들의 모택동에 대한 비판과 재평가는 김일성으로 하여금 권력세습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생각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를 익히 잘 알고 있던 김일성은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권력세습 정당화를 오래전부터 중요한 정치사회화의 한 부분으로 채택하여 왔다.

1973년 9월 북한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당 제 5기 7차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이 조직 및 선전선동비서로 동용되고 이론바 「3대혁명소조운동」이 김정일의 총체적 지휘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터 「승계론(承繼論)」이 등장하였고 이는 청소년 사회화정책에 대대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부자세습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당시 북한당국은 이 승계론의 정당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양호민외, 1984 : 380).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은 수령의 후계자는 반드시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 혁명가여야 하고, 후계자는 새로운 세대에서 출현

하여야 하며, 또한 후계자는 수령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이어 받을 일정한 역사적 준비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존경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김일성)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 받으신 주체위업의 유일한 후계자이시다”

그러나 북한공산체제가 그들의 주장대로 「인민공화국」이라면 주권은 인민에게 있는 것이며 권력의 세습이란 이에 모순되는 것이다. 세계 어느 공산체제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권력세습이 자행되어 왔음은 스스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은 노동계급 출신도 아니며 혁명의 경험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3대혁명소조」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왔으며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북한청소년들에게 그들 부자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박문갑, 1989 : 178).

이와 더불어 유일적 후계체제의 논리 전개와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후계자론’, ‘수령결정론’, ‘혁명적 수령관’, 그리고 ‘지도자론’ 등을 앞세워 모든 청소년들에게 꾸준히 학습시켜 왔다(도홍렬, 1990 : 124). 북한 청소년 조직은 이러한 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각종 사상교육활동을 통해 김정일의 권력세습을 지상명제로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키고 있다. 특히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에는 청소년조직을 김정일의 전위대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5년도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라면서 전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에 대해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북한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사실을 통해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임무는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톡톡히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사명을 청소년들이 완수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동청년은 이어 김정일을 『청년들의 운명이며 마음의 기둥』이라고 찬양하는 가운데 특히 청년들이 『김정일의 영도적 권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자그마한 틈도, 추호의 양보도 몰라야 한다』고 주장, 김정일체제 구축에 「선봉대」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청년들은 『김정일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김정일의 사상과 배치되는 온갖 불건전한 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내외통신9435호, 1995. 4. 1 1편).

3. 동원의 극대화 기능

북한의 청소년조직은 ‘사회주의의 건설과 혁명’이란 명분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동원을 극대화하는 데에서 그 힘을 철저히 발휘하고 있다. 동원이란 행동 단위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집단행동에 이용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사적 목적으로부터 공적 목적으로 자원의 통제력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도홍렬, 1990 : 120).

주체사상에 의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어떻게 조직 동원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곧 김일성이 제창한 ‘주체의 령도 방법’, ‘혁명적 군중로선’의 관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사상의 군중노선은 ‘천리마운동’,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 ‘속도전’, ‘3대혁명소조운동’,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운동’ 등의 형태로서 전개되었다.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혁명적 군중로선’을 가리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적인 혁명적 사업과 인민적 사업작품”이라고 칭송한다.

이렇게 사상주입을 통한 동원의 강화는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이 체계화되고 그 절대적 권위가 강화됨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있다. 즉, 주체사상에서 제시하는 이론과 방법을 구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지름길이라고 규정하고, 청소년들에게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인민 대중의 동원은 더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도홍렬, 1990 : 121).

북한청소년조직에 대한 동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좋은 일하기 운동」이 있다. 북한은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청소년 학생들을 가축 기르기·나무심기·폐품수집·약초채취 등 경제활동에 적극 동원하고 있다.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에 의하며 「좋은 일하기 운동」의 일환으로 1994년 한 해 동안 8백 30여만 마리의 토끼를 길러 5백59만2천6백여 마의 토끼가죽을 생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사로청림」, 「소년단림」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나무심기에도 적극 동원되어 1994년에만도 3만3천여 정보의 경제림과 1만7천여 정보의 「기름나무림」(열매로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무)을 조성한 것으로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의 청소년 학생들은 그밖에 파철을 비롯해 버려진 고

무·종이·비닐 수집과 약초·산열매·산나물 등의 채취활동도 전개, 「혁명적 경제전략을 관철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이 같은 동원사업을 통해 모아진 자금으로 탱크, 기차, 트랙터 등을 마련 주요 계기 때마다 「사로청호」, 「소년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헌납하고 있는데 지난 1994년의 경우 「농촌테제」 발표 30주를 맞아 2백16대의 트랙터를 헌납한 바 있으며 매년 정기적인 행사로 헌납행사를 해오고 있다(내외통신 종합판 (55), 보9380호, 95. 2. 24 : 272).

북한은 청소년조직을 통한 직장배치에 있어서도 집단배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당에서 주도하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각 단위의 조직을 통한 자발적인 집단배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개별적으로는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조직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북한영화 ‘효녀’ 참고). 그 예로 북한은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제대군인들의 농촌 진출을 집단적 동원형태로 적극 장려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1995년 6월 2일 「김상선 소속부대」의 제대군인 12명이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 않고 사회주의 농촌에 영원히 뿌리를 내릴 것을 결의하고 회창군 가흥협동농장에 집단 진출했다』고 선전하며 다른 군인들도 이 군인들을 본받아 적극 농촌지역으로 진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평안남도 회창군 가흥협동농장에서는 1995년 6월 1일 군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집단배치를 격려하는 제대군인들에 대한 김정일의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진행됐으며 이날 모임에서는 김정일에게 보내는 「맹세문」이 채택되기도 하였다(내외통신9528호, 1995. 6. 2 2편).

이러한 동원방법은 결국 ‘행정적 방법’이나 ‘물질적 방법’보다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방법만이 참다운 혁명적방법이라는 주체사상의 논법에 준거한 것이다. 이것은 곧 청소년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을 때 효과적인 동원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도홍렬, 1990 : 122). 따라서 북한 청소년조직을 통한 청소년동원에 있어 정치사상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사상교육은 청소년조직을 통할 때 만이 그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데에서 북한청소년조직의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다.

4. 남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구조형성과 선동의 기능

1) 남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구조 형성

청소년 조직을 통한 활동과 교육은 북한 청소년들의 남한에 대한 인지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지구조는 수령과 혁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1인 독재의 정당성을 더 한층 확고히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남혁명의 정당성마저 부여하게 된다.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적은 민족적 주체성을 침해하는 제국주의 세력은 물론 이들과 영합하는 교조적·형식적 반동세력들을 가르킨다.

이러한 적의 개념에 근거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조선’의 성격을 “애국자와 매국자들간의 투쟁이며, 민족자주세력과 제국주의 침략세력간의 투쟁”으로 규정하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조국해방통일’을 합리화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슬로건을 내걸고 대남혁명의 불가피성과 혁명의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례로 북한 언론들은 하나같이 『남조선 농촌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6백만 농민들이 알거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및 노령화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쌀시장 개방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쌀생산 경쟁력 제고노력을 『허튼수작』이라고 비난해 왔다. 북한의 이러한 비방은 북한 청소년들의 남한에 대한 의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내외통신9522호, 1995.5.30 2편).

북한 청소년들의 한국사회에 대한 의식구조는 청소년조직과 집단생활을 통해 기계적 학습의 효과로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획일적 사상의식은 북한 사회의 현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미화하여 인식하게 할 것이므로 북한사회에 대한 자부심만을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인지구조는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체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대중조작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도홍렬, 1990 : 123).

2) 대남선동의 기능

북한은 청소년조직인 사로청을 비롯한 사회단체를 동원해 대남선동을 벌여 왔다. 이들의 대남선동과 비방은 북한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구조형성에

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의 선동활동의 사례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정부 비판

북한의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조직형태는 첫째, 남과 북의 계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정치협상회의」나 「대민족회의」둘째, 남과 북의 유명한 정치인들의 연합회의 등이 있다. 여기에서 「정치협상회의」와 「대민족회의」그리고 「유명정치인 연합회의」의 차이점은 정치협상회의와 대민족회의가 정당, 사회단체 대표 중심이라면 유명정치인 연합회의는 개인 차원의 연합회의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북한은 1995년 1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남조선과 해외의 정당·단체 각계각층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면서 「통일대추전」과 「대민족회의」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은 정부배제를 통한 「전민족통일전선」형성을 위해 문민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김영삼 정권을 5, 6공 역대 군부독재정권보다 더 굴욕적인 「사대매국정권」, 「파쇼독재정권」, 「분열주의정권」으로 규정하고 김대통령의 세계화구상, 민족우선론, 한국내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왜곡보도하면서 각계각층의 연대적 정권타도를 선동하고 있다. 「로동신문」은 1. 13~2. 26에 걸쳐 「괴뢰역도의 집권 2년 범죄록」을 33회에 걸쳐 연재하고 김대통령을 「배신자, 변절자, 인간 추물」, 「을사5적을 통가하는 친일매국」, 「군부독재 기반 위에 서있는 문민독재자」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내외통신9537호, 1995. 6. 9 1편).

(2) 한국의 사회단체 선동

북한은 남북대화 및 교류를 명분으로 「문예총」, 「직총」 등의 명의로 대남선동공세를 펼쳐 왔다. 1995년 3월 6일 북한은 각 사회단체들을 앞세워 한국의 「한총련」(한국대학 총학생회연합)을 비롯한 단체들에 편지를 보내왔다. 이들 편지는 이른바 「대민족회의」를 소집키 위한 접촉을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이나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갖자는 주장이었다. 또한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 것을 바쳐온 남조선의 여러 단체들이 8·15공동경축과 대민 축회의 소집에 적극 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편지를 보낸 북한 사회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선직업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학생위원회」등 이었다. 북한의 「문예총」(조선문화예술총동맹), 「여맹」(조선민주여성동맹) 등도 이에 앞서 1995년 3월 1일과 3일 같은 내용의 서한을 한국의 학술, 문화, 여성단체들에 각각 보내왔다.

북한의 사로청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들은 한국의 사회단체와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의 각 사회단체들이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철저하게 노동당을 위한 틀러리 역할을 위해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의 전위 조직으로서 가맹원의 이익이나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이를 일사불란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사회단체들의 성격은 노동당규약 제 56조에 잘 나타나 있다. 56조에는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런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며 사상교양조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내외통신 종합판(55) 941호, 1995. 2. 23 : 253-4). 사로청은 「조국전선」에 가입하고 있다. 「조국전선」은 「사로청」뿐만 아니라 노동당을 비롯한 「직맹」, 「여맹」, 「기자동맹」, 「사로청」, 「문예총」, 「천도교청우당」, 「사회민주당」등 24개 주요 단체를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남북대화 및 통일문제가 전체 북한주민의 의사인 것 처럼 합리화시키는 이유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아가 한국사회의 교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부조직이 없는 단체가 대남선동과 선전에 목적이 있다는 것은 「조평통(祖平統)」을 보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 스스로 밝힌 창설목적과 기능 및 임무가 그 근거이다. 평양에서 발행된 정치사전에는 창설목적이 「조선 노동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을 단합하여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 주요 기능과 임무는 ①남조선 각계 각층 인사 및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통일실현 고취 ②노동당의 통일 및 남북대화정책 대변 ③한국사회상 비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북한의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하나도 예외없이

북한노동당의 필요에 따라 설립된 전위단체인 것이며 이러한 성격은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불가피하게 지속될 수 밖에 없다(내외통신 종합판(55) 941호, 1995.2.23 : 254-6).

(3) 한국학생 선동

북한은 4월 18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4·19혁명 35주를 기념한 '평양시 보고회'를 열고 한국청년들에 대해 통일 및 정권타도 투쟁을 격렬히 선동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이 날 모임에서 사로청위원장 최용해는 보고를 통해 한국사회의 자주·민주화와 조국통일이 "4.19용사들의 염원이며 오늘 남조선 인민들 앞에 나선 절박한 과업"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각 계 각층 인민들은 현 정권을 제거하고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1995. 4. 19).

북한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15주를 앞두고 한국학생들의 반미·반정부 투쟁을 격렬히 선동하였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5월 14일 「분노의 폭발, 외로운 투쟁」 제하의 대담프로를 통해 『남조선인민들은 광주항쟁용사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제 2, 제 3의 광주항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이미 추켜든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조선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야 한다』고 선동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5월 11일 「민민전」 명의로 「1백만 청년학생들에게 보내는 격문」이라는 것을 발표, 한국학생들이 반미투쟁과 정권타도투쟁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을 선동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5월 17일 오후 당비서 최태복은 『민족의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남조선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 나셔야 한다』면서 한국학생들의 반미투쟁을 촉구하기도 하였다(내외통신9537호, 1995. 6. 9 1편).

북한은 1995년 6월 7일에는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조국통일의 기수」라면서 90년대 통일실현을 위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선동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올해가 광복 50주가 되는 해임을 지적, 『북과 남의 청년들에게는 조국통일운동을 과감히 벌여 90년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

련해야 할 성스러운 과제가 쥐어져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의 청년학생들에 대해 『단결된 힘으로 반미·반파쇼투쟁을 거족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단결은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열쇠』라면서 『단합된 투쟁, 중단없는 투쟁만이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고 강조, 반정부투쟁을 부채질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외세의존·반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따라 『90년대 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고 주장했다(내외통신9537호, 1995. 6. 9 1편).

북한은 1995년 6월 11일에도 당기관지 로동신문을 통해 지난 87년 「6월항쟁」의 염원은 아직 한국사회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청년들이 「6월항쟁」의 정신으로 반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했다. 북한은 「6월항쟁」 8주를 맞아 당기관지 로동신문에 게재한 논설에서 『6월항쟁은 남조선 인민들의 자주·민주 통일에 대한 강렬한 지향의 분출이었다』고 규정하고 그러나 「6월항쟁」 참가자들이 외쳤던 자주·민주 통일의 염원은 한국사회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이어 현재 한국정부는 민족자주와 민족단합, 통일의 길을 외면하고 외세의존과 남북대결 및 분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방하면서 『현실은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6월항쟁의 정신을 되살려 새로운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또 한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주·민주 통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6월항쟁의 교훈을 잊지말고 반외세, 반파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주장, 한국학생들의 반정부·통일투쟁을 선동하였다(내외통신9542호, 1995. 6. 13 1편). 「범청학연」 북측 본부 산하 대학생편집위원회는 한국대학 신문기자연합 등에 「8·15통일대축전」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내외통신9549호, 1995. 6. 16 2편).

(4) 한국국민 선동

북한은 대남비난선전과 한국민들에 대한 「통일투쟁」선동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1995년 5월 20일 「8·15통일대축전」북측 준비위원장 김용순을 통해

한국정부가 판문점공동행사와 종교관련 집회를 불허기로 한데 대해 비난한 이후 그 동안 사민당 성명(23일), 천도교청우당 성명(25일), 조국전선 성명(26일), 직총위원장 주성일 담화(26일), 사로청위원장 최룡해 담화(27일), 농근맹위원장 최성숙 담화(28일)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기존의 대남비난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이처럼 「8·15통일대축전」과 관련해 대남 선동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한국내의 노사분규 및 1995년 6월 27일의 4대지방선거와 연계시켜 한국사회의 혼란을 극대화시키며 나아가 통일논의를 부추켜 국론을 분열시켜 보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은 1995년 5월 22일 「폭압의 강화는 파멸을 앞당길 것이다」 제하의 평양방송 시사논단 프로에서 한국정부가 한국통신의 불법쟁의 주동자들을 문책키로 한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폭압의 도수를 한층 더 높여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그들의 대중적 진술을 가로막아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 투쟁의 길에서 한 걸음 물러서게 되면 두 걸음 물러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언젠가도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고 강조, 근로자들의 지속적이고 극한적인 투쟁을 부채질했다. 이 처럼 노골화되어 가는 남한타도 논리와 이의 구체적 실천지침인 「전민족통일전선」 전술은 김정일이 최고지위에 취임한 이후에도 큰 변화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향후 김정일은 김일성과 자신의 실정을 은폐하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국국민들에 대한 대남정책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주적이었던 미국 대신 남한을 주적으로 상정, 남한을 배제하고 남한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을 지속할 것이다. 둘째, 비정부적 차원의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에 정책적 역점을 둘 것인 바, 민족론에 입각하여 경제·사회·학생·노동·야당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하층 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전민족적 통일전선」 전술은 연방제통일방안 실현의 기본전제가 되고 있고 그것이 곧 김일성유훈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그것은 또한 김정일체제를 공고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일은 주한미군철수에 주력할 것이다. 그 첫단계 작업으로서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주장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1991년 이후 군사정전위 자체를 거부하였고 최근에는 중국을 설득, 정전위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한편,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 이의 연장선상

에서 북한은 평화협정 대체문제를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바, 만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주한 미군의 존재이유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내외통신9537호, 1995. 6. 9 1편).

(5) '노학연대투쟁' 선동

북한은 6월 12일 한총련을 비롯한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노학연대투쟁」을 강력히 선동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이날 한국의 청년학생들이 「투쟁의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한총련의 1백만 청년학생들은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하고 반드시 민주주의 새장을 일떠세우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 이들의 극단적인 정치투쟁을 부추겼다. 또한 『승리는 오직 단결된 투쟁에 의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고 지적, 각계 각층과의 「연대투쟁」을 촉구하면서 한국내에서 노사분규와 반정부투쟁이 확산되고 있는듯이 선전했다. 또 한국정부에 대해 「반통일분자」, 「매국역적」 등으로 비난공세를 펼치면서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압제자들과의 투쟁에서 승리할때까지 투쟁의 기치를 내리지 말고 중단없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특히 한국대학생들이 한국사회의 「자주화·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며 궁극적으로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도 촉구했다(내외통신 9543호, 1995. 6. 13 2편).

제 2 장 결 과 : 북한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양식

북한의 청소년들은 조직과 더불어 컸고 조직과 더불어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으로부터의 소외나 이탈은 곧 개인의 최대 무력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의 청년들이 창조력의 원천으로서 집단을 신앙하고 있으며, 개인의 궁극적인 욕구로 '귀속'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학자 화이트(L. D. Whyte)가 저서 「조직인(The Organization Man)」에서 밝히듯이 조직속에서만 심리적 안정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이탈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시 심리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맛보며, 조직을 통해 강한 귀속감(belongness)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그들의 의존적, 복종적 성격이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조직이 시키는 일이라면 부당한 줄 알면서도 묵묵히 받아 들이는 것은 개인은 전체에 귀속해야 한다는 공산주의이념에서 결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적 성격은 불가피하게 형성된다(엄종식, 1988 : 60-61). 북한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은 집단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사회화되고 있다.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신 프로이트학파의 주장이 있다. 아들러(Alfred Adler), 호니(Karen Horney), 프롬(Erich Fromm), 슐리반(Harry Stack Sullivan)을 포함한 학자들은 개인을 개인의 생물학적 욕구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및 문화에 의하여 성격의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주변환경은 사회학, 인류학, 종교학, 정치학에서 또한 많은 연구 조사가 실시 되어왔다. 청소년의 사고, 태도, 가치관의 내용은 학습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견해는 모든 학자들간에 공통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특히 사고와 가치관의 수치에 정신분석학적의 기제인 동일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일균, 1994 : 6-7). 북한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양식은 공식적인 조직과 집단생활에 의해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는 주로 공식적인 집단생활에 의해 형성된 북한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1. 집단주의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공리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김정일의 이름으로 한 발표문은 “개인주의적 인생관이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김정일, 1988 : 97).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발달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집단노동을 사회체제의 유지·발전의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구성원리는

‘군중노선’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 사회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적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 간다고 보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 것이 생활의 가치척도로 되어 있다’라고 교육시키고 있다(강민구, 1989 : 55).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집단생산성을 높이는 방편으로 집단적 경쟁주의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체육대회시 개인간의 시합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집단간의 대항형식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귀순자 안혁의 증언, 1995. 6). 이러한 결과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개별적으로 무엇인가를 잘해야 한다는 의식보다는 집단적으로 잘해야 하며 이것이 훌륭한 공산주의 청년상으로 의식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화는 노동동원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을 주된 덕목으로 교양하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에 대해 집단주의는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금지는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개인의 이익과 안일을 추구하는 타인에 대해서 집단주의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예를 북한의 문학작품을 통해 살펴 볼 수 있는데 단편소설 「절정」은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서재진·김태익, 1992 : 80).

“신문을 들고 나온 학생은 우리 학급 초급단체 선동원으로서 대리석처럼 차가운 인상을 주는 청년이었지만 불타는 듯한 열정적인 목소리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는 독보 끝에 우리 학급을 대학적인 모범학급으로 꾸릴데 대한 격동적인 호소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 뜻밖에도 내 이름이 말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리상옥 동무에 대해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 동무는 병치료 때문에 등교를 못한다고 하지만 너무합니다. 이 동무도 우리 학급이 어떤 학급인지 이제는 소문으로라도 들었을텐데 웬만하면 나와서 인사를 하는게 옳지 않겠는가! 이 동무야 말로 규율 밖에서 살기를 좋아하고 집단과 동지들에 대해서는 꼬물 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동무입니다. 이 한 동무 때문에 우리 학급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급에 있을 자격이 없는

동무입니다> 나에 대한 선동원의 비판은 점점 더 랭혹하고 무자비해졌습니다”(백보흠, 1988 : 153).

사실 북한청소년 조직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집단주의이며 이는 청소년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여기에서 북한 청소년의 기본적인 의식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2. 가부장주의(paternalism)

북한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조직생활을 통해 절대자의 절대권위와 조직의 철저한 권위체제하에서 가부장주의를 습득하게 된다. 가부장주의에서 지배자는 주인(patron)이며 피지배자는 가신(clientele)이 된다. 가부장주의가 지배적 개념으로 북한 청소년들에게 주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가신주의(家臣主義)의 인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청소년들은 김일성 ‘절대군주’의 가신 또는 충직한 종으로 교육되어 왔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는 수령의 시혜와 보살핌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수령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에서 국가는 하나의 큰 가정이며 청소년들은 그 가정의 자식으로서 한 식구로 정의된다. 한 가정내에서 지도자가 큰 은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그 은혜를 받고 존경하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서재진·김태익, 1992 : 59-61).

‘대가정’이라는 논리하에서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은 하나의 가부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리고 피지배자인 인민들은 가부장이 베푸는 자애로운 온정의 대가로 그 가부장에게 충성을 바치는 가신이다. 인민들은 행동은 물론이고 사고까지 김정일의 의도대로 하도록 규정받고 있다. 「인간개조리론」에 제시된 한 주장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사회과학출판사, 1985 : 173-4).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수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매 사람들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는 모든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혁명임무수행에서의 성과는 수령의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관철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북한의 가부장주의와 가신주의적 인성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것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의 소설에는 이러한 가부장주의가 자주 주제로 등장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베풀어주는 은혜에 인민들이 감동하여 충성을 맹세하는 가부장주의의 내용이 반복된다. 단편소설 「푸른 꿈」은 농장에서 일하는 명숙을 통해 북한청소년들에게 김정일에 대한 열성과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게끔 그린 작품이다(서재진·김태익, 1992 : 62).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해가는 지도자 동지를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금방 얼어드는 것 같구나 ……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나오고 연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들어가 또르르한 직위를 가지면 그에 만족하여 한 생을 즐길 사람도 있으리라고 봐. 하지만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돼. 우리들을 요람속에서 잠재워 주고 먹여 주고 고이 키워 내세워 준 은혜로운 당과 수령님께 말이야. 이 길에서도 청춘도 희망도 아니 한 생을 다 바쳐서라도 말이야”(김은석, 1991 : 46)

3. 권위주의와 의존성

윗 사람에 대한 가부장주의는 곧 아래 사람에 대하여는 권위주의로 연결된다. 지도자와 지도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곧 사회질서 전체에 권위주의를 일반화 하게 되어 청소년들의 인성은 권위주의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는 조직의 위계적 관계를 내면화 시킴으로써 견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권위주의를 북한에서는 관료주의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성에 있어서도 권위주의가 실재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노동자의 사회라는 북한에서 노동자와 농민들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경멸을 하는 사례가 많다. 북한사회에는 힘이 있는 자에게는 무조건 복종하지만 자기보다 힘이 약한 상대에게는 원칙 없이 함부로 대하는 사례도 많다.

한편 권위주의는 권위체에 대한 의존성을 높이고 권위체 자체의 절대성을 인정하려는 경향이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로 지도자의 완벽한

도덕성을 요구한다.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도덕문제가 제기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당연히 지탄을 받게 되며 지도자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즉 자신의 도덕성을 지도자를 통해 승화시키기를 원하는 심리적인 투사가 심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투사는 자신의 약함, 부족함, 마음의 자세를 타인이나 집단에게 밖으로 옮기는 심리적 과정으로서 개인은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자신과의 대립에서 투사를 통하여 탈피하는 것을 말한다.

지도자를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는 위계체제 안에서 인간관계의 질서와 권위체에 대한 복종심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즉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체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은 지도자와 목숨을 같이 하였고 이를 통해 지도자를 아버지로 모시는 일인독재로 이끌어 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었다(김일균, 1994 : 12).

한편 권위주의에 대한 의존성은 북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동일시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신분석학적인 입장에서의 북한의 조직된 집단주의는 인민해방자라는 김일성에 대한 집단구성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구성된 ‘자기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구속력이 약한 집단에서는 자기 이상과는 서로 다른 가치판단과 삶의 태도와 충돌하므로 대개 갈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안정된 집단 안에서는 지도자가 모든 집단구성원의 동등성이 자기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지도자에 대한 사랑을 통해 서로가 단결을 하게 된다. 누구나 눈 앞의 이상이 같으면 평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애정과 집단의 목표지향성이 형성된다.

많은 경우에는 집단의 이상인 지도자가 신격화 되는 상황이 전개됨과 동시에 양심의 기능과 현실에 대한 판단을 그에게 전가하면서 그는 이제 모든 사там을 대변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 즉 지도자에게 원조(元祖)의 속성을 부가하여 신격화 시키는 데에서 나타난다고 프로이트(Freud, S.)는 말한다. 신이나 지도자가 아버지를 대항하므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추종하게 된다. 심리적인 면에서 볼 때 그들은 어린애의 위치에 머무르거나 또는 그 위치로 퇴행하므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러한 유년성이 집단주의의 기반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동일시는 북한의 경우 김일성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났다. 집단주의의 성향을 가진 북한 청소년에게 내재해 있는 김일성의 가치규범

은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된 초자아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화과정에 있어서 북한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높이 솟은 아버지의 상으로서의 김일성과 동일시하게 되므로 김일성에게 절대적인 복종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비판은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되는 심리 역동적인 힘이 작용하므로 절대적인 자기방어가 작동하는 것이다(김일균, 1994 : 14-16).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불만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으므로 공격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 불만을 해소하는데 이 때에 집단이 ‘희생양’을 설정하여 그들의 공격성을 전위 시키도록 유도한다.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희생양에게 전가하여 그것을 공격하게 하므로 긴장을 해소하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경제등의 사회문제를 유대인에게 전가하여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고 국민들의 공격대상으로 희생양을 삼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4. 배타주의

북한에서 배타주의의 연원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지배, 한국전쟁을 통한 미군으로부터의 피해의 경험이었는 데 이것이 지배적 이념인 주체사상으로 발전되면서 배타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배타주의는 집단주의와 연장선상에 있다. 배타주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대감 뿐만 아니라 지주 등의 착취계급, 부르조아 사상, 다원주의 등에 대한 적대감도 동시에 포함한다.

북한 청소년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다른 국가나 민족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적 자율성을 배제해 왔다. 지배이념으로 교육받은 것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는 자율적이고 진실로 주체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청소년들의 인성은 권위의 직속계통과 자기집단 이외에는 배타주의적이고 적대주의적이다. 단편소설 「심장의 외침」을 보면 지주와 일제 및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강도 높게 인식시키고 있다(서재진·김태익, 1992 : 83-4)

“몇해전 지주놈은 윤구소를 덕준에게 주었다. 윤두소라야 제발로 걸지도 못하는 병든 송아지였다 …… 그 동안 병든 소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모

른다. 어쩌다 생긴 한되박의 콩도 여물에 섞고 퉁퉁 부어오른 얼굴로 오빠를 바라 볼 때면 슬그머니 돌아서 눈곱을 훔치던 덕준이었다 …… 죽은 줄로 알고 덕준에게 주었던 송아지가 살아나자 지주놈은 안달이나 며칠밤을 새웠다. 지주놈은 순사놈과 짜고 들어 돈궤가 잃어졌다고 소동을 피우고는 그 루명을 덕준에게 돌췌웠다. 그리고는 품삯대신 주궤다던 송아지를 빼앗아 갔던 것이다. 불쌍한 두 동생을 두고 경찰서로 끌려간 덕준은 1년만에야 집으로 돌아왔다”(김용일, 1991. : 36-37)

“원췌는 바로 미제입니다. 그놈들은 남반부를 영원히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자선생들 속에는 조국이 통일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자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미제를 남조선에서 당장 몰아내야 한다고 봅니다”(한정남, 1991. : 20)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해 조직생활 이외에도 문예작품, 대중매체 즉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미국, 남한 등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내용을 매일 같이 보도하여 의식화 시키고 있다. 일상적으로 되풀이 되는 비판내용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북한 청소년들의 인성은 잠재의식 깊이 그러한 사실을 내면화 시키고 있다.

한편 배타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위주의 사고는 작게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소수 집단위주의 사고에서 크게는 지역중심의 사고에서 나타나는 타집단에 대한 적대감정을 낳게 한다. 남북간의 이념적인 대립관계도 이러한 토양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것이다. 북한은 평등사상이라는 공산주의의 원칙 아래 어느 정도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여 김일성을 중심으로한 대집단이기주의로 굳어졌다.

또한 배타주의는 도덕성투사의 메카니즘적 측면을 낳게한다.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지속적으로 주입받게 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생긴다. 높은 이상을 세워 놓고 자신들의 약한 모습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자신이 숭고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자신들 안에 있다는 것은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밖으로 남에게 투사하므로 자신의 고귀함을 유지하려고 한다. 즉 잔인하고 추악한 자신의 모든 모습을 상대의 잘못으로 돌림으로 자신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사가 민족간에 나타날 때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김일균, 1994 : 13). 이러한 의식은 남한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주의를 낳게 하여 남북한간에 다른 민족의 정체성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산주의 청소년의 성격은 외부집단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과 자기집단에 대한 극도의 복종심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감정표시의 본성도 상당히 억제되고 있다. 이러한 적개심은 대규모 군중집회, 증오 주간, 각종 학습과정을 통해 상승되어 있으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남조선해방’의 종교적 사명까지 포함되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은 1995년도 들어 미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제동요를 우려, 청소년들에 대한 「반미의식」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김정일이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하지 않으면 그들이 계급적 원수를 잊어버릴 수 있으며 어려운 시기에 동요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청소년들에 대해 반미교육을 강화, 『미제에 대하여서는 조금도 환상을 가지지 않고 놈들과 끝까지 싸워 결판을 내야 한다』는 의식을 철저히 주입시킬 것을 강조했다.

일례로 이 신문에 소개된 김일성대학 조선어문학부의 경우 사로청조직의 주관아래 6·25 당시 미군의 「소행」을 고발하는 자료 및 홍보영화를 마련, 주 1회씩 해설강의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연단, 웅변모임, 실효모임, 글짓기 등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학생들의 「대미 증오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같은 과정에서 학생들은 「미제야말로 가증스러운 살인마들이며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으며, 놈들에 대한 치솟는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내외통신9468호, 1995. 4. 25 1편).

모든 탄압, 고난, 금욕적 생활, 일신상의 희생을 무릅쓰고 거의 개인시간을 못 갖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을 표준삼아 그들의 성격구조가 형성된다고 볼 때 그 운동이 개인의 이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통한 ‘자기구원과정’ 또는 속죄과정이며 ‘영혼구제’를 위한 노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엄종식, 1988 : 60-61). 북한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적개심과 함께 공격적이고 투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를 비롯한 고등중학교의 교과서에서 미국과 한국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나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을 할 때의, 사례내용, 대중매체의 선동적인 보도 등을 통해 우리는 북한 청소년들이 왜 한국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5. 수동성 · 몰개성화

북한 청소년들은 집단생활을 통해 절대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명령이 있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위하지 않는 습성이 배어 있다. 개인의 자발성에 의해 행위를 선택하도록 사회화된 것이 아니라 중앙의 계획과 동원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사회화 되어 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생산성 저하와 동기유발의 부재를 낳고도 있다.

북한 청소년들은 창의력이나 개인간의 경쟁이 부족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순간적으로 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서투르고 적응하지 못한다. 1980년대 후반에 소련과 동구권 공산주의 체제가 자유세계와의 경쟁에서 패배한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점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북한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독일이 통일된 후 서독의 직장에 취업한 동독 출신 청소년들의 수동적인 작업태도는 학계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 이와 비슷한 태도는 북한 청소년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차경수, 1994 : 82).

북한의 청소년들은 집단 안에서 자기 정체감을 얻고 집단규범을 행동의 좌표로 삼을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는 집단의 가치와 규범이 작용하여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므로 몰개성화 된다. 즉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 정체성을 잃고 집단속으로 익명화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청소년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서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어린 혁명전사”, “당과 인민의 아들, 딸” 등으로 호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외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며 긴밀한 집단의 우대를 중요시하고 쉽게 선동될 수 있는 취약점을 갖는다. 그들 집단 구성원은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면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 억제하는 힘이 약화되고 그 순간의 정서상태들에 대해 감수성이 증가하는 반면 합리적인 판단과 자신의 행동을 검색하거나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게 된다.

이러한 점이 청소년들에게서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방향과 자기정체성을 찾는 그들에게 집단이 그러한 것을 제시하고 유도하므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그들은 집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은 외부세계와의 접촉의 차단으로 인해 유토피아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현실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들의 위치와 사고의 패턴에 집착하므로 상대적으로 사고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개인생활은 집단에 의해 주도되므로 개인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한 구속을 받으며 집단의 감시하에서 개인 감정의 억제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내적인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분출구를 찾게 마련이다. 그러한 에너지는 집단의 지도자에 의해 쉽게 유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김일균, 1994 : 17-18).

북한 청소년들은 대안을 탐색하는 비판적 사고가 활발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에 순종하며, 획일적인 행동유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통치자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북한 텔레비전 화면은 그 한 예이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에서 있었던 젊은 자살특공대 비행사들의 행동에서도 정보와 경험이 차단, 통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이러한 북한인들의 의식을 인정하고 있다. 또 한국에 오랫동안 살면서 한국어를 잘하고, 북한에 10차례나 갔다 온 컬럼비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스테판 린튼 교수도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그의 관찰결과를 서술하고 있다(차경수, 1994 : 82).

6. 가족적 온정주의

북한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인식되는 성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가 발달해 있다. 이것은 집단주의에서 집단간의 경쟁이 야기시킨 집단내부의 통합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통해 타집단과의 경쟁의식을 고조시킨 결과 타집단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큼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지만 반면에 자기집단의 성원에 대해서는 가족과 같은 온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억압이 강한 사회에서는 가족내부의 정서적 유대가 발달하기 마련이

다.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면 시민사회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원초집단(primary group)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북한청소년들의 가족적 온정주의에 대한 북경대학연구생 임경수의 증언이다.

“나는 북한학생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들에게서는 선천적인지는 몰라도 정이 많고 불의와 타협않는 정의감 넘치는 성격을 볼 수 있었다. 대화 가운데 부모에 대한 사랑이 강했으며, 친족에 대한 사랑도 각별했다. 하다 못해 생판 남인 내가 감기로 아파누웠을 때 어디서 구한 약이라며 들고 왔을 때는 가슴이 뭉클 하였다”(임경수의 증언, 1995.8)

7. 남북청소년의 이질성 심화

사실 인식에 있어서 북한 청소년들은 한국과 기타 외부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또는 상당히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의 북한에 대한 지식도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한 정보나마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면 상호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차경수, 1994 : 81-82). 이와 같은 남북한 청소년 사회화 및 교육의 모형을 비교하면 다음 <도표-7>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차경수, 1994 : 78).

<도표-7>

남북한청소년비교모형

준 거	남 한	북 한
기본 모형	개방형	폐쇄형
이념과 목표	인간의 존엄성 실현	사회주의 혁명가 양성
사회화의 모델 제공	다양한 모델 가능	제한된 모델을 시범적으로 제공
선택 대안의 가능성	다양함	제한되어 있음
사회화기관의 연계성	직접적이지 않음	연속적 조작적 일관성 유지
육 구 수 준	육구수준 상승 격려	육구수준 통제
엘리트·대중 분류	후기분류·20세전후	조기분류 10세 전후
규범의 내면화과정	엘리트 가능성 격려	엘리트 대중 분리 별도 교육

V 북한 청소년의 변화와 조직생활의 한계

1장 북한사회와 청소년의 변화

1절 북한체제의 변화

1. 북한 대외인식의 변화

지금까지 북한지도부의 정세 인식상의 특징은 대외정세인식과 관련하여 북한 지도부는 경제적 실리보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우선시 하면서 정권의 자주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예컨대 북한 지도부는 국제무대를 민주세력과 반동세력간의 투쟁이 전개되는 장으로 인식하면서 소련을 사회주의 형제국가로, 중국을 혈맹으로, 일본을 군국주의국가로, 미국을 제국주의국가로 규정해 왔다. 이러한 북한지도부의 인식은 바로 청소년들과 주민들에 대한 사회화 정책으로 연결되었다. 북한의 서방과의 관계는 극히 제한된 관계에 한정되어 왔다. 특히, 세계적 추세인 동·서 관계의 호전과 협력 분위기, 그리고 소련의 붕괴 및 동유럽의 개혁과 개방에 경계적이고 냉담한 반응을 보여 옴으로써,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폐쇄적인 인상을 주어 왔다. 북한은 소련의 개혁·개방화정책, 동구 사회주의진영의 붕괴, 독일·통일, 소련의 해체 그리고 한·중수교 등 일련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북한지도부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격리와 선별적 동일시, 그리고 동맹강화와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표출함으로써 수구적인 정세인식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국제정세가 계속 개방화 추세로 나감에 있어 북한의 대외정세 인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첫째, 북한지도부는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외교이념의 우선순위를 「자주·친선·평화」에서 「자주·평화·친선」으로 바꾸었다. 외교노선에 있어서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포기하는 대신 「사회주의적 원칙과 동지적 협조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외교관에 있어서도 세계혁명 추구적 외교관에서 국가이익 추구적 외교관

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국제경제관에 있어 북한지도부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서방자본주의의 발전을 인정하고, 대외무역과 경제협력의 필요성 특히 과학·기술교류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자주, 평화, 친선 및 평화를 3대 기본이념들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단결과 친선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제3세계 국가들, 특히 비동맹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경제·문화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천명해 왔다(로동신문, 1980.10.11 ; 전인영, 1990 : 565).

앞으로도 북한은 이데올로기적 인식을 명목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천명하되, 실제적으로는 실리중시적 인식을 점차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적 국제질서가 점차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 북한만이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보루로 남아 자본주의 진영과의 대결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내외통신종합판(55) 936호, 1995.1.19 : 121-5). 그러나 현재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개방은 개혁을 내포하는 개방이 아니라 서구의 과학·기술 도입과 경제교류에 한정된 개방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이점이 북한 개방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사회와 사회화정책의 폐쇄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 국내 정치·경제의 변화

1) 국내 정치의 변화

국내 정치에서 가장 큰 변화의 계기는 김정일체제의 등장이다. 이러한 김정일체제는 이미 1980년 10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 6차 당대회를 통해서 권력승계가 공식화되었는데 이 당대회에서 김정일은 공개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었고, 동시에 당비서국의 비서로 임명되었다. 또한, 그는 서열 제4위의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위원, 당중앙위원회위원으로 선출되었고, 당군사위원회에서는 김일성과 오진우의 뒤를 이어 서열 제3위를 차지하게 되었다(서대숙, 1990, 82). 이는 당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뜻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족벌정치가 완성되면서 북한정치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을 비롯한 오진우 등의 혁명 1세대의 사망 그리고 그후 세대들의 등장으로 인한 북한정치상황의 변화는 북한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분야에 변화를 초래하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체제의 등장은 과거 김일성의 정치중심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의 강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북한의 당·정기관과 행정·경제기관 및 각급 생산단위의 간부들에 있어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한 보답의 공식으로 「충실성+기술=보답」이라는 명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김정일이 실력배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간부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김정일은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일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대는 「충실성+기술=보답」 이것을 요구한다”며 간부들이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능력을 소유한 실력자가 될것을 요구 하였다(내외통신종합판(55), 보9347호, 1995.2.3 ; 111).

이는 세계 각 국가들이 과학기술과 정보화를 앞세워 국제교류를 증대하는 현 국제정세를 볼 때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할 경우 기술의 낙후와 경제적인 낙후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북한사회의 특수성은 정치가 사회 전분야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은 설득력이 강하다. 이러한 변화 또한 북한청소년의 생활과 인식구조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 북한 청소년조직의 목표와 활동 등도 최근들어 사상교육강화, 경제활동강화 등을 더욱 심화하기 시작하였다.

2) 북한경제의 변화

북한의 생산수단의 사회화는 개인의 소유욕구를 인정치 않고 물질적 이익마저 배제함으로써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참여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는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가재산의 낭비를 극대화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이 같은 모든 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북한경제는 현재 자생력을 완전히 상실한 파국상태에 직면해 있다. 난국에 직면해 있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의 폐쇄성, 명령경제체제의 모순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은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

를 도입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폐쇄를 유지하며 경제를 포기할 것인가, 폐쇄의 빗장을 열고 경제를 살릴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특히 김일성에 비해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 정권이 당면한 경제난국을 어떻게 처리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주민생활을 향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과 공업부문에 물질적인 자극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물질적인 자극방법으로 농업부문에서는 작업반 우대제나 혹은 분조관리방식을 도입하여 주어진 할당량을 초과달성할 경우 성과급을 주도록 하고 있다. 공업부문에서는 농업부문과 마찬가지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물질적 자극을 통한 생산성 제고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목적보다도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과중한 노동량을 계속 부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내외통신, 주간판947호, 95. 4. 6).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촉구하면서 대외적으로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5년도 들어서면서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발전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제분야에서 "전례없는 양양을 일으키기 위해 떨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1995년 5월 18일 중앙방송을 통해 '당창건50돌 구호'가 현재 노동당 앞에 나서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경제건설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방송은 북한이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이나 혼란에도 끄떡없이 경제발전에서 끊임없는 장성(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경제건설이 김일성의 유훈임을 내세워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단결을 요구했다(조선일보, 1995.5.19).

한편 1995년초 북한의 대외경제동향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방 선진제국들과의 경제협력은 제네바 미-북 핵합의서 채택(94.10.21)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핵 타결로 인한 성과는 1995년 1월 북한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원유 5만톤 공급과 더불어 1995년도 초에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미국으로의 수출길을 트는 것 그리고 서유럽 국가들과의 경제교류개시를 들 수 있다. 북한정권 수립이래 줄곧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던 미국과의 경제교류는 제네바 핵협상에서 합의된 미-북 기본합의문에 따라 미국이 1995년 1월 19일 취한 대북제재 완화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내외통신주간판948호, 95.4.13).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 나진, 선봉지구를 중심으로하는 경제특구를 건설하는 등 개방적인 경제정책을 차츰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나진, 선봉지구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을 타지역으로 소개함으로써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는 북한당국의 의지가 밝혀지기도 하고 있다(윤황, 1995 : 162-177).

3) 북한체제 변화의 요인

김정일 정권이 주체사상과 결합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노선을 벗어나 부분적이기는 하나 자본주의적 시장개방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대외적인 배경으로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5개국이 넘었던 사회주의국가들은 1990년을 기점으로 동구권의 붕괴와 구 소련의 해체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줄어 들어 현재에는 한 자리 숫자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합이 곧 정치체제의 경직성과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을 누적시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폭발로 체제변화를 초래했다는 데 있다.

특히 1989년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의 몰락, 1990년 동서독 통합에 따른 동독의 공산정권의 소멸, 1991년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이자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 소련의 해체 등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국가들의 붕괴는 오늘날 더 이상 사회주의 국가의 존재가 세계질서의 대세상 정치적, 경제적, 사상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공산 사회주의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베트남, 쿠바 등은 이미 정치체제상 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경제체제상 자본주의적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개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그 중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자본주의적 시장개방의 모델은 공산주의 일당독재체제의 유지와 시장형 계획경제의 개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모델을 시장개방의 선택적 모델로 채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주체사상과 자본주의적 시장개방의 결합관계를 시도

하게 된 것이다. 월진스키가 분류한 관료적 중앙집권모델, 선택적 분권화모델, 보완적 시장모델, 계량계획적 집권모델이라는 사회주의경제의 4가지 유형으로 보면(박문정 외, 1990 : 34-35) 중국과 베트남의 모델은 보완적 시장모델에 해당하고 아직도 북한은 관료적 중앙집권모델에 가깝다고 하겠다.

둘째, 대내적인 배경으로서, 북한에서 시도한 주체사상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결합은 민족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왜냐하면 주체사상과 자립적 민족경제와의 결합은 필연적으로 갈등상태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갈등관계는 공식적으로 통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강요와 실질적으로 소위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의 강행에서 나타나는 폐쇄체제의 결과로써 민족적 불평등의 미해결이라는 모순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민족적 불평등의 미해결이라는 모순은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에서 극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레닌·스탈린주의에 이론적 토대를 두고 민족적 불평등의 문제를 바라본다. 즉 북한은 민족적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 민족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보고서, 민족적 불평등을 낳는 실제적 기초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민족적 불평등의 실제적 기초가 민족들 사이에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낳게하는 나라의 경제적 낙후성에 있다(북한 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 1988 : 230)고 북한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 불평등을 없애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경우는 역사상 없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민족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본질적으로 민족적 불평등을 없애고,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느 국가나 민족도 아직까지 인간의 역사상 어떤 시대에서도 결코 민족적 불평등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북한식 사회주의혁명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서도 민족적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주체사상을 경제건설에 적용하기 위하여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계획경제인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은 결과적으로 폐쇄경제의 가속화로 인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도입에 한계를 가져왔고, 그 한계의 증가로 북한의 전체 산업부문에 걸쳐 생산시설의 노후화와 기술수준의 저하를 초래했다. 즉 북한경제가 1980년대 초부터 장장 10년 동안 장기침

체 국면 또는 단순재생산상태에 함몰된 결과로 인해 1990년부터 북한의 GNP 성장률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이고 있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 사실은 곧 주체사상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결합관계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재생산의 궤도 위에서 가속화된 하향운동을 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은 더 이상 주체사상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결합관계가 작동될 수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더 이상 주체사상은 북한인민들에게 정신적 및 물질적인 자극을 이끌어내어 높은 혁명적 열정이 유지되도록 효력을 계속 발휘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던져 주고 있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면, 이런 딜레마는 더욱 더 심각하다. 지금까지 북한정권은 항상 적의 개념을 분명하게 설정하여 ‘자본가 착취계급, 미제국주의, 남한내 반사회민주화세력’이란 적과 대치한 상태를 계속 창출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해왔다. 즉 북한정권은 자주와 자력갱생의 혁명사상이 없이는 장기간의 항일해방투쟁이나 독립 후의 항미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고, 주체사상이 없이는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을 추진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994년 10월에 타도의 대상인 미국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명분으로 기본합의문을 발표·조인하고, 지금에 와서 친미지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까닭을 북한 인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었다.

북한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주체사상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분리관계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 즉 북한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주체사상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변화를 부분적으로나마 수정하여 자본주의적 시장개방을 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정권을 친미지향과 대일접근에 의한 국제적 환경의 개선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족적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론바사상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해 필수적인 요건인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는 것에서도 모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정권은 대외적인 배경으로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결합관계의 실패로 인해 세계사회주의 국가가 감소했기 때문에, 대내적인 배경상 주체사상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결합관계가 민족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또한 국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개방적인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역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북한정권은 국제

정치적인 고립화와 국내 경제적인 파탄화를 벗어나기 위해서 주체사상과 자본주의적 시장개방의 결합관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조금씩 변해가면서 서구문화 유입, 배금주의 등장 등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북한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은 그에 따라가고 있는 경향이다. 북한청소년의 변화에 앞서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배금주의 확산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부의 축적은 자본주의의 병폐라고 주민들을 교육시켜 왔다. 이러한 북한사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인 부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보면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인 신의주의 경우에는 주부의 90% 이상이 각종 장사에 나서고 있다. 신의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에 나서는 까닭에 신의주 개혁동에 있는 「장마당」에는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여서 주민들은 이곳을 「홍콩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로부터 장사하러 나가는 것도 ‘홍콩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내외통신주간판 962호, 1995. 7. 20, G1). 문제는 삶의 방편으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벌이 자체로 나서는 경향도 있다는 점이다. 즉 배금주의가 북한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북한당국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을 ‘당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특수계층으로 행세하면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부정부패를 일삼은 데 있었다’면서 ‘사회주의 집권당이 간부들 속에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평양방송, 95. 1. 17). 북한당국은 현재 북한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당·정 관료들의 배금주의와 비리,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월권행위와 책임회피주의 등을 비판하는 논조들을 방송을 통해 내보내며 당사업 관철에서의 혁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사유재산제 등장

북한에서는 소비재 이외의 생산수단은 모두 국가소유이며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의 경우도 개인소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 귀순자 윤웅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에도 부분적으로 개인소유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독자들은 북한의 전체 가옥이 국가의 소유라고 생각했겠지만 다 그런것은 아니다. 일부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집은 지금도 개인 소유로 명기돼 있으며 그것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지난 93년 평양철도대학 재학 중 중국을 통해 북한을 탈출했던 윤웅(尹雄)은 수기 「북한의 지리여행」에서 북한의 산과 임야는 사회주의 특수성 때문에 모두 국가의 소유이지만 일부 주택은 개인 소유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윤웅은 이 책에서 “선조때부터 내려오는 집은 개인의 소유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개인은 그 집을 살거나 팔 수 있다”면서 “외국 친척이 외화를 부쳐주는 부유층, 개인장사로 돈을 모은 사람들, 중국화교들, 북한 고위층과 그 가족들은 일단 개인 소유의 집을 매입, 그 땅(대체로 1백-1백50평)에 다시 큰 기와집을 지어서 자기의 호사스러운 집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인주택 소유현상은 청진시, 함흥시, 원산시, 신의주시, 남포시 등지에서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 또 자기 소유의 집을 비싼 가격에 팔지 못해 안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윤웅은 구체적으로 함북 청진시 청암구역 역전동 이성용(56. 북송재일교포)씨의 예를 들어 “이성용이 20평도 안 되는 집에 살다가 일본 처가에서 돈을 많이 부쳐오자 청진시 한북판인 청암구역 역전동에 60평 대지를 매입, 그 자리에 있던 낡은 집을 허물고 60평짜리 대궐같은 집을 짓고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에서 어떻게 자가용 승용차가 존재하느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지만 “북한에는 자가용 승용차가 엄연히 존재하며 자가용 오토바이도 있다”고 전했다. 윤웅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승용차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난 80년대 들어서부터 외국거주 친척들이 송금해오는 외화와 역시 그들이 보내오는 자가용 승용차의 소유권을 승인하는 대신 송금의 경우 30-40%, 자가용의 경우 2-3대

부처오면 1대는 의무적으로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자가용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보내오는 승용차일지라도 6인승 이상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화물차나 상용차(승합차, 냉동차 등)는 개인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내의 자가용 승용차는 3천여 대 안팎이며 이는 북한 주민을 2천만명으로 볼 경우 7천명당 1대 꼴이어서 남한의 23명당 1대 꼴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윤웅은 지적했다(동아일보, 1995. 5. 19).

3) 서구문화의 유입

(1) 서구 광고의 등장

북한이 국제노동절(5월1일)을 기념해 이름 붙인 평양의 5.1경기장(능라도경기장)이 1995년 5월말 외국의 여느 경기장 모습과 마찬가지로 공개되었다. 5월 28일부터 열린 평양축전 행사를 위해 스탠드 상단에는 가로 세로 20×10m의 대형 컬러스크린이 설치되어 경기장펜스 등 곳곳에 사상 처음으로 외국기업들의 광고판이 들어섰다.

컬러스크린은 주석단(본부석) 바로 앞 특설링에서 치러질 레슬링경기를 관람객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정일의 지시로 새로 설치하는 것이라고 [평측] 준비위 사무국장인 김관철 북한국가체육위 부위원장이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와 가진 회견에서 밝혔다. 주석단 맞은편 스탠드 아래 경기장에는 특별 가설무대가 설치돼 개·폐막식과 경기가 쉬는 시간을 이용한 각종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 공연에는 일본가수들과 미국의 록그룹이 출연해 북한주민들은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서양음악을 들었다.

서방기업의 광고판은 경기장 뿐만 아니라 평양 순안공항, 대성산 공원 등에도 설치되었다. 경기장 펜스광고와 평양 시내 4~5개지역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 등 다양한데 사용료는 수만달러에서 수백만달러에 이른다. 북한은 이번 평측행사를 겨냥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국계 광고대행사를 통해 한국기업 광고섭외까지 벌였으나 우리 기업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 한국기업에 한해서는 회사이름은 광고에 적지 못하고 브랜드만 알릴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했던 신일본프로레슬링주식회사는 회장 안토니오 이노

키를 비롯해 27명의 남녀 프로레슬러(남자 23명, 여자 4명)와 일본의 가수 마즈무라 가즈코, 미국의 유마그룹 등 5개 공연팀을 출연시켰다. 여자 프로레슬러 중에는 세계대회를 위해 한국에 왔던 세계여자프로레슬링 챔피언 부르 나카노(일본)도 포함되어 있었다(조선일보, 1995. 4. 3).

(2) 코카콜라의 등장

역사적으로 코카콜라는 미국의 세계정책에서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해왔다. 미국이 국가관계를 개척할 때마다 정치·경제적 교류를 시도하기에 앞서 항상 코카콜라를 선봉에 내세워 왔던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미관계이다. 미국이 중국에 제일 처음 교류를 시작했을 때 들고 들어 갔던 것이 코카콜라이고 코카콜라는 현재 중국음료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청소년들이 코카콜라를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미국문화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코카콜라의 상륙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러한 미국의 청량음료의 상징인 코카콜라가 북한에서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등장했다(일본교도통신, 1995. 5. 27). 교도통신은 5월 28일부터의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스포츠문화제전' 개최와 관련해 주최측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책상 위에 코카콜라가 선보였다고 전했다. 북한에서 코카콜라가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이것이 처음으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코카콜라가 이번 평양스포츠문화제전의 스폰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기도 하였다(조선일보, 1995. 4. 27).

(3) 서구 스포츠의 등장

가. <프로 권투>

북한에서 최근 들어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로 프로권투가 떠오르고 있다. 1993년 4월 북한의 중앙TV가 [공화국 프로권투선수권대회] 개최사실을 보도하면서 처음 소개됐다. 아마출신 67명이 참가한 이 대회는 예선 4회전, 준결승 6회전, 결승 8회전으로 진행됐다. 각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링아나운서가 채점 상황을 발표했으며 라운드걸도 등장했다. 수영복 대신 한복을 입었다. 북한이 프로권투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일이 1987년경 “권투는 조

선사람의 기상을 보여 주는 좋은 종목”이라면서 “아마추어에서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앞으로는 프로의 국제 마당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데서 비롯됐다고 한다. 1992년 7월 7일 북한에 프로권투협회가 정식으로 발족했다. 만경대상체육대회 백두산상체육대회 등 일반체육대회에도 프로권투를 정식 종목으로 포함시켰으며 국내 타이틀매치도 수시로 갖고 있다. 프로선수는 60여 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 프로복싱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철수이다. 1992년 2월 23일 프로데뷔전을 가졌다. 아마시절 51kg급으로 뛰었으나 프로에서는 54kg급으로 한 체급 올렸다. 기대에 부응하듯 데뷔전에서 6회 TKO로 승리를 장식했다. 시합이 끝난 후 그는 기자회견에서 세계챔피언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철수가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1년쯤이다. 그해 11월 호주에서 열린 제 6회 아마복싱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부터이다. 헝가리 선수에게 패했으나 왼손잡이로서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공격전환이 빨라 대회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쿠바선수를 꺾고 아시아 선수로는 유일하게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각종 세계대회에서 우승해 아마복싱 51kg급의 강자자리를 굳혔다.

이를 계기로 북한 체육선수로는 최고의 영예인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았다. 아마전적이 200전 190승 10패인. 그는 고등중학교 4학년 때 처음 글러브를 끼었다. 개성시 관문군 과외체육학교에서 권투선수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아 정식으로 훈련을받기 시작했다. 운동선수로는 드물게 공부에도 열중, 김일성종합대학에 진학해 현재 이 대학 체육선수단(용남산체육선수단)에서 뛰고 있다 (조선일보, 1995. 4. 26).

나. <축구>

프로라는 명칭은 쓰지 않고 있으나 경기방식은 우리 프로축구와 흡사하다. [축구연맹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며 전년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8개팀을 선발해 팀당 56게임을 치러 우승을 가렸다. 2회째를 맞은 1995년에는 2월 15일 개막돼 김일성경기장 등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군소속인 4·25체육선수단을 비롯해 압록강체육선수단(사회

안전부), 기관차체육선수단(철도부), 평양시체육선수단, 이명수체육선수단(임업부), 월미도체육선수단, 자동차체육선수단, 체육대학선수단 등이 참가하였다. 7개의 여자팀도 참가해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다. <볼링>

북한에서 볼링경기는 1995년 2월 평양볼링관에서 첫 대회를 가졌다. 김일성의 볼링장 현지 지도 1주년을 맞아 열린 이 대회에는 전문선수 뿐만 아니라 수백명의 근로자와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1994년 1년간 7만5천여명이 볼링장을 찾는 등 볼링경기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라. <골프>

골프는 아직 북한 주민들에겐 생소하다. 고위 당정간부나 외교관, 관광객 등이 주로 이용한다. 북한 최초이자 유일의 골프장은 87년 김일성의 75회 생일 기념으로 조총련 상공인들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남포 인근 태성호 북쪽기슭에 위치한 [평양골프장]이다. 89년 사망한 남한출신의 망명자 최덕신이 운영을 맡았다. 평양 청춘거리에는 90년 개장한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다.

마. <프로레슬링>

1995년 5월 28, 29일 이틀간 평양 [5.1경기장]에서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프로레슬링 경기가 벌어졌다. 이를 대비해 북한방송은 지난해말부터 프로레슬링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레슬링은 북한에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다. 비디오로 레슬링경기를 본 사람이 적지 않다. 김정일이 레슬링을 좋아해 외국에서 비디오테이프를 들여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역도산(함남 홍원 출신) 관련 자료들이 방영되면서 레슬링이 일반 주민들에게도 알려졌다. 5월 28일부터 열렸던 평양축전의 메인 이벤트는 프로레슬링경기이었다. 홍행성과 오락성이 강한 자본주의 스포츠가 또 하나 북한에 상륙한 것이다.

북한이 자본주의 색채가 강한 스포츠를 도입하거나 프로스포츠를 장려하고 있는 데에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개방과 변화의 이미지를 과시하며 대내적으로는 주민 위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다. 여기에다 비디오 등을 통해 외국 스포츠를 즐기는 김정일의 취향

도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 이유야 어디있든 북한주민들은 즐겁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에 환호한다. 김일성 사망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효과가 있다. 김정일은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애쓴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다. 달라지고 있는 북한 스포츠의 면모를 정리한다(조선일보, 1995. 4. 26).

(4) 북한 주민들의 직업관 변모

북한주민들의 직업관이 조금씩 변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직도 많은 북한주민들은 당원이나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면서도 과거에는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기업체 근무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체에 근무할 경우 물품을 쉽게 구입할수 있는 이점 등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합영회사」는 최고의 인기직장으로까지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월급은 일반 기업체와 비슷하지만 「합영회사」는 사업에 성과가 있을 때마다 5달러에 상응하는 「외화와 바꾼 돈표 또는 물품을 보너스로 주고 있고, 회사자체의 식당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고」, 매주 1일의 휴가가 보장돼 있으며, 각종 정치성 집회의 횟수가 적다는 점 때문에 매력있는 직장으로 선호되고 있다(내외통신 주간판 951호 1995. 5. 4).

(5) 도시화

북한은 최근 평양주민 1백여만명을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그 동안 평양을 「혁명의 도시」로 가꾸기 위해 인구를 2백만명 선으로 억제해 왔으나 지방과의 생활격차로 인해 평양집중현상이 빚어져 평양인구는 최근 3백50만명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일 『평양축전등에 참석한 관광객·해외교포 등으로부터 정보를 취합한 결과 평양주민 1백여만명을 지방이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주대상은 일부 기관과 기업소외에 대부분 성분불량자와 농촌연고자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김정일정권 출범을 앞두고 주민성분 재조사를 통해 위해분자를 색출, 격리시켜 체제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유사시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강제이주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북한당국은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인구를 현재 20만명에서 1백만명으로 확대조

성하는 한편 경제난 타결을 위한 산업인력 재배치, 도시 비대화에 따른 문제의 사전차단, 인력동원을 통한 적기영농대처 등을 강제이주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위당국자는 『특혜를 누려온 평양주민들이 지방전출을 감옥행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으며 남편이 농촌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주대상이 된 경우 여자들이 이혼을 요구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강제이주 도시인들이 관계 일꾼을 집단폭행하고 시설물을 파괴하는 등 불평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있는 실정』이라며 『대규모 지방이주가 기대하는 성과보다 북한체제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동아일보, 1995. 6. 1).

2절 변화의 한계점

1. 내부체제의 한계점

북한사회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상황도 동시에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으나 북한사회가 일방적 정치적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그 한계점은 크다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주체사상과 자본주의적 시장개방과는 결합할 수 없는 ‘불’과 ‘물’의 관계이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는 생존하기 힘들고, 역으로 자본주의가 없는 민주주의도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구 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붕괴에서 입증되었듯이 역사적 경험에 의해 본질적으로 평가가 된 해답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모델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이런 모델들은 체제변화가 하나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역사적 경험의 검증을 남겨 두고 있으므로 현재 속단하기란 어렵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관계는 과거 2세기 동안 역사적인 경험으로 검증되었지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관계는 고작 1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합관계에 있어서의 한계점을 주관적 조건과 객관적 조건으로 분류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윤황, 1995 : 162-177 참조).

첫째, 주관적인 한계점으로 북한인민들과 청소년들의 높은 정치의식화 요인

을 들 수 있다. 폐쇄사회에서 공산당 일당체제의 억압과 착취를 받으면서 주체사상에 함몰된 북한주민들은 주체사상과 자본주의적 시장개방의 결합관계로 인해 자본주의적 요소가 침투한 시장개방의 경제개혁에 따라 아래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정치민주화에 대한 요구과정에서 주체사상의 허위 이데올로기의 폭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대두될 것이다.

① 북한인민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생활수준의 욕구증가와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계에 있어서의 성장속도에 만족하지 않고 높은 생활향상을 열망하게 될 것이다.

② 북한인민들은 시장개방에 따른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계급과 계급간의 격차 등에 대한 해결을 열망할 것이다.

③ 북한인민들은 시장개방에 따라 다양한 정보접촉으로 인해 남북한간의 경제격차에 회의감을 느껴 김정일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을 나타낼 것이다.

④ 북한인민들은 정치개혁이 경제개혁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할 것이다.

둘째, 객관적인 한계점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제개혁의 물질적인 요인을 말한다. 객관적인 한계점이란 주체사상과 자본주의적 결합관계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개방이 사회경제체제의 완전한 파괴 이후 나타나는 물질적, 제도적인 변화조건을 말한다.

① 생산수단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소유관계가 변화한다.

② 외국과의 무역관계의 증진으로 국내의 제도개혁이 불가피하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

③ 개인이 자본주의적 기업의 생산현장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이윤추구가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④ 이른바 기술, 사상, 문화의 3대혁명운동이라는 사회운동체제를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어 동원체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2. 개방의 한계점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은 서방세계와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자본주의

국가와의 경제협력 및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최근 개방움직임은 과거의 폐쇄체제를 대외적으로 완전히 개방하는 정책노선의 전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그같은 일련의 개방 조치들은 경제난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경제적 동기에만 집착함으로써 쌍방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를 정책적으로 봉쇄, 서방세계와의 정상적 외교관계와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개방정책의 편중성은 대외적으로 경제협력사업을 허용한 라진-선봉지역에 이른바 성분이 좋은 주민들을 선별, 입주시키고 일대에 철조망을 가설, 이 곳을 「비자유경제무역지대」로 제한시킨 데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개방의지를 과시, 선전하기 위한 평양 「체육문화행사」(1995년 4월 28~30일)에서 한국의 실향민과 해외동포 관광단의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것도 북한의 개방정책이 한낱 제스처에 불과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많은 기술인력의 왕래와 교류가 기대되는 「한국형」 경수로 거부 의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사회주의가 좌절된 원인이 제국주의의 분열책동에 보조를 맞춘 현대 수정주의의 책동에 있다고 규정, 여전히 교조적인 「사상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개방·개혁노선을 「평화적 이행」 전략으로 강력히 비판, 거부해 오고 있다(내외통신주간판 950호, 1995. 4. 27). 그러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은 「1개중심, 2개기본점」을 기본 정책노선으로 설정, 「사상우선」 대신 「경제건설」에 최우선적 비중을 두면서 개방·개혁노선을 추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95년 4월 24일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물질적 조건이나 정세변화가 아니라 대중을 사상적으로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중앙방송은 혁명수행 문제와 관련,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혁명의 주체(수령-당-대중의 통일체)를 어떻게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대중에 대한 「사상적 각성」을 촉구했다. 이어 혁명운동에서는 물질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조건, 내외적 환경과 정세를 비롯해 「객관적 조건」도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면서 그러나 『객

관적 조건을 이용하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튼튼히 준비되지 못하면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가 붕괴된 국가들을 거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 나가지 못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내외통신 9470호, 1995. 4. 26 1편).

북한은 개방정책을 추구하면서도 외부로부터 밀려 드는 충격을 막아내기 위해 특히 청소년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비난과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회화 시키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자본주의로 복귀한 구 공산권 국가들의 주민생활난 등 일부 사회문제를 극한적으로 부각, 북한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를 버리면 죽음"이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 고수'를 역설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방송은 1995년 6월 13일 최근 구 공산권을 다녀왔다는 한 대학교원의 체험담을 통해 이들 국가에서는 "거리마다 동냥하는 거지가 수두룩하고 살인강도가 성행하여 마음놓고 다닐 수도 없다", "그야말로 무질서·무정부상태가 조성되어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앙방송은 또 이들 국가에서는 재능있는 과학자들도 "자본주의 복귀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쫓겨났다"면서 "사회주의를 버린 값비싼 대가"라고 경고했다(조선일보, 1995. 6. 14).

한편 북한은 사적 소유제도는 「반인민적 소유제도」라면서 사유재산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북한의 당기관지 노동신문은 「사적 소유제도의 반동성은 가리울 수 없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제국주의자들이 사적 소유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고 자본주의화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사적 소유제도의 「반동성」에 언급하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며,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사회악을 낳는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사유재산제도가 근로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동성을 가리워 보려는 술책』이라고 부인하면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부작용」만을 집중적으로 선전했다. 노동신문은 특히 사적 소유제도는 사람들을 집단주의 정신에서 벗어나 이기주의자로 전락시키게 마련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제도의 「우월성」을 거론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반동성을 감추고 그에 대한 환상을 조

성하려는 책동』이라고 주장했다(내외통신 9446호, 1995. 4. 11 1편).

3. 체제위협의 요인

1) 식량난 심각화

북한은 오랫동안 부족식량 및 석유의 최대공급원이던 중국마저 1995년도 들어 식량난을 겪게 되자 곡물의 국외수출을 일체 금지하고 경화결제를 요구하며 대북송유를 중단하면서 북한은 1995년 봄이래 사상최악의 식량및 유류난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군대의 비상물자를 민용으로 풀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주재 서방관측통들은 1995년 들어 북한-중국 접경지역의 북한탈출자는 매월 평균 1994년의 두배가 넘는 1백20명선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중엔 굶주림과 전쟁공포 때문에 도망나온 군인이 특히 많다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또 북한 탈출자들을 직간접으로 접촉해 본 결과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심각한 식량 유류난과 이로 인한 탈영사고 등은 군부에 극단적인 위기감을 조성, 핵문제등 대남및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결전불사의 군부장경론이 우세화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동아일보, 1995. 5. 28).

북한은 연초 중국이 지난 해 남방수해와 북방한해로 수확이 크게 감소해 쌀, 콩 밀옥수수 등의 대외수출을 일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후 그 동안 태국, 대만, 호주 등을 상대로 꾸준히 곡물수입 교섭을 벌여 왔으나 기존부채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자 한국과 일본정부에 긴급식량원조를 요청하여 식량원조를 받았다. 이와 관련, 북경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인 북한이 평양축전이라는 무리수를 쓴 직후부터 군대 비축미와 기름에 손을 댄 구체적 흔적이 포착되기 시작했다』며 『북한의 현재 식량난은 그 동안 서방에서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사정에 밝은 북경의 다른 소식통은 『올들어 매월 평균 1백20명선에 이르는 북한탈출자중 80%가 군인이며 북한-중국 국경지대에 주둔하는 북한군 병사들의 40%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며 『북한이 조속히 식량문제를 해결치 못할 경우 군영내의 배고픔이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가 최대의 관측대상』이라고 말했다(동아일보, 1995. 5. 28). 이러한 식량난의 급증과 탈주자의 급증은 북한체

제유지에 결정적인 위협의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2) 사회부조리 증대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외부소식과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조금씩 유입되면서 북한사회에는 사회변화와 더불어 부패현상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앞서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배금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부조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북한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를 모방하는 사례로 증대하고 있다. 그 몇 가지 사례들을 항목별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경밀무역 증대

북한 「국경근무자」들의 부조리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부조리는 중국과 접경지역에서의 밀무역 가담이다. 밀무역에의 가담은 대개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번째는 친척방문을 구실로 북한에 들어오는 중국 거주 동포상인들로부터 편의제공을 구실로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세관통과 때 들여오는 물품의 양이 규정을 초과해도 눈을 감아주고 돈을 뜯어 내는 방법인데 1회에 갈취하는 돈은 대략 북한돈으로 2천원에서 5천원까지이다. 두번째는 북한주민들의 불법적인 압록강, 두만강 도강을 눈감아 주고 돈을 받는 방법이다. 이 때에는 1회에 보통 북한돈으로 5천원 정도를 받고 있다. 세번째는 자신들이 직접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물품을 사가지고 들여와 밀거래자들에게 넘겨주는 방법이다. 이 세번째 방법은 돈은 많이 남지만 위험부담이 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밀무역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산 농수산물 또는 골동품을 중국 현지에서 팔고 그 판매대금으로 중국의 공산품을 사들여와 북한에서 판매하는 것이 첫번째이며 이 때의 이익금은 통상 8~10배 정도이다(내외통신주간판 950호, 1995. 4. 27). 또 한가지는 중국돈(인민폐)을 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와 이른바 「환치기」를 하는 방법이다. 북한에서는 중국돈 1원이 공식적으로는 북한돈으로 1원50전에 해당하고 있으나 북한화폐의 가치하락으로 암시장에서는 통상 10배 정도, 즉 중국돈 1원이 북한돈 1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국경근무자」들이 밀무역에 가담함에 따라 이를 관장하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특히 경비대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근무지 이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계급간 대열조정」으로 불리우는 이 근무조 이동은 6개월마다 중대 내 근무초소를 바꾸고, 3~5년 경과 때에는 대대 내 다른 중대로 소속을 바꿔 전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경비대원들의 밀무역 가담은 김정일에게도 보고될 만큼 심각한 상태이고, 이에 대해 김정일도 『국경군인들이 왜 중국상인들과 대화하면서 밀수를 하는 지 모르겠다』는 말과 함께 밀무역에 가담치 말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내외통신주간판 950호, 1995. 4. 27).

(2) 교사들의 부조리

북한의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에서 「잡부금」 문제에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같은 「잡부금」 문제는 고등중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이라는 북한의 선전이 사실상 거짓임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북한 각급 학교의 잡부금 징수 형태는 크게 5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은 이론바 각 개인에게 할당된 「꼬마계획」 목표 미달자들에게 미달액 만큼의 현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꼬마계획」은 토끼 기르기·나물캐기·파지 및 고철수집 등을 일컫고 여기서 목표량에 미달할 때 징수하는 금액은 통상 매월 2원(북한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명분으로 이같은 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수시로 돈을 징수하는 것이다. 이 때에는 학생 1인당 평균 10원~15원 정도를 걷고 있다. 세번째는 신학기 때마다 교실미화 등을 내세워 비품이나 돈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다. 네번째는 졸업 때 학교에 「기념품」을 남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각 개인에게 돈을 걷는 것이다(내외통신주간판 954호, 1995. 5. 24). 이 때에는 통상 각 개인에게 30원 정도 걷고 있다. 마지막은 건설현장 또는 농촌을 지원한다는 구실로 돈을 걷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돈 외에도 시멘트·술·담배 등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각급 학교의 잡부금 징수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북한 각 가정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관

계당국에서는 잡부금징수를 묵인해 주던 정책에서 최근에는 규제쪽으로 선회, 『학생 및 학부형들로부터 잡부금 및 물품을 징수하는 행위는 당과 인민을 이간시키는 일이므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양하고 해당자는 처벌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기도 했다.

북한 각급 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잡부금을 제때에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대개 『학교에 열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는 상급학교는 어렵도 없다』는 식으로 헐박, 목표액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같은 현상은 탁아소에까지 번져 탁아소 보모들도 뇌물을 주지 않는 아동들은 눈에 띠게 차별대우를 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무자식이 상팔자다』, 『우리 공화국은 산아제한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다(내외통신 주간판 954호, 1995. 5. 24).

(3) 간부들의 부패

북한의 로동신문은 당의 영도력 강화를 촉구하는 논설을 통해 “관료주의를 부리면 그것이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간부들의 횡포와 월권, 무사안일주의가 병폐로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로동신문은 이어 간부들이 「당정책의 집행자」임을 상기시키면서 이들이 관료주의에 물젖고 부정부패를 일삼을 경우 당과 대중간에 신뢰가 약화되고 괴리감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그동안 간부들에게 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해 왔으며 세도와 관료주의를 추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히면서 「정춘실따라배우기운동」이 이 같은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로동신문은 전했다.

(4) 사회범죄의 증가

북한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함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자들의 증언을 보면 함흥이 북한 최고의 범죄 다발지역이 된 것은 크게 3가지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는 식량사정이 북한에서 가장 좋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밀도에 비해 농경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주민들간의 빈부격차가 심한 탓이다. 비교적 여유있는 계층인 화교나 재일동

포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 주민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위화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함흥이 북한 동북부의 교통요충지라는 점이다. 북한 동북부를 왕래하는 대부분의 열차들이 이곳을 통과하고 있어 외지 사람들의 출입이 많다는 것이다. 함흥에서의 범죄 발생건수는 구체적인 통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강도·소매치기·깡패 등에 의한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일어날 정도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내외통신주간판955호, 1995. 6. 1).

이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함흥 통과가 제일 힘들다. 이곳만 넘어가면 더 이상 잃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할 정도이다. 또 함흥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수법도 매우 다양, 다른 곳의 범죄꾼들이 원정 와서 배워갈 정도라는 것이다. 외화벌이 종사자나 재일동포들을 점찍어 상담을 핑계로 유인해서 수면제를 타서 먹인 다음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 가장 대표적이다. 주로 당·정·군 고위간부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침대칸에서 말을 붙인 뒤 미리 준비한 마취제로 부분마취를 시킨 다음 돈을 빼앗는 수법도 함흥의 범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부분마취는 고무튜브에 분말 마취제를 넣어 코를 향해 뿜어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 열려진 창문 사이로 차창 밖에서 돈이 들어있는 옷저고리를 낚아채는 수법은 이미 「고전」에 속하고 있다. 함흥역 앞에서는 이의 「부산물」로 버려진 당원 신분증만 해도 하루에 5~6개 정도나 발견되고 있다.

이 같은 범죄의 성행으로 함흥에는 북한내 각 범죄의 「1인자」들이 집결해 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마리」·「하꼬범이」·「행사」·「빵다이」등이 그들이다. 물론 본명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27세 가량의 「거마리」는 재일동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로 원정을 가서 소매치기를 할 정도로 유명한 날치기범이다. 복면강도로 악명 높은 범법자들은 범행과정에서 때로는 「국가기밀문건」에까지 손을대 중국과 러시아의 범죄조직에 팔아 넘기고 있어 관계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내외통신주간판955호, 1995. 6. 1).

(5) 불법유통 확산

북한주민들이 중국교포와 「가짜친척」관계를 맺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연변 조선족 상인들에 의하면 최근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보따리 장사꾼들의 절반 정도가 북한주민들과 가짜친척 관계를 형성, 상호 도움을 주고

받고 있다. 북한주민들과 중국교포 보따리 장사꾼들이 서로 가짜 친척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중국 연변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보따리 장사차 북한을 방문하려 하면 반드시 북한에 거주하는 친척이 있어야만 중국당국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북한주민들은 중국 교포상인들이 방북시 자신들이 먹을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식량을 가져와 장사를 끝내고 돌아갈 때 남는 식량을 주고 가는데다 이들이 가지고 들어온 각종 생활필수품을 보다 값싸게 얻을 수 있어 가짜 친척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교포들과 가짜친척 관계를 맺어 놓을 경우 외화벌이 사업차 중국으로 밀입국할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북한주민들이 중국 교포상인들과 가짜친척 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일부 주민들이 중국교포들과 짜고서 허위로 친척관계를 맺고서 방북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또 탈북수단으로도 이용함에 따라 북한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발된 자에 대해 「입당」 제한 및 강제노역 처분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과 「국경통행에 관한 협정」을 맺고서 중국거주 교포나 중국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시 5촌 이내의 친척이 북한에 거주하면 비자없이 「국경통행증」만으로 연1회 15~30일간 북한을 다녀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중국 교포 보따리 장사꾼들과 일부 북한주민들이 이를 이용, 장사 및 탈북 수단으로 이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내외통신주간판 948호, 1995. 4. 13). 다음은 중국연변대학 허명철 교수의 증언이다.

“언젠가 북한에서는 중국으로 탈출해 온 사람을 잡기만 하면 온 가족을 죽인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서관에서는 한 가족이 잡혀 갔는데 어른들은 철사로 코를 꿰매고 애들은 손을 꿰매여 끌고 가더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문은 한 가지 사실을 연상시켰다. 어느 한번 두만강변에 있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마침 강물에 빠졌다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구조된 20세 가량되어 보이는 북한 처녀애를 보게 되었다. 그 애는 의식을 회복하자 첫마디로 자기를 돌려보내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원인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정말 가엾었다. 결국 사흘후에 그녀는 끝내 북한에 돌아가게 되었다. 과연 이들은 돌아가면 무차별적으로 죽음을 당하는가. 이런 의혹이 들 때가 많았다. 그 후 하

루는 용정현 간수소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북한에 아무개라는 친척이 있느냐 하는 확인 전화였다. 영문도 모른채 전화를 받고 나서 무슨 일이나고 알아 봤더니 북한에 있는 친척집 아들이 가만히 중국에 건너 왔다가 잡혀다는 것이었다. 원래 그 애는 군복무를 나이가 되어 부대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원체 몸이 허약한지라 군복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두만강을 건너 가만히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부근 마을에 들어가 밥 한끼 얻어 먹었는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중국 경찰소에 제보를 하여 결국 잡히게 된 것이다. 모두들 그 쪽 형편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라 애를 돌려 보내지 말고 이곳 친척집에 있게하면 안되겠느냐고 가능한 방안을 토론했지만 가만히 월경했고 또 제보에 의해 잡힌 사람이라 이미 성정부에 서류가 올라가 있기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우리들이 그 애를 도울수 있는 것은 단지 간수소에 자주 만나러 가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며 구속기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보름 이상 연장시킬 수 없어서 40일 정도 지나자 그 애는 끝내 돌아가게 되었다. 그 때 친척 모두가 저 애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중국으로 도망왔다가 잡히면 무조건 죽는다는 소문이 많이 나돌았고 또 그 애는 병역기피 때문에 중국으로 건너 왔기에 더욱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어느날 갑자기 그 애한테서 편지가 왔었는데 자기는 지금 탄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사회에서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부조리, 청소년 비행, 성범죄, 밀입국 등 각종 사회문제는 후기동원단계에서 분출되고 있는 내부로부터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에 의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외부로부터의 경제개혁과 개방의 압력과 외래문화 유입에 의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불평등과 소외의 주제를 통해 자본주의체제의 사회문제를 비판하고 분석해 온 논리는 사회주의체제하에서도 불평등과 인간관계의 소외가 지속되는 한 사회주의체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련의 사회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6) 부조리현상 빚댄 유머 유행

북한에서 사회의 각종 부조리 또는 생활의 어려움을 빚댄 유머가 유행하고

있다. 이 유머들은 주민들 사이에서 스스럼없이 회자돼 이제는 거의 모든 주민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표적인 것 몇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내외통신주간판 947호, 1995. 4. 6).

가. <식량난에 따른 가족간의 식사다툼 관련>

1일 7백의 식량을 받는 아버지와 3백을 받는 무직의 어머니, 5백을 받는 아들이 있었다. 이들 가족은 식사 때 가장인 아버지에게는 별도의 그릇에 밥을 담아 주고 모자는 한 그릇에 담아서 함께 먹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모두 한 그릇에 담아서 먹자고 했다. 감격한 어머니와 아들은 다음날 함께 밥을 먹게 되었다. 그런데 조용히 식사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3백 그만!』 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뒤로 물러났다. 이때 불안해진 아들이 급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5백 그만!』, 그리고는 혼자 계속 밥을 먹는 것이었다.

나. <식량공급 지연에 따른 불안감 관련>

어느 식당에 「포크와 칼」(당간부 지칭)로 무장한 깡패들이 침범하였다. 그들은 포크와 칼을 사용하여 식당에 있던 빵을 모두 먹어 치우고 떠나갔다. 「접시와 그릇과 숟가락」(가족들을 지칭)은 그나마 겨우 마련했던 빵을 빼앗긴데 대해 분통을 터뜨리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였다. 결론은 쉽게 나왔다. 모두 다음 식량이 들어올 때까지 15일간(식량배급 주기)의 농성투쟁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다. <안전원의 전횡 등 부정부패 관련>

어느 장마당 귀퉁이에서 세명의 노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중 한 노인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듯이 자랑스러운 말투로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쏘았다면서?』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노인이 『뭘, 안전원이 이등판매원을 쏘았다고?』라며 놀라는 것이었다. 나머지 한 노인이 말을 받았다. 『또 돈을 혼자 떼어 먹었구먼』.

4. 사회주의 사회문제의 제 요인

1) 사회주의 사회문제의 단계적 특징

코엔(Cohen)과 샤피로(Schapiro)는 기존의 공산권에 대한 연구물들이 공산정권의 안정성과 제도화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체제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외면하는 경향이 강하였음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였다(J. Cohen and J.P. Schapiro ed., 1974 : 27).

사회주의자들에게 있어 사회문제는 계급간의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직접적인 갈등상황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의 사회주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의 부족은 이러한 갈등상황이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 관한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하는데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에도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문제는 경제적 이해갈등에서부터 도덕적 가치갈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선상에 사회문제를 배열시킬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이념형으로서 비록 모든 사회문제가 경제적 이해갈등 및 도덕적 가치갈등 모두를 포함하더라도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연속선상의 어느 한쪽 끝에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극단적으로 분석하면 경제적 이해를 내포하는 사회갈등의 산물과 사회의 윤리적 가치체계와의 갈등의 산물로 구분할 수 있다(오정수, 1990 : 361).

사회주의 사회체제의 변동과정에서 혁명후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적 계급갈등에서 분출되는 이슈가 사회문제로 부각되며, 사회주의체제의 기초가 형성된 이후에는 산업화에 의한 사회문제와 사회주의적 가치와 규범과 괴리된 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나타나게 된다. 각종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사회부조리 등 반사회적 일탈행동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는 초기 단계를 벗어나 후기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에서의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도 이미 사회주의혁명 초기단계는 지났으며 사회주의 가치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회체제의 변동과 사회문제는 상호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변동이란 로스토우(Rostow)가 말한 바와 같이 마르크스 이후 공산주

의 이론의 핵심적인 주제이며 1840년대의 공산당 연맹의 결성에서부터 오늘날의 다양한 공산주의체제로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사회의 주요 특징이었다(Chalmers Johnson, 1970 : 785).

첫째, 체제 형성단계에서는 계급 없는 사회건설이란 목표 문화가 사회변동의 정향을 이루며, 생산관계와 계급구조와 경제사회 환경속에서 경제적·계급적 갈등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가 된다. 둘째, 동원단계에서는 목표문화에 비해 산업화의 전이문화가 강조되며 계획경제와 중공업 우선의 발전전략, 사회통제의 강화라는 경제사회 환경에서 산업화에 따른 욕구불만의 갈등이 주요 사회문제로 나타난다. 셋째, 후기 동원단계에서는 발전상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사회변동 정향의 조정이 일어나며 균형발전전략, 소비재 생산 강조, 사회통제의 점진적 완화 속에서 체제내적 공산주의윤리, 가치체계와의 갈등의 사회문제가 점차 부각되어 나타난다(오정수, 1990 : 362-363).

2) 북한사회의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1) 동원단계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북한의 동원단계에서는 산업발전이란 전이문화 목표가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던 시기이었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동원체제의 특징은 물질적 유인의 결여와 사회통제의 강화 등 전체주의적 지배유형으로 나타났다(이용필, 1982 : 260-7).

동원단계의 북한의 사회문제는 산업발전이라는 전이문화 목표중심의 사회변동 정향과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 시기에는 사회주의적 산업발전의 요구에 따른 제반 사회정책적 조치도 이루어졌지만 사회정책에 의한 물질적 유인보다는 오히려 소비절약과 사상통제의 강화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강조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상황은 대중의 내핍생활과 만성적인 소비재 공급부족을 초래하였으며 각종 경제관계 범죄와 사회부조리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절도, 강도, 횡령, 사기, 암거래, 품귀 상품 부정유통, 정량미달 출고, 감량 판매, 부정 계량기 사용 등이 이에 속하는 사회현상이다(오정수, 1990 : 368).

북한사회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조치 이후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도가 철폐되고 개인의 기업과 상업활동이 금지되었지만 물질적인 소유욕마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내핍생활의 압박과 기본적 의식주의 필요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적 일탈행동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해서 이 시기의 주요 사회적 일탈현상으로 강도, 절도, 횡령 등 각종 경제범죄가 발생하였다. 경제관계 범죄의 경우 물품과 금전을 취급하고 있는 경리담당원, 매점원, 배급 및 수매 사업소 종사원이나 단체의 간부들에 의해 이루어 졌다. 협동농장과 공산품상점에서의 절도사건, 백화점 판매원의 횡령사건, 자동차사업소 선반공의 암거래 사건, 각종 뇌물사건 등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경제관계 범죄의 사례로 보고되었다(북한연구소, 1983 : 918-9).

그리고 여성노동력의 급속한 사회진출 증가에 따라 성범죄 등 인신침해의 사회문제가 증가하였던 것도 이 단계의 사회변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의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강간, 간음, 간통, 낙태, 폭행 등 인신침해 범죄가 증가하였으며 성범죄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성범죄가 증가하였던 것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증대와 함께 연애·혼인에 대한 당과 조직의 통제, 부자유스러운 남녀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유석렬, 1987 : 78).

(2) 후기동원단계

1980년 이후 북한사회에는 경공업과 소비생활의 향상이 다음과 같은 지침에서 나타나듯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1980년대에 우리 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24).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추진되는 제 3차 7개년계획에서도 그 기본 과업을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추진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생산력 발전을 통하여 주민들의 ‘식·의·주’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생활수준을 한단계 더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오정수, 1990 : 370).

후기 동원단계에서 북한사회의 사회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요인으로서 이상과 같은 체제발전의 정향 변화에 따른 물질생활 향상에 대한 사

회적 욕구 증대의 대내적 요인과 함께 대외적 요인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동구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체제 개혁의 물결과 특히 근접해 있는 소련과 중국의 경제개혁은 북한체제의 개방을 직·간접으로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외래사조가 유입될 수 있는 각종 요인이 점증하고 있다. 특히 한·만 국경지역 주민들은 중국, 러시아와 왕래하며 이들 국외 환경 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국의 현대화 추진과 미·일 등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문호개방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그들 체제와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후기 동원단계의 북한사회는 위와 같은 사회변동의 정향 변화와 체제개방과 사회통제 완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의 압력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개혁과 개방을 유보하고 있는 폐쇄적인 사회체제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추세와 보수적인 사회구조적 성격의 모순으로 북한 청소년들의 반사회적·비윤리적 사회문제와 각종 일탈행동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구조 및 윤리·가치체계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사회문제의 유형으로는 반사회적 부조리, 청소년 비행, 성범죄, 매음, 밀출입국, 밀무역 등이 포함되고 있다. 반사회적 부조리의 실상에 관하여 이미 1980년 10월에 개최된 제 6차 당대회의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고되고 있다(내외통신종합판 제 29권 : 368).

“우리 내부에 숨어있던 적대계급·잔여분자들과 반혁명분자들이 경제건설을 파괴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허물어 보려고 필사적으로 반항해 나서고 있다 …… 우리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날을 날카롭게 세워 반혁명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우리 혁명의 계급적 승리를 다지는데 주되는 힘을 넣었다”

이러한 언급은 당과 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의식과 행동의 존재를 시사한 것으로 당·정간부들의 부조리의 근무 태만이 만연하고 있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일반 주민들은 사회제도와 당에 대한 반발로 각종 은어 등을 통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통제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욕구로서 분출되고 있는 북한사회의 은어들은 반체제적이고 저항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의 실상의 단면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3절 북한청소년의 변화

1. 북한청소년변화의 유형

최근 북한청소년들의 사상관과 도덕관이 급속히 변질되어가고 있다. 북한당국의 세뇌교육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맹목적으로 신봉해 왔던 주체사상과 김정일 가계 우상화교육에 회의감을 나타내고 비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사상관과 도덕관이 급격히 변질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평양서 개최된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부터 이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이 행사에 참가한 세계 각국 청년학생들의 자유스런 몸짓과 복장은 하나의 「충격」이었으며, 자신들의 모습과 북한의 현실을 뒤돌아 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내외통신 964호, D1).

이미 1980년 중반 이후 북한사회 내에는 자본주의적 문화형태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중에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공식적으로 바뀐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 청소년문화가 이질적인 외부문화와의 접촉에서 비롯된 변화의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북한당국은 자본주의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북한의 현실은 자본주의 요소가 서서히 침습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9년 평양축전 때에는 외부세계의 청소년들이 지닌 신선함과 자유분방함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해외유학생들의 경험과 중국 교포들의 북한방문은 이질적 정보가 유입되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당국이 바라는 이상적 상을 구현하는 방향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도홍렬, 1994 : 157).

북한에서 일고 있는 패션의 변화, 레저스포츠의 허용, 자전거의 사용, 전자경음악단의 경쾌한 리듬 등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북한 언론에서는 북한청소년들의 사상적 이완과 무사안일, 개인주의적 생활태도에 대한 비판기사가 증가되고 이에 대한 경고 또한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북한 청소년문화의 변화방향이 북한 지배층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의 비판의식과 저항의식은 어느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경우, 이는 바로 체제적 위기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사례들을 보

면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와의 접촉

북한주민들 사이에 한국문화 유입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한국가요 테이프의 암거래가 늘어나고 속칭 「고스톱」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현상이다. 한국가요 테이프는 주로 외화벌이 종사자, 보따리 장사 등을 통해 중국의 연변지방에서 들어 가고 있는데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는 한국노래 테이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능력있는 사람」으로 평가 받아 최근에는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한국노래 테이프를 구입하려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한국노래 테이프는 북한에서는 가지고만 있어도 「반 국가사범」으로 몰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 주민들은 대부분 국가보위부원들의 불시 검열에 대비, 테이프 앞 뒷면 처음과 끝은 북한노래를 수록하고 중간부분에 한국가요를 집어 넣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속칭 「고스톱」은 90년대 초 재일조총련을 통해 들어가 처음에는 당·정·군 고위 간부층과 대남공작 담당자들 정도만 은밀히 즐겼는데 최근에는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 더 성행하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투는 한복에 3백원에 밀매되고 있고 「고스톱 인구」는 전체의 약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내외통신주간판 954, 1995. 5. 25).

한국의 가요의 확산에 따라 대남가치관도 변화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북한청소년들이 최근 즐겨 부르는 한국의 대중가요는 「낙화유수」·「홍도야 울지마라」·「그때 그사람」·「바람바람바람」·「사랑의 미로」등이다. 이노래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대남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작한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국의 대중가요로서 북한청소년들 사이에 널리 불려지고 있다. 북한청소년 등에 한국가요가 확산되자 북한은 1992년 6월 사회안전부 명의로 ‘행처불령의 노래를 부르지 말데 대하여’라는 지시문까지 하달하는 등 한국가요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노래 부르기는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한국노래 3-4곡 정도는 기본으로 부르고 있으며, 한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잘살고 자유스러운 나라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내외통신 964호, D3).

중국의 국경지역인 연길에는 북한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이다. 여기를 방문하고 있는 북한청소년들의 행동을 보면 그 변화는 매우 크다고 한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의 청소년들이 중국인을 만나 이야기하거나 자신들끼리의 모임에서 이전에는 오로지 북한당국과 김부자에 대한 충성구호 일색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행동을 스스로 어색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모여 놀 때에는 한국노래를 부르기를 즐겨한다고 한다. 연길지역에는 한국의 가요테이프가 상당한 양이 복사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그 가격도 비싼편이 아니라서 북한사람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한다. 여기서 구입한 테이프를 북한지역으로 가지고 가서 북한주민들에게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중국연변대학 허명철교수의 증언이다.

“현재 북한에서도 연변에 기업을 꾸리거나 무역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으며 일부 호텔이나 음식점에서는 주방장이나 홀씨빙하는 직원마저도 북한 아가씨들이었다. 사장님의 개인 기사로 일하는 청년은 중국어도 아주 잘했다. 차안에서 한국노래도 틀어 놓고 듣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북한사람인줄 모른다고 한다. 그에게 북한의 현 정세에 대해 물으면 북한이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며 또한 나쁘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단지 돈을 벌어서 잘 살면 되지 다른 것은 상관치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외 냉면집에서 일하는 북한 아가씨들이 있는데 북한 아가씨들은 한국인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다. 가끔 일부 한국 관광객들이 찾아가서 음식투정을 해도 그들은 종래로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전투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는다. 그들은 또 한국노래도 흥얼거리며 잘 부르고 있으며 현지 조선족 청년과 연애하는 애들도 있다. 한 사우나를 경영하는 북한 사람에게 한국손님을 데리고 와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아주 유쾌히 데리고 오라고 대답하면서 자기네는 한국사람을 단지 이곳을 찾아 주는 여느 손님과 마찬가지로 대할 뿐 한국인이라 해서 특별히 거절하지는 않는 다고 덧붙여 말하는 것이었다.“

2) 북한청소년의 자본주의 생활양식 수용

북한청소년층에 최근 반지끼기, 외국어로 쓰여진 티셔츠 및 청바지 입기, 장발, 디스코 춤등과 같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 모방이 유행하고 있다. 반지끼

기는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 남학생의 50%정도가 반지를 끼고 있는 실정이다. 청바지는 1989년 평양축전 이후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어 1993년 8월 김정일이 청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말씀」을 하달 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소년층에 장발이 유행하자 정무원 교육위원회는 1994년 1월 ‘청소년들의 사상무장강화와 단결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강인한 정신력 함양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의 머리를 삭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 인해 1994년 1월 겨울방학기간 동안 고등중학교 1-2학년생은 상고머리를 3-6학년생은 완전삭발을 하였다. 당시 월간화보 「조선」(94. 4)은 소년단 입단식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당시 소년단 입단식에서 완전삭발한 북한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볼 수 있다(내외통신 964호, D3).

한편 태권도복과 함께 비교적 여유있는 집의 청소년들은 그림이나 영어글자가 새겨진 티셔츠를 선호하고 있다. 이들 티셔츠는 대부분 재일동포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값이 워낙 비싸 한벌에 북한돈으로 2백~3백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티셔츠는 「자본주의 풍조」라는 이유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 옷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겹옷 안에 입고 다니다 동료들끼리 모였을 때 자랑삼아 보여주고 있다(조선일보, 1995. 4. 21).

3) 북한청소년의 범죄행위 증가

북한사회에서는 유아기에서부터 조직적인 정치사회화로 청소년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있지만 출신성분에 의한 사회적 차별대우와 사회적 좌절, 타율적인 과외활동과 사상교육, 그리고 이른바 ‘가정의 혁명화’로 부모와의 정서적인 가정생활이 결핍된 데 이러한 비행의 원인이 있다. 즉, 통제되지 못한 정서적 불안정이 사회생활의 경험에서 어떤 차질이나 갈등을 초래하면 반발의 심리적 근거가 마련되고, 사회제도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는 한 일종의 비행 심리가 근거에 잠재해 있어 기회가 허용되면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오정수, 1990 : 372).

북한은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일탈행위가 자유주의적 사조의 유입을 통하여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각종 조직과 보도 매체를 통

한 청소년 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부형회의를, 직장에서는 종업원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상 교양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교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북한연구소, 1983 : 919).

북한 청소년들의 성 문제도 경제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이다. 북한에서는 접대부가 술을 파는 술집이나 창녀들이 집단 거주하는 곳이 없어 외현상적으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나 음성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통, 강간 등의 성 범죄는 농촌 지역보다 도시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의 외항선의 출입이 빈번한 항구 도시에서 매음하는 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이미 동원단계 이후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과 각종 조직활동에의 참가, 연애와 혼인에 대한 당과 조직의 통제에 의한 부자유한 남녀관계에 그 원인이 있으며,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북한연구소, 1983 : 917).

또한 북한청소년들의 폭력조직에의 가담과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폭력조직 가담은 기존 폭력조직들이 세력확장과 더 많은 이권 확보를 위해 고등중학교 학생들을 조직에 끌어들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폭력조직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조직원 상호간에 우정을 나누거나 결속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부위에 문신을 새기고 「악아지」(배짱)을 키운다하여 다른 조직원들과 수시로 패싸움을 벌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내외통신 주간판 966호, 1995. 8. 17, F2)

한 국가내의 비윤리적, 반사회적 일탈행동으로 비행청소년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이다. 북한사회에도 상당수의 청소년 폭력조직이 있으며 1980년대 이후 각종 범법행위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 폭력조직은 원산, 함흥, 남포 등 외국인 출입이 잦은 항구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패싸움 등의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내외통신 종합판 제37권 : 333). 이러한 조직 폭력배들의 활동방향이 세확장 보다는 돈벌이 쪽으로 흐르고 있다. 북한 각지에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조직의 규모를 갖춘 것만해도 평양의 「진달래과」 등 적어도 1백여개 이상의 폭력조직이 있고 이 조직들은 각각 60-70명에 이르는 조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

을 종합해 보면 북한 폭력조직의 활동방향이 돈벌이 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이후 부터이다. 제한적이지만 자본주의 풍조가 스며 들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살자」를 조직의 최대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내외통신 주간판 966호, 1995. 8. 17, F2).

또 여기에 북한 치안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맞물려 ‘싸워보았자 다치기만 하고 남는 것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이유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조직폭력배들은 최근에는 각자의 소속 직장에서 신발 등 생활필수품을 빼내와 암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고 또 금이나 골동품거래와 같은 큰 장사거리가 생기면 조직원 전체가 역할을 분담, 중국 사람들과 밀거래를 하고 있다(중국인 최현의 증언). 이들은 이 처럼 번 돈을 전체 조직원이 호텔이나 외화식당에 가서 최일류급의 음식을 먹거나 TV 등을 사서 나누어 갖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내외통신주간판 966호, 1995. 8. 17, F2).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자 김정일은 1994년 6월경 「불량청소년이 급증하여 사회질서가 문란해지고 있으니 이들의 교양선도를 위해 사로청 활동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로청은 조직내에 「불량청소년 과외교양 지도사업부」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강도·절도·강간등 중범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사회안전부로 이첩하고, 학교 결석이 잦거나 자본주의 풍습을 유포·모방하는 청소년들을 색출하여 수시로 「사상투쟁회의」를 통해 교양 선도하고 있다(내외통신 964호 D4).

북한은 비행청소년들의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평양을 비롯 각 도 및 직할시 단위에 설치된 수용시설에는 주민통제조직인 이른바 ‘인민반’ 또는 ‘5호담당’ 조직 등을 통해 고발당했거나 사회안전부 계통에서 적발된 불량·비행청소년들을 강제 수용, 일반사회와 격리시키면서 주로 강제 노동을 통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또한 일단 수용된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면회도 허용되지 않는 등 일체 외부접촉을 금지당한 채 집단감금 생활을 감수해야 하며, 퇴소 후에도 광산, 탄광, 벌목장 등 중노동 노역장에 강제 배치되고 있다(내외통신종합판 제33권 : 485).

4) 도덕관과 윤리관의 해이

최근 북한이 우려했던 소위 「자본주의적 날라리 풍」이 청소년층에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폭력과 절도 등 각종 범죄의 증가와 효사상에 바탕을 둔 전통적 도덕관과 윤리의식마저 회박해져 사회의 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과 대중잡지 「천리마」등에 청소년들을 “공산주의 도덕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자”는 내용의 논조를 잇달아 내보내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예절교육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청소년층에 만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청소년들 사이에서는 ‘60이 동창이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도덕의식이 떨어진 상태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연장자들에 반말을 하거나 스스럼없이 담배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예사가 되어버린 일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의 장·노년층에서는 “젊은이들이 위 아래도 모른다”는 한탄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내외통신 964호, D4). 다음은 허명철의 증언이다.

“생각외로 북한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높다. 전에 북한에 보따리 장사를 다니던 사람의 말에 의하면 북한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예절바르고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열차에 올라타도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를 않으며 오히려 서로 밀치면서 자리를 다투는 것이다. 차안에서도 소매치기를 많이 하며 더우기 대낮에 강도행세를 하면서 장사꾼의 물건을 빼앗고 도망간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는 집단을 형성해서 도적질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고 한다. 일전에 평양의 한 박물관에서 골동품을 훔쳐 갖고 중국에 도망온자 역시 청소년들이고 독일산 세파트를 밀수해 중국에 팔려고 했던 사람도 역시 청소년들이었다”

5) 자유분방한 음악 선호

북한에서도 빠른 노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1980년대 보천보전자악단 등이 결성되면서 부터이다. 젊은층의 열광은 대단하여 보천보악단의 공연때에는 빈자리가 없다. 최고 히트곡은 휘파람인데 이는 1948년경 발표돼 주목받지 못했으나 80년대말 보천보악단의 이종오가 편곡해 히트하게 됐다.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던 가요 휘파람에 대해 북한자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진바 있다. 평양에서 발간되는 「조선예술」지 최근호는 <휘파람>

의 가수 전해영을 소개하는 가운데 이 노래가 “청춘남녀들이 아름다운 이상과 희망을 사회주의 건설의 약동하는 현실 속에서 꽃피워 나가는 생활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가사 ‘오늘 밤에도 불었네 ……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렀네 …… ’는 남녀사이의 애절한 사랑을 담은 가사와 경쾌하고 발랄한 리듬을 담고 있는 곡으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내외통신종합판(55) 보9312호, 1995. 1. 10 : 300). 이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노래들이 군가처럼 비정서적인 노래이었던 것에서 탈피하여 선율과 감정을 중시하는 노래로 바꾸어 발표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는데 있어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의 변화를 짐작케 하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이외에 [평양의 4계절], [내나라 제일로 좋아], [기려기때 날으네], [우리는 맹세한다], [경례를 받으시라] 등도 최근 유행하는 노래들이다. 제목에서부터 충성-체제선전 냄새가 물씬 풍긴다. 정책적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경쾌한 리듬으로 주민들이 좋아한다. 김정일은 “노래 [내나라 제일로 좋아]를 가지고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가극이나 연극, 영화 등의 주제가도 인기가 대단하다. [밀림아 이야기하라], [동지애의 노래] 등을 꼽을 수 있다. 북한가요도 라디오와 TV방송을 통해 전파된다. 방송광고가 없는 대신 모든 프로에 노래가 삽입된다. 주요 공연이 녹화·실황중계되기도 한다. 보천보악단의 공연이 시청률 1위이다. 중앙TV 주최의 [전국 근로자노래 경연]도 인기프로다. 지역별 예선을 거친 아마추어들이 노래솜씨를 경쟁한다. 1등에겐 컬러TV 등 고급 전자제품이 주어지며. 운이 좋으면 전문가수로도 발탁된다.

가수들은 대부분 각도의 예술전문학교 출신이다. 평양음악대학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전해영, 김광숙, 조금화 등이 최고스타로 꼽히고 있다. 가극 [피바다]의 주인공인 재일교포 조청미도 인기가 있다. 이들이 부른 노래테이프가 가장 많이 팔린다. 그래도 가수의 수입은 올라가지 않는다. 소속음악단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이다. 테이프 가격은 평양 제1백화점에서 개당 8원(1\$=2.15원)정도이다. 북한가요는 크게 혁명가요, 대중가요(통속가요), 노동가요 등으로 나뉜다. 혁명가요는 일제때 빨치산활동을 하면서 불려지던 노래이다. 북한에서 [통속]이라는 말엔 부정적 의미가 내포돼 있지 않다. 대중적이란 말과

유사하다. 북한에선 허스키한 목소리는 색정과 부화방탕을 조장하는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여 금기시한다.

6) 혁명성의 약화

(1) 청소년 직업관 변화

북한은 각급 학교의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농촌 등지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시키기 위한 선동사업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1995년 5월 23일 내외통신이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얼마전 농촌 자원 진출을 결의한 금성정치대학 졸업생들과 평양 시내 대학졸업반 학생들간의 상봉모임을 마련하고 참석자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초소로 달려나갈 것"을 촉구했다.

졸업을 앞둔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북한 당국은 참석자들에게 "자기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준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면서 농촌을 비롯해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 김정일에 대한 충신·효자의 도리를 다하라고 독려했다. 「로동청년지」는 또한 집단적 농촌진출을 자발적으로 결의한 금성정치대학 졸업생들의 행위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좌표를 어디에 정해야 하는가를 똑똑히 깨우쳐 주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들의 모범을 따라배울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 대학의 졸업생 17명은 평양근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 집단으로 농촌근무를 지원함으로써 김정일로부터 '노동당 후보당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청년들의 모범상으로 부각 선전되고 있다.

북한은 이밖에도 신문·방송등 선전매체를 통해 농촌등을 지원하고 있는 일부 청년들의 소행을 연일 선전하면서 이들의 '모범'을 본받아 생산·건설현장에 청년들이 적극 진출할 것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같은 양상은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다 생활환경이나 출세면에서 평양-지방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지방으로의 이주를 극히 꺼리고 있는데서 나온 것이다(조선일보, 1995. 5. 23).

(2) 「혁명가요」 가사변조 확산

북한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혁명가요」의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현

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사상성 또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만을 강조하는 북한의 가요에 대한 식상과 반발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변조된 가사의 내용은 대부분 북한사회의 비참한 현실, 과감한 성 묘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80년대 후반 인기를 얻었던 영화 「봄날의 눈석이」 주제가의 가사가 바뀐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사랑을 하면 했지 이 내 가슴은 왜 만져요/ 내 무슨 염소 가슴 인줄 알아요』 이 노래 본래의 가사는 『순결한 사랑에 빠진 그 마음 무슨 죄란 말인가/ 아 정다운 나의 애달픈 사랑아 ...』이다. 또 빈번한 행사 준비연습과 동원, 그리고 당 간부의 부정부패와 어려운 식량사정을 비꼬아서 다음과 같이 각각 바뀌어진 가사로 부르고 있다.

△『꼭새야 뽀꼬야 문둥이야/ 너희들은 어디로 가니/ 모란봉경기장 찾아서 훈련하러 간단다/ 꼭새는 꿀을 넣고 뽀꼬는 빼기선수/문둥이는 문지기 선수 공격수 하란다 ...』

△『앞에서는 받는척/ 뒤에서는 쏴라닥 거리는/ 찌꺼기 찌꺼기 때려 부시자』

△『언니 언니 가매목에 앉아서/ 애용애용 밥먹어라/ 아침 저녁 돼지고기다』

「꼭새」는 꿀추를, 「뽀꼬」는 절름발이를, 「빼기」는 다니면서 내는 소리를, 「가매목」은 부뚜막을, 그리고 「애왜용」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말하고 있다. 한편 북한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가사변조에 대해서 엄격한 금지조치를 내리고 있다(내외통신주간판 953호, 1995. 5. 18).

(3) 북한 청소년의 영화관 변화

북한의 극장가가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극장가는 1990년대 초 무렵부터 주 고객층인 청소년들의 외면으로 불황이 시작했다. 북한 청소년층의 극장 외면은 동구영화 수입금지에 따른 흥미 감소, 사상성만 강조되는 북한영화에 대한 싫증과 반발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이전 즉, 옛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기 이전 북한의 극장들에서는 평균 1주일에 1회꼴로 이들 나라의 영화들이 대부분 초만원에 이른 가운데 상영됐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는 여가수단이 없어 극장 만큼

은 거의 불황을 모르고 운영돼 왔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선전을 해도 좌석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영화들이 과거보다는 간접적으로 사상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영화가 밑바탕에는 청소년들이 식상해 하는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각지의 극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영화보급소와 함께 인근의 공장·기업소에 영화필름을 대여해 주거나 「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영화를 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근의 공장이나 기업소에 대여해 주는 영화 1편의 값은 대략 3백원(북한화)이고 이 돈은 주민들의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영화는 화면의 배경에 화려한 한국사회의 모습이나 연애장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의 「민족과 운명」 시리즈가 대표적인 영화이다(내외통신주간판 948호, 1995. 4. 13).

한편 북한은 최근 청소년영화 창작과 관련하여 청춘남녀들의 사랑문제를 깊이있게 형상할 것을 제시했다. 이 잡지는 특히 『청소년영화에 사랑문제를 제기하고 깊이있게 풀어 나가는 것은 그들의 생활자체의 요구』라면서 청소년영화에 사랑문제를 삽입하지 않았을 경우 청소년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음을 시인했다. 또 『영화에 사랑성을 넣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였다(내외통신 9506호, 1995. 5. 19 2편).

7) 북한 청소년변화의 제 요인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화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를 새롭게 규정 지우는 직접적 동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교육수준의 급등으로 인한 자의식의 상승현상이다. 즉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92. 12. 5자)에 의하면 1992년 당시 북한에는 김일성대학을 비롯, 단과대학과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을 포함하여 총 280여개 대학이 있으며 이를 통해 1백60만명의 인텔리들이 배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로 미루어 북한의 학력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북한정권의 정치사회화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둘째, 국제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통제의 약화현상이다. 이는 유비통

신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보통제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정보망이 대두될 것으로 보아 북한청소년들의 기존 체제에 대한 비판의식도 고조될 수 있다.

셋째, 생활조건의 개선을 시도하는 사회정책의 변화이다. 1984년 이후 김정일의 지시로 인민생활상을 위한 갖가지 정책적 조치들이 취해졌다. 그 결과, 여가문화 시설의 확대, 문화적 욕구의 상승, 외화상점의 등장, 영어교육의 장려 등 외래문화의 수용태세가 폭넓게 준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북한주민, 특히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의 생활문화가 종래의 획일적이고 순종지향적인 형태에서 점차 비판적이며 비교적인 형태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데올로기교육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체적 인간상’이 쇠퇴하고 그 대신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이 발달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개인주의적 성향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앞으로 남북한 청소년들 간에는 상호 동질성이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도홍렬, 1994 : 159). 다음은 북한에서 귀순한 전우철의 이야기이다(동아일보, 1995. 6. 3).

“북한의 세계화는 유학생의 동구권 파견과 합영법을 들 수 있다. 84년 동구권 나라들을 순방하던 중 김일성은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과 북한과의 엄청난 경제적 수준차이에 놀랐다 …… 당의 지시에 의해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의 기술을 배워오기 위해 유학생들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또 몇년 뒤에는 외화도 벌고 현장기술도 익힐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닌 노동자들이 산업 연수라는 명목으로 동구권에 파견되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동구권이 개방개혁정책을 실시하고 남한 대사관이 들어선 후 그들이 개방·개혁사상에 물들거나 남한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해 모두 북한으로 철수시키고 말았다.

또 80년대 중반에 북한 경제에 외국의 발전된 기술과 자본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보려고 합영법을 내놓았다. 그러나 외국기업들과 합작투자의 길을 넓혀주려고 만든 이 법은 자유사상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 불안 가능성을 우려한 북한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유명무실해졌다. 북한에 투자를 하는 한국기업들도 이런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제 유지가 최대 목표인 북한정권은 북한에 투자한 남한 기업들이 체제 유지에 불안한 요인을 제공한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모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나라 책자들과 영상매체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지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잡지나 영상매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입하고 있다. 평양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내에서 가장 유명한 도서관인 평양 대학습당에는 특별열람실이 설치되어 있다. 그곳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 발전된 나라들의 기술잡지와 책자들이 배열되어 있는데 특히 일본책자가 제일 많았다. 유능한 과학자를 비롯, 특별 열람증을 지닌 지정된 사람만이 출입이 가능했다. 인민대학습당에 공부하러갈 때마다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과 부러움에 찬 눈길로 특별열람실 주변을 기웃거리던 일이 생각난다.

인민대학습당 영상실에서는 이따금씩 일본 과학기술 다큐멘터리를 상영해주곤 했는데 공대 교수들이나 공과 대학생들만 출입을 허용해줄 때가 많았다. 로봇 팔이 뻗어나와 자동차 용접이나 조립을 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고 연신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과학영화를 일부에게만 보여준 것은 발전된 자본주의에 대한 동경과 사대주의 사상이 생기는 것을 우려해서였다.

또 인민대학습당에서는 구(舊)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나라들의 도서상품전도 자주 열렸다. 이때는 도서상품전이 열리는 공간에 정보 부족에 시달린 사람들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양 가득 모여들어 호기심이 잔뜩 어린 눈으로 외국 잡지들을 열심히 훑어보곤 하였다. 자존심이 강하고 동구권의 붕괴로 불안해 하는 북한 정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경제 협력의 길을 터나가는 것이 북한을 조금이나마 세계 무대로 끌어내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장 조직생활의 한계와 전망

1절 조직일탈 증가

북한의 절대이념인 주체사상을 통한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와 집단생활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념과 현실간에 큰 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현실과 이념과의 괴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조직화와 집단생활에는 많은 거부감과 저

항 요소가 대두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이러한 일탈현상의 증대에 대해 북한 당국은 이를 억압적으로 통제해 왔으며 앞으로도 억압적으로 통제하려고 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이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청소년 조직과 생활에 큰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최근의 일탈현상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일탈의 제 사례

1) 체제비판의 증대

북한사회내에서도 김정일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투서와 유인물 배포등 체제비판 행동이 수시로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러한 체제비판 행위들은 북한청소년들의 사상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의 사상동요는 무엇보다도 그 동안 단절됐던 외부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동서 냉전체제의 붕괴로 자유세계의 실상을 인지한 동구 및 구 소련 유학생들이 평양으로 소환됐고,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북한이 90년대들어 관광산업을 강화하고, 대외문호를 조금씩 열면서 외국관광객과 해외동포들의 방북 사례가 늘어나 그 만큼 청소년들이 외부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유입된 외부소식에 비례하여 청소년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기 시작 한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외부소식과의 접촉은 체제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남·대미 가치관을 1백80도 전환시키고 있다. 현 북한경제의 빈곤함, 통제정책 등과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체제의 폐쇄성과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족벌정치의 모순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사상 동요는 특히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발효(92. 2)와 미국과의 관계 대일 수교협상 등이 진행되면서 더욱 증폭되기 시작했다. 유치원 시절부터 「미국놈 까부수기」, 「남조선 괴뢰군 몽둥이 까기」 등으로 대미·대한 적개심으로 세뇌된 이들에게 이같은 평화회의 진행은 사상적 혼란과 가치관의 혼돈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내외통신주간판954호, 1995. 5. 25).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후 북한에서는 김정일체제를 빗대는 각종 은어

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체제에 대한 북한청소년들의 속마음을 읽을수 있는 은어들 가운데 '돌망치'란 것이 있는데 이는 김정일의 무능과 무교양을 빗댄 말이며 김정일지시로 대학에 특별 입학한 고위 당정간부의 자녀들은 '지시생'으로 불리고 있다.

또 당의 지시에 따라 아무 글이나 써내는 어용작가를 '대서사'라는 은어로 비꼬고 있으며 당의 선전 선동만 일삼는 실속없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빈달구지'로 호칭한다. 이밖에도 '호제꾼'(상습적인 강간범), '뺑까우리'(농촌출신 사병), '먹을밥'(뇌물), '재앙당'(노동당중앙위가 주민들에게 재앙만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로 중앙당을 지칭하는 말), '자유주의자'(일은 열심히 하지않고 쉴렁대며 노는 사람), '재털이'(이 남자 저남자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관계하는 지조없는 여자), '야생'(밤에만 돌아 다니는 불량배), '깡'(청소년층에서 예쁜 처녀를 지칭하는 말), '빈대 탄다'(몸에 기생하는 빈대까지 탈 만큼 극심한 북한당국의 노역착취를 말함)등이 최신 은어로 등장했다(한국일보, 1995. 5. 19).

한편 북한청소년들과 주민들 사이에는 당의 식량정책을 조롱하는 유행어가 확산되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유행어는 식량난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표출과 당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말 것을 은연 중 부추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특히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한 유행어로는 「영양실조자」를 가리켜 「사회주의를 지키는자」로 부르는 것이 꼽히고 있다. 이 말은 아무런 부업없이 당의 지시대로 직장 노임만으로 생활하다. 영양실조로 부황이 들어 출근조차 못하게 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는 유행어이다. 부황으로 몸이 부은 상태를 보고 『살이 썩 것을 보니 사회주의를 지키기는 지켜야겠다』며 당의 지시를 그대로 따른 어리석음을 조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행어의 실제 의미는 주민들의 배고픔을 외면한 「주체농법」과 비효율적인 「사회주의 체제고수」를 독려하고 있는 당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내외통신주간판 949호, 1995.4.20). 다음은 허명철의 증언이다.

“1993년도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와서 그 집에 놀러 갔다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 집에는 손님 세 분이 와 있었는데 한 분은 북한에서 친척방문을 온 친구의 외삼촌이고 다른 두분은 한국에서 부역차로 온 사람과 강지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미국계 한국인 목사였다. 비록 그들은 신분이 다르

지만 그러나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북한에서 온 사람은 자기네가 지금 어려운 생활을 겪고 있다는 것, 자기가 중국에 건너올 때 가족들의 한달 식량으로 감자 한 마대를 구해 놓았다는 것, 현재 연변과 접한 지역의 북한 주민들은 저녁이 되면 가만히 연변텔레비죤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특히 ‘서유기’를 즐겨 본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행 정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비판을 진행하면서 하루속히 개방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살 것 같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겁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지금 이런식의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물론 국내에서는 이처럼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뒤에서 가만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다”

2) 사상학습 회피

최근 북한의 청소년들은 김일성·김정일 문헌을 통한 사상학습을 회피하고, 김정일을 조롱하는 풍자어가 난무하기 시작했으며, 보고 들었던 자본주의 생활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청소년들이 김일성·김정일 문헌학습을 회피하고 있는 것은 생전의 김일성이 주민들에게 각종 「공약(公約)」을 제시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진게 없어 회의감과 불신감이 증폭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북한 청소년들사이에서는 「생활총화」시 발표하게 되어 있는 「김일성교시」와 「김정일말씀」을 자작하고, 적당히 꾸며서 발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일성교시」와 「김정일말씀」이 수없이 많은 데다 내용 또한 뻔하여 조작해 발표해도 주위에서 발표내용을 비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의 김정일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가면서 김정일을 비판하고 조롱할때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라는 호칭 대신 “김정일 대통령은 여자에 환장하면 했지 김광숙같은 헛네기에게 인민배우 칭호를 줄 수 있는가” 등으로 김정일을 비난·조롱하고 있는 현실이다(내외통신 964호, D2). 북한청소년들이 김정일을 「대통령」으로 빗대어 호칭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사상교육시 ‘제국주의국가에서의 대통령은 독

점재벌의 정치적 이익과 부르조아 독재를 옹호하는 반인민적 통치자이다'(조선말대사전)로 매도하고 있는데서 나온 것이다.

3) 우상화 파괴 현상

북한에서의 김일성 우상화물에 대한 훼손사건의 발생이 증대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다녀 온 재일조총련 간부들에 의하면 이같은 사건은 김일성 사망 직후에 일부 국경도시들을 중심으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함북 온성군에서는 1994년 8월 김일성사적비 훼손사건이, 평북 신의주에서는 12월 김일성초상화 화재소실 사건 등이 발생하여 북한당국을 긴장케 했다. 함북 온성군에서 발생한 김일성사적비 훼손 사건은 군내 남양노동자구 두만강변에 위치한 「상탄 사적비」가 무려 80여군데나 파손된 채 발견 됐으며, 신의주에서는 낙원동 소재 「낙원농기계공장」앞에 설치된 김일성의 대형 초상화가 방화로 보이는 화재로(기름을 뿌리고 소각함) 인해 소실된 것이다.

「상탄사적비」는 김일성이 빨치산 시절 중국을 왕래하기 위해 이용하였다는 두만강 상탄나루터를 우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해 4월 건설됐다. 그리고 낙원농기계공장 앞의 대형초상화는 1960년초 김일성이 현지공장을 방문, 현지지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은 함북 및 평북 도보위부원들을 현지에 파견, 약 1개월 동안 인근 주민 및 군인, 기름취급자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탐문수사와 잠복근무 등을 전개 하였으나 범인 검거에는 실패 하였다고 한다. 이후 북한은 각 가정의 유선 스피커 방송을 통해 이들 사건을 『수령 사망을 기화로 간첩이 민심을 교란 시키기위해 자행한 일이다』, 『정신병자의 소행이었다』는 등으로 발표한 후 일체의 발설을 금지 시켰다(내외통신주간판 947호, 1995. 4. 6).

한편 최근 외국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유학생들 방에는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이를 우연히 보게되는 외국인들에게 전에는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조 섞인 말로 불 필요조차도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풍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북한청소년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김정일 체제의 한계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북경대학생 임경수의 증언이다.

“내가 나이가 많은 북한 사람을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그저 반복해

교육당한 공산당체제의 희생물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1인우상화 그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모두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방에도 몇차례 방문할 수 있었다. 벽면에 두 장의 초상화. 그 밑에 훈시인듯한 표구 한 장. 그리고 단체사진 등 간결했다. 그리고 그들은 매주 토요일 사상학습을 한다고 들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선 일체 함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무슨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고 그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듯한 태도(불필요가 없다는듯한 태도)를 볼때에 나는 아! 이들도 이제는 그렇게 우매하지만은 않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에게도 이제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 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들에게선 선천적으로 정의 많고 불의와 타협않는 정의감 넘치는 성격을 볼 수 있었다”

4) 조직질서 파괴

북한에서는 최근 새치기와 불량한 복장 등 기초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이 강화되고 있으며 노동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공중도덕 준수의식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신세대 청소년들에게서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이와 관련해 『자기 조직과 집단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공중도덕을 어긴다면 사회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새세대 청년들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언제나 공중생활 질서와 규범에 맞게 해야한다』면서 공중도덕 준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로동청년은 『청소년들이 단정치 못한 옷차림이나 비문화적 행동을 하거나 자기만을 생각해 끼어들고 버스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를 비웃으며 경멸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내외통신9509호, 1995.5.22 2편).

한편 최근 북한사회에는 국가지원의 미비와 일선작업반의 소극적인 자세로 국가적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기관지 로동신문은 황북 봉산군 독정리당위원회를 예로 들어 당의 농업정책 관철을 위한 일선간부들의 역할제고를 강조하는 가운데 농촌지역의 작업반장들이 위로부터의 지원만 바라거나 여러가지 이유를 내세워 당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지적하고 「태업분위기」가 만연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내

2절 청소년사회화 강화

1. 청소년사회화 강화정책 대두

1) 사상강화 정책

최근 북한 청소년들의 사상 동요현상과 이에 대한 정책적인 통제가 심화되고 있다. 북한은 관영선전매체들을 통해 청소년들의 「혁명성 약화」를 경고하는 논·사설을 잇달아 발표했다. 또 관련 기관·단체들의 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1995년 3월 9일 『새세대들의 혁명적 각오가 견결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장문의 사설을 게재했고, 이에 앞서 2월 11일에는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하지 않고 계급적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무덤을 파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청소년들의 사상이완을 경계하는 글을 실었다.

1995년 2월말 평양에서는 각 도·시·군연합기업소와 대학사로청 일꾼 및 청소년 사상사업 관계자 등 3천여명이 동원된 「전국사로청 일꾼대강습회」가 개최됐고, 강습회에선 청소년들의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토의됐다. 북한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조하고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의 사상적 변질이 위험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같은 현상이 가시화 되기 시작하면서 체제존립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내외통신주간판 954호, 1995.5.25).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당국은 최근 새 세대들의 「혁명성 약화」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청년학생들의 「혁명성」문제를 거론하는 장문의 사설을 통해 『새 세대들은 간고한 시련을 헤쳐온 전 세대들처럼 혁명적 각오가 견결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혁명화하는 사업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로동청년은 이어 새 세대들을 혁명화하지 않을 경우 『안일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더욱 좋아할 수 있으며 불건전한 사상에 물젖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청소년들 「혁명위업의 계

승자」라고 말하고 이들을 혁명화하는데 있어 주력해야 할 사향을 「당의 근위대·결사대」로 준비시키고,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강력한 조직성·규율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동청년은 이와 함께 『개인주의·이기주의는 마약』이라고 강조하면서 『부르조아사상과 날라리풍을 비롯한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풍조도 우리 내부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새 세대들의 사상적 이완 현상에 경계심을 나타냈다(내외통신9454호, 1995. 4. 15 1편). 또한 각종 집회와 회의, 논조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전사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기관·단체들의 역할강화를 역설하고, 청소년들에게 혁명전사로서의 자세 견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석된다.

첫째는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체제의 중심 기반이 될 청소년층의 사상적 동요를 최대한 억제시켜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구 소련 및 동구국가들의 민주화와 개혁 물결과 개방정책에 의한 소구문화의 유입등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계층에 전파·확산될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사상적 혼돈과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켜 김정일체제의 불안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쟁 수행을 위한 혁명전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 긴장감을 고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사상적 이완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청년학생층의 군입대 기피현상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근 북한의 청년학생들 사이에서는 과거 앞다투어 군에 자원입대하던 현상이 줄어들고 오히려 군입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군입대를 꺼리는 이유는 과거 군에 입대하면 배고픔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는데다 입당과 대학진학의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특혜를 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0년이라는 장기 군복무 후에도 직장배치시 아무런 특혜없이 탄광이나 간척지 등 산간오지에 집단배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배금주의·외화송배주의 사상 등이 만연하여 부수입이 많은 상점 점원, 운전사, 식당 종업원 등 서비스 업종이 인기직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이유 등으로 북한 당국은 청소년들이 「김정일의 혁명전사」로서

의 자세견지와 「조국보위 초병」으로서 군에 자원입대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내외통신종합판(55) 보942호, 1995. 3. 2. : 262-3).

2) 서구 비판교육 강화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당국이 청소년들에게는 『미국에 대해 조금의 환상도 갖지 말것』을 강조하면서 「사상교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청년층을 중점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북 관계개선에 따른 미국의 최종적인 목적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를 와해시키는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경계를 촉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각 단위 사로청위원회 주도로 『제국주의 자들과 자본주의에 대한 자그마한 기대나 환상도 가지지 않고 원수들과 끝까지 싸울 혁명적 각오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교양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을 요구했다. 사로청은 또 청년기동해설대를 조직해 소련이나 동구국가의 붕괴에 따른 사회혼란상을 부각선전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사회주의 체제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로동청년은 전했다(내외통신9451호, 1995. 4. 13).

최근들어 청소년들에 대한 도덕·사상교육과 반미학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텔레비전 폭력·선정 문화가 청소년 폭력범죄의 대부분이 영화에서 모방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미국사회에서 범람하는 폭력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살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부패한 자본주의 제도하에서는 청소년 범죄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서방국가로부터의 폭력·선정문화 유입과 이에 따른 사회주의 체제고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내외통신 9511호, 1995. 5. 23).

3) 청소년 직업의식 강화

북한에서는 최근 여성 트럭 운전자, 탄광 광부 등 이른바 3D업종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최고 우대직종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함경북도 길주군의 한 초급사로청위원회는 3D업종에 관한 「궁정감화교양사업」의

진행을 통해 여성 트럭 운전자·탄광 광부·신발 수리공·재봉공 등을 「공산주의미풍의 선구자」, 「우리 시대 청년의 참모습」 등으로 소개하면서 이들의 모범적 활동사례를 「청년전위 영예등록장」에 기록, 각종 표창과 함께 답사, 견학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여성 트럭 운전자 및 탄광 광부들의 「모범기풍」을 청년들 속에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강연회를 비롯해 해설담화, 독보회, 실효모임 등 선전선동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동청년은 이와 함께 이곳 청년들의 직업의식에 대해 「이전에는 청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영예감을 가지지 못하고 안착되어 일하지 않는 현상이 발로되었다」고 강조, 북한청년들의 3D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청년들이 3D업종에 대한 근무를 기피함에 따라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회와 인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것이 참된 공산주의적 인간형」이라고 강조하며 고등중학교 졸업생이나 제대군인 등을 이 분야에 적극 진출시키고 있다(내외통신 9456호, 1995. 4. 17 2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직종을 기피하는 3D현상이 북한에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이 직접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김정일 자신이 기피직종에 종사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을 「좋은 동무들」이라고 평가하면서 감사를 보내는 등 분위기 잡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북한방송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김정일은 정무원의 각 행정부서와 산하기관 종사자, 대학졸업생 등이 농촌이나 탄광에 「진출」한 사실을 보고 받고 이러한 사례들을 널리 확산토록 강조하고 있다. 1995년 4월 23일 중앙방송은 이와 관련해 김정일이 정무원 교육위원회 실장, 외교부 산하기관 과장, 김일성종합대학 「박사원생」, 평양연극영화대학 교수 등 『사회주의 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이들이 『영원히 인민경제의 최전선을 지켜나갈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일은 이에 앞서 졸업을 앞두고 농촌 근무를 자원한 17명의 금성정치대학 학생들에게 「노동당 후보당원」 자격을 부여토록 조치함으로써 신세대들의 3D부문 진출을 독려하고 있다. 이 처럼 근로조건이 열악한 분야에 대한 진출을 김정일까지 직접 나서서 독려해야 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인민경제의 선행 부문인 농업과 석탄공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기

피하는 현상이 신세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내외통신 9513호, 1995. 5. 24 2편).

4) 청소년층의 긴장의식 주입

북한은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긴장의식을 불어 넣고 있다. 「계급교양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같은 사상교육은 청년들에 대해 충성심을 함양시키고, 노동의욕을 고취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전개되고 있다. 로동청년이 보도한데 따르면 북한은 새 세대 청년들에게 50, 60년대 자신들의 부모들이 겪은 생활을 체계적으로 해설·선전함으로써 『부모들이 발휘한 충실성과 불굴의 투쟁정신을 이어 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각급 공장·기업소의 초급사로청위원회 주관으로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시절」 등의 제목으로 강연·해설·담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은 글 발표모임」도 갖고 있다. 또 6.25에 참가했던 노병이나 「노력영웅」들과의 이야기 모임을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으로 살며 싸워 나갈 결의를 다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내외통신 9462호, 1995. 4. 20 2편).

5) 청소년층의 자본주의생활 통제

북한은 최근 청소년 학생들이 자본주의 사상과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전 사회적으로 지도·통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사로청기관지 로동청년은 청소년학생들에게 「공산주의 도덕기풍」을 철저히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사로청주관 아래 『개인·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자본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대중적으로 강하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동청년은 이어 사로청간부들이 『외부로부터 부르조아 도덕과 생활양식이 언제든지 침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청소년층에 대한 「공산주의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관심을 높일 것을 독려했다. 이를 위해 사로청조직이 청소년층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각 가정과 연계, 가정교양을 병행해 나갈 것도 촉구했다. 로동청년은 또 사로청조직의 당면과제가 바로 청소년층에 대한 이같은 사상강화라고 지적하면서 「공산주의 도덕기풍」을 확립시키기 위한 학습·강연·해설담화

· 이야기모임 · 연구토론회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했다(내외통신 9484호, 1995. 5. 4 2편).

이러한 북한당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화 정책과 통제의 강화는 역으로 북한 청소년의 변화가 체제에 심상치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된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화 정책과 통제의 강화는 이들을 체제에 묶어 놓기 보다는 청소년들의 반항의식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앞으로 북한 청소년 조직과 집단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이는 북한체제 유지 자체에 커다란 한계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VI 결론 : 요약 및 제언

1장 내용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민족의 민족적 과제는 통일이며 이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주체가 될 것이다.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또 다른 주체인 북한청소년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미래 통일의 향방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북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지금까지는 자료의 한계, 방법론의 미확립 등으로 초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청소년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하에 청소년 연구를 연계시키는 지역 연구의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 청소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수행되었다. ①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 및 연구결과 제공 ② 전체인식을 토대로 한 북한 청소년 이해 ③ 북한청소년 변화에 대한 동태적 인식 ④ 북한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차원의 인식 ⑤ 통일정책수립에 필요한 아이디어 모색 등에 목적을 두고 연구가 수행되었다.

2. 연구방법

북한사회에 대한 연구는 자료수집과 선택 등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몇가지 좀더 높은 수준의 질적인 연구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현상학’적인 바탕을 지닌 질적 연구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연구자는 일단 자신의 가치, 선입관 등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주관적인 세계 속에 스스로를 위치시키고 연구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선택성’의 원리를 들 수 있다. 이는 주요 사회변동이

정치적 선택 즉 정치엘리트의 결정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시각인데 북한의 특성이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북한사회를 연구하는데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 문헌조사와 면접방법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북한체제의 특징과 청소년

1장 북한의 체제적 특징

1절 북한 정치·경제체제의 특징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북한체제는 노동당이라는 유일당이 국가를 조직·지도하고 지배하는 ‘당·국가’원리와 그것에 기초한 ‘당·국가체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서 체제의 강화를 위해 주민들에 대한 사상강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 정치체제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당·국가체제의 구축 ② 수령의 유일영도 체제화 ③ 김정일체제 등장 ④ 정치체제 하부구조로서의 청소년조직과 활동. 이러한 북한정치체제의 속성으로부터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화가 진행되어 왔고 이로부터 북한청소년들이 받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편 사상강화가 심화 될수록 반대로 북한청소년들의 당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 또한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2. 경제체제의 특징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소유제도, 자원배분의 원리, 의사결정수준, 분배제도 등에서 자본주의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북한경제의 특성은 사회주의식 소유제도,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한 북한경제는 ①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②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배합 ③ 계획의 일원화·세분화원칙 ④ 독립채산제의 원칙 등을 경제관리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공산주의적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생산성의 저하이다. 이로부터 북한경제의 침체현상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인 경제개방정책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실패와 새로운 경제개방정책 그리고 이를 통한 서구문화의 유입 등은 북한 청소년 조직과 활동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으로부터 당의 경제정책은 사로청과 소년단에까지 하달되어 청소년 조직들이 경제활동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조직과 활동에서 경제활동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2절 북한 사회체제의 특징

1. 공산주의의 두 가지 사회체제 유형

파킨에 의하면 사회주의국가들의 사회구조에는 크게 두 가지 모형이 있다. 하나는 무계급 모형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서구자본주의적 계급구조와 유사한 모형이다. 전자는 초기의 ‘사회주의적 재건기’에 보다 적합한데 비해 후자는 공업화단계에 돌입하는 현대 사회주의국가의 모형이다. 현재 북한의 경우는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공업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자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북한의 사회체제

북한사회체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 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고 단일정당에 의한 완전한 지배권이 확립되어 있는 사회
- ② 주체사상과 당의 유일 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획일적 사회
- ③ 집단주의적 원칙에 준거한 통제적 조직사회
- ④ 공산주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인간개조 작업이 끊임없이 수행되는 사회
- ⑤ 새로운 유형의 계급사회가 형성되는 사회

3. 사회운영의 기본원칙

북한사회운영의 가장 큰 기본원칙으로서는 ① 집단주의 ② 조직화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의 집단주의원칙은 북한헌법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듯이 사회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청소년을 비롯한 전체 주민의 생활원리로 운영되고 있다.

두번째의 조직화란 북한에서 노동당에 의한 주민통제는 각종 외곽단체인 사회단체들을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한다. 북한에서의 모든 사회단체는 경제단체이자 정치외곽단체이다. 이와 같이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화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한 공동체적 생산을 수행하는 사회적 원칙으로서 전사회를 구조적으로 구속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청소년 조직과 집단생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4. 사회단체

북한에서의 사회단체들은 철저하게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단체는 약 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직맹’, ‘농근맹’, ‘사로청’ 등과 같은 하부조직으로서 가맹원을 두고 있는 단체들이며, 다른 하나는 ‘조평통’, ‘조국전선’ 등과 같이 하부조직이 없이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들이다.

2장 북한의 청소년 정책

1절 북한의 사회화 정책과 청소년 사회화

1. 북한의 사회정책의 기본방향

북한에서의 사회정책은 청소년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공산주의 인간화, 노동계급화, 주체사상적 인간화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주요 사회화 정책과 청소년 정책 및 활동의 대부분은 김정일에 대한 충성활동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2. 북한에서의 사회화

북한에서의 사회화는 체제유지를 속성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이데올로기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궁극적으로 정치사회화를 추구하는데 있다. 북한에서 정치사회화를 통해 만들려고 하는 인간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인간’이며 이는 김정일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사회주의적 혁명을 위해 죽고사는 도구적 인간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화에는 통제주의와 강제성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북한청소년들의 조직과 활동도 정치사회화의 통제성·강제성을 기본원리로 채택하여 운영되고 있다.

3. 북한 청소년 사회화의 단계

북한 청소년은 유아기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각 단계에 맞는 사회화 절차를 교육받고 있다. 시기적으로 ① 영·유아기: 탁아소·유치원교육 ② 아동기: 인민학교·소년단 ③ 초기 사춘기: 고등중학교·사로청 ④ 후기사춘기: 대학교·사로청단계활동 단계를 거치면서 사회화되고 있다.

4. 북한의 청소년 사회화 이념

북한의 청소년 사회화는 기본적인 ‘이념적 틀’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곧 혁명분자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라는 3대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三化)를 말한다. 이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 사회화는 학교중심형 사회화와 산학연계형 사회화로 나뉘어 진다. 특히 산학연계형 사회화는 청소년들의 사상강화는 물론 노동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절 청소년 사회화 방법과 동원수단

1. 청소년 사회화 방법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화는 통제주의와 강제성을 기본원리로 하여 ① 교수교양방법 ② 조직생활 강화방법 ③ 대중화방법 ④ 교육과 노동의 결합방법 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방법 ⑥ 집단동원방법 ⑦ 병진방법 등을 채택하고 있다.

2. 동원 수단

북한은 청소년들의 사회화에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의 동원수단을 이용한다. 대표적인 것이 규범적 수단, 물질적 수단, 그리고 강제적인 수단이 그것이다. 규범적인 수단이란 긍정적, 상징적인 힘으로서 교육, 사회화, 위신의 제공, 인정, 사랑등을 포함한다. 두번째로 강제적 수단이란 부정적인 또는 물리적인 것으로서 법규, 규제, 체벌, 형벌 등을 가르킨다. 세번째로 물질적 수단이란 기술적 혹은 유용적인 힘으로써 임금, 보상, 보너스, 승진 등을 포함하는 자극 등을 말한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물질적 수단에는 장학금 지급, 진학, 취업, 영웅칭호 부여 등이 있다. 북한은 청소년 조직을 지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구사해 왔다.

III 북한 청소년 조직과 활동

1장 학교조직과 생활

1. 교육정책과 제도

북한의 교육정책의 지침은 1977년 9월 5일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이다. 여기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만드는 것을 교육정책의 최종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공통점은 정치사상교육이 위주이며 그 다음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교육과 노동교육이 병행되고 있다. 여기서 학교교육의 과업으로서는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의 완수를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혁명인재를 키우는 공식적인 조직이 학교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의무교육제도를 통해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 만큼의 보상으로 노동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2. 학교의 정치적 통제

북한의 교육행정조직의 가장 큰 특징은 당의 절대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교내에는 ‘초급당위원회’가 있다. 이는 행정은 물론 인사문제까지 깊숙히 개입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학의 경우에는 ‘전임당책임비서’를 두고 그 밑에 ‘대학당위원회’, ‘학부당위원회’ 등을 통해

당의 지시를 전달·통제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의 교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이기 이전에 당의 지시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학교의 운영방안은 노동당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어 나간다. 1990년대 이후부터는 노동당의 과학기술정책이나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학교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정책에 학교조직과 교원들은 전위대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3. 학교생활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① 학교수업 ② 특별활동 ③ 과외활동 ④ 의무노동 ⑤ 군사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특별활동의 경우는 학교행사나 직업준비과정으로서의 학생회, 음악반, 연극부, 운동부 등의 특별활동과 정치조직과 연결된 특별활동으로 구분된다.

한편 과외활동은 동원지시가 있을 때는 농촌자원활동이나 학교내작업등을 하며 동원지시가 없을 때는 달리기, 체조, 군중무용등이나 분야별 학습활동을 한다. 학생들의 의무노동은 ‘내각결정 18호’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다. 이는 과외활동과 맞물려 농촌지원활동, 건설지원활동, 군대지원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4. 학교내 동년배 집단생활

이는 비공식적인 사회화로서 청소년기의 동년배 집단생활은 청소년들의 도덕적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고교나 대학에서의 동년배 집단생활은 급진적인 정치적 태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년배의 영향은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우선 사회의 문화를 전수하녀, 정치정향과 태도 등을 상호간에 전달한다. 북한 학생들의 동년배 집단의 경우 극히 친밀한 경우에는 당의 정책이나 고급당원들에 대한 비판등과 같은 체제에 비판적인 의견도 교환된다.

2장 소년단

1. 조직의 창설 · 임무 · 목적

1946년 1월 창설된 소년단은 현재 약 350만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단의 임무는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라는 三化에 있다. 三化의 임무를 띤 소년단의 목적은 ① 공산주의 후비대로 양성 ② 노동과 사회봉사활동의 실천 ③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 강화 ④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심 강화 등에 두고 있다.

2. 소년단 조직구조

소년단은 독자적인 조직기구는 없으며 노동당의 위임에 의하여 사로청중앙위원회가 지도한다. 소년단들은 지역별, 학교별로 조직운영된다. 소년단에 대한 실적적인 지도는 당 또는 사로청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중에서 열성적인 자를 선발하여 지역 사로청위원장 명령에 의해 소년단 지도원으로 임명하여 담당케 하고 있다. 학교 소년단 밑에는 학년별로 분단이 있고 학급별로는 반이 있다.

3. 활동 내용

북한의 소년단 활동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활동내용으로 구분해 보면 ① 통치자에 대한 충성활동 ② 노력동원 · 사회봉사활동 ③ 체력훈련활동 ④ 문화예술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소년단의 충성활동은 지금까지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활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김일성 사망 이후로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활동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서는 ‘3백만 총폭탄, 6백만개의 수류탄’이라는 구호 아래 김정일을 ‘소년단원들의 자애로운 아버지 · 위대한 태양’으로 선전하면서 충성활동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노력동원은 꼬마계획, 외화벌이운동, 군대돕기운동 등의 내용으로 소년단 활동을 생산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장 사로청

1. 설립과 가입

사로청은 1946년 1월 17일 ‘로동청년동맹’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64년 5월 12일 사로청이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14-30세에 해당되는 청소년 또는 청년이다. 현재 단원은 800만이나 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2. 목적과 임무

사로청의 목적은 로동당의 후비대로서 공산주의 인간으로 완성시키는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① 학생들에 대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 교양 ② 공산주의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정치학습 조직 ③ 학생의무노동 조직 및 감독 ④ 기술혁명으로 생산능률 제고 ⑤ 체력증진, ⑥ 공공재산 수호정신의 고취 ⑦ 반제국주의 투쟁의 선전선동 ⑧ 김일성 혁명전통 교양사업 지도 ⑨ 계급교양사업 지도 ⑩ 학생들의 교외활동 지도 ⑪ 소년단에 대한 지도

3. 기능과 사업

사로청은 조직의 목적에 따라 ① 정치사상교양 ②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력동원 ③ 조국보위사업과 통일을 위한 투쟁 ④ 소년단사업 책임지도 ⑤ 국제청년운동전개 ⑥ 간부양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밖에 신문으로 ‘로동청년’, ‘새날’, ‘소년신문’을, 잡지로는 ‘청소년 생활’, ‘새세계’, ‘새희망’ 등을 발간하고 있다.

4. 조직 구조

사로청의 조직은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앙부서는 조직부, 선전부, 국제부, 학생소년부, 노동청년부, 체육부, 대학생청년부, 재정경리부, 노동청년신문사, 사로청출판사, 중앙학교 등을 산하에 두고 있다. 지방조직은 도·시·군 기층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인민군대 내에도 사로청 조직이 있다.

5. 활동 내용

사로청의 주요 내용을 성격상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통치자와 당에 대한 충성활동, ② 사상·도덕교육활동, ③ 노력동원 및 사회봉사활동, ④ 국방체육 및 문화예술활동, ⑤ 대외활동 등이다.

여기서 대외활동은 국제교류를 말하는 것으로 1946년 ‘세계민주청년연맹’에 가입한 이후 주로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등의 청소년조직과 교류를 맺고 제국주의 타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공동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최근에는 주로 쿠바, 라오스와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IV 북한 청소년 조직과 활동의 기능및 결과

1장 북한 청소년 조직과 활동의 기능

북한에서의 청소년 조직과 집단활동의 기능과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우선 체제유지를 위한 공산주의적 인간조형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체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조작업이 최상의 가치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1. 사상심화의 기능

북한의 청소년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을 확고히 심어 주는데 있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통치이데올로기는 북한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도록 마비시켜 북한공산체제의 리더쉽, 즉 지도자(김정일)와 당의 실정에 대해서 둔감케 하거나 판단력을 무디게 한다.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을 조직생활을 통한 정치사회화를 통하여 체제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치이데올로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청소년 조직이 북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① 자기의 사적 생활영역과 ② 개인의 행복 그리고 ③ 양심과 도덕의 인격울이 부여하는 영적 생활의 보호 등을 스스로 거부하도록 자극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성을 상실한 무조건적 복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변신케 하기 위한 재사회화의 기능을 담

당하고 있음을 말한다.

2. 통치자 우상화의 기능

한 개인에 대한 우상화 정책은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북한은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일 가계에 대한 우상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북한 청소년 조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화정책이다.

북한은 1995년도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라면서 전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에 대해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북한은 매스컴을 통해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임무는 『김정일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사명을 청소년들이 완수하기 위해서는 김정일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동원의 극대화 기능

북한의 청소년조직은 ‘사회주의의 건설과 혁명’이란 명분으로 사회 각 분야에 걸친 동원을 극대화하는 데서 그 힘을 철저히 발휘하고 있다. 동원이란 행동 단위의 잠재적인 에너지를 집단 행동에 이용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사적 목적으로 부터 공적 목적으로 자원의 통제력을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원방법은 결국 ‘행정적 방법’이나 ‘물질적 방법’보다 ‘정치사업’을 통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으로서 자각을 가지고 혁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정치사상적으로 발동시키는 방법만이 참다운 혁명적 방법이라는 주체사상의 논법에 준거한 것이다. 이것은 곧 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킬 수 있을 때 효과적인 동원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 조직을 통한 청소년 동원에 있어 정치사상교육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정치사상교육은 청소년 조직을 통할 때만이 그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데에서 북한 청소년 조직의 의미를 재평가할 수 있다.

4. 남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구조형성과 선동의 기능

청소년 조직을 통한 활동과 교육은 북한 청소년들의 남한에 대한 인지구조

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지구조는 수령과 혁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고 1인 독재의 정당성을 더 한층 확고히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남혁명의 정당성마저 부여하게 된다.

북한은 청소년 조직인 사로청을 비롯한 사회단체를 동원해 대남선동을 벌여왔다. 이들의 대남선동과 비방은 북한청소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제 2 장 결과: 북한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양식

북한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은 집단과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 사회화되고 있다.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신 프로이트학파의 주장이 있다. 아들러(Alfred Adler), 호니(Karen Horney), 프롬(Erich Fromm), 슐리반(Harry Stack Sullivan)을 포함한 학자들은 개인을 개인의 생물학적 욕구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사회 및 문화에 의하여 성격의 형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1. 집단주의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공리주의에 입각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북한에서 집단주의가 발달하게 된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집단노동을 사회체제 유지·발전의 근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구성원리는 군중노선이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은 세계의 주인,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 사회적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적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다. 북한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사람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와 집단의 한 성원으로서 살아 간다고 보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얼마나 이바지하는가 하는 것이 생활의 가치척도로 되어 있다’라고 교육시키고 있다.

2. 가부장주의(paternalism)

북한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조직생활을 통해 절대자의 절대권위와 조직의 철저한 권위체제하에서 가부장주의를 습득하게 된다. 가부장주의에서 지배자는 주인(patron)이며 피지배자는 가신(cliente)이 된다. 가부장주의가 지배적 이념으로 북한 청소년들에게 주입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에게는 가신주의(家臣主義)의 인성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권위주의와 의존성

윗 사람에 대한 가부장주의는 곧 아랫 사람에 대하여는 권위주의로 연결된다. 지도자와 지도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은 곧 사회질서 전체에 권위주의를 일반화 하게 되어 청소년들의 인성은 권위주의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이는 조직의 위계적 관계를 내면화 시킴으로써 견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심리적인 동일시는 북한의 경우 김일성과의 관계에서 잘 나타났다. 집단주의의 성향을 가진 북한 청소년에게 내재해 있는 김일성의 가치규범은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된 초자아의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북한 청소년들은 자신들과 높이 솟은 아버지의 상으로서의 김일성과 동일시하게 되므로 김일성에게 절대적인 복종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비판은 자기 자신과 연결이 되는 심리 역동적인 힘이 작용하므로 절대적인 자기방어가 작동하는 것이다.

4. 배타주의

북한 청소년들은 조직생활을 통하여 다른 국가나 민족의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지적 자율성을 배제해 왔다. 지배이념으로 교육받은 것외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며 이는 자율적이고 진실로 주체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 청소년들의 인성은 권위의 직속계통과 자기집단 이외에는 배타주의적이고 적대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5. 수동성

북한 청소년들은 집단생활을 통해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받아 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명령이 있기 전에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위하지 않는 습성이 배어있다. 개인의 자발성에 의해 행위를 선택하도록 사회화된 것이 아니라 중앙의 계획과 동원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타율적이고 수동적으로 사회화되어 있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생산성 저하와 동기유발의 부재를 낳고도 있다.

북한 청소년들은 창의력이나 개인간의 경쟁이 부족하고, 개방적인 환경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순간적으로 선택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우 서투르고 적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 몰개성화

북한의 청소년들은 집단 안에서 자기 정체감을 얻고 집단규범을 행동의 좌표로 삼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는 집단의 가치와 규범이 작용하여 개인의 개성을 무시하므로 몰개성화된다. 즉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 정체성을 잃고 집단 속으로 익명화되는 것이다.

7. 가족적 온정주의

북한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인식되는 성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가 발달해 있다. 이것은 집단주의에서 집단간의 경쟁이 야기시킨 집단내부의 통합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통해 타 집단과의 경쟁의식을 고조시킨 결과 타집단에 대해서는 냉혹하리만큼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지만 자기집단의 성원에 대해서는 가족과 같은 온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억압이 강한 사회에서는 가족내부의 정서적 유대가 발달하기 마련이다.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면 시민사회의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원초집단(primary group) 으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8. 남북청소년의 이질성 심화

사실 인식에 있어서 북한 청소년들은 한국과 기타 외부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거나 또는 상당히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고 그러한 정보나마 거의 일방적으로 전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앞으로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대화를 한다면 상호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함은 물론이고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V 북한 청소년의 변화와 조직생활의 한계

1장 북한의 변화

1절 북한체제의 변화

1. 북한 대외 인식의 변화

북한지도부의 대외인식과 그 변화는 바로 사회정책에 그대로 반영되며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의 사회화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데올로기 중심의 대외인식하에서 자본주의국가들을 제국주의로 규정하여 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동유럽의 개혁, 중국의 자본주의경제의 도입 등에 충격을 받은 이후 북한지도부는 현실주의적 인식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국내 정치·경제의 변화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북한 내부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김정일체제의 등장은 현재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와 맞물려 경제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제고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사회체제에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청소년 사회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조직의 목표와 이에 따른 활동내용들이 최근 들어 사상교육강화, 경제활동참가를 위한 선동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사회의 체제가 조금씩 변해 가면서 서구문화유입(서구광고·코카콜라·서구스포츠등), 배금주의 등장, 사유재산제 등장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화, 직업관 변화 등도 수반되고 있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북한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면서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도 그에 따라가고 있는 경향이다.

2절 북한 변화의 한계

북한사회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변화가 수반되고 있으나 북한체제의 속성상 그 한계점은 크다할 것이다. 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변화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이며 따라서 그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 개방의 한계

북한의 개방은 경제난 타결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개방이 허용되어 라진-선봉지역에는 성분이 좋은 주민들을 선별하여 입주시키고 일대에 철조망을 가설하여 이지역을 ‘비자유경제무역지대’로 제한시키고 있다는 데에서도 그 한계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5년 들어와서 북한주민들은 물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왜곡된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주의체제 고수와 사유재산제 비판

북한이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문화가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하자 청소년들에게 ‘사회주의를 버리면 죽음’이라는 경고를 주면서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배금주의 풍조가 확산되기 시작하자 사적소유제도는 ‘반인민적 소유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부작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하였다.

3. 체제위협의 요인

북한은 최근들어 개국 이래 최대의 식량난을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경선

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반인들은 물론 사상무장이 갈되어 있는 젊은 군인들이 8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체제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4. 사회부조리의 증대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외부소식과 자본주의 생활양식이 조금씩 유입되면서 북한사회에는 부패현상도 증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배금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사회부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북한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를 모방하는 사례가 증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관료들의 부패가 심각화되고 있으며 주민들과 심지어는 교사들까지도 금품을 요구하는 행태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5. 사회주의 사회문제의 제 요인

사회주의에서의 사회문제는 초기단계와 후기단계에 따라 그 성격에 큰 차이가 난다.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적 계급갈등에서 분출되는 이슈가 부각되며, 후기단계인 어느정도 사회주의 체계의 기초가 형성된 이후에는 산업화에 의한 사회문제와 사회주의적 가치·규범과 괴리된 행위들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나타난다. 현재 북한의 경우는 초기단계를 벗어나 후기단계로 들어가는 단계에서의 사회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도 이미 사회주의혁명 초기단계는 지났으며 후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주의 가치와 현실과의 괴리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들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6. 북한청소년 변화의 유형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북한사회내에 자본주의적 문화형태들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들어 북한 당국은 청소년들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자본주의적 날라리풍’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북한청소년들의 변화에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으로 1989년 평양에서 개최된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지적할 수 있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세계 각국 청년학생들의 자유스런 몸짓과 복장은 하나의 ‘충격’이었으며 북한청소년들 자신들의 모습과 북한의 현실을 뒤돌아 보게한 계기가 되었다.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문화와의 접촉
- 2) 자본주의 생활양식 수용
- 3) 범죄행위 증가
- 4) 자유분방한 음악 선호
- 5) 혁명성 약화

7. 북한 청소년 변화의 제 요인

북한 청소년 변화의 요인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육수준의 급등으로 인한 자의식의 상승이다.

북한은 경제적 수준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다.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사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따라서 북한정권이 의도하는 정치사회화의 효과가 감소될 수도 있다.

- 2) 국제화·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통제의 약화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유비통신을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정보통제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정보망이 대두될 것으로 보아 북한 청소년들의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의식도 고조될 수 있다.

- 3) 생활조건 개선의 시도하는 사회정책의 변화이다.

그 결과 여가문화시설의 확대, 문화적 욕구의 상승, 외화상점의 등장, 영어교육의 장려 등 외래문화의 수용태세가 폭넓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이 발달할 것이며 나아가 개인주의적 성향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조직생활의 한계와 전망

1절 일탈현상 증가

북한의 절대이념인 주체사상을 통한 북한청소년의 사회화와 집단생활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념과 현실간에 큰 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현실과 이념과의 괴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조직화에 집단생활에는 일탈행위가 증대하

기 시작하였다.

북한청소년 조직과 생활에 큰 저해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일탈현상들은 1)체제비판의 증대현상, 2) 사상학습 회피현상, 3) 우상화파괴현상, 4) 사회기강의 해이현상 등이다.

2절 청소년사회화 강화

북한은 김일성 사망이후 김정일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체제의 중심기반이 될 청소년들의 사상적 동요를 최대한 억제시켜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하고 있다. 구 소련 및 동구국가들의 민주화와 개혁물결과 개방정책에 의한 서구문화유입등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 전파·확산될 경우 견잡을 수 없는 사상적 혼돈과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켜 김정일체제의 불안요소로 등장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상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 내용들을 보면 1)사상강화정책, 2)서구비판 교육 강화, 3)직업의식 강화 4)긴장의식 주입, 5)자본주의 생활통제 강화등이다.

2장 제언

1. 정부—청소년개발원—청소년학회—대학연구소간의 공동연구체계가 필요하다.

- 1) 북한 청소년 연구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 그리고 연구방법의 다양화와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등이다.
- 2) 이를 위해서는 각계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3) 동시에 정부의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문화체육부와 협의하여 남북한 청소년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한다.

2. 북한 청소년 연구에 대한 각계 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 북한 청소년 범

죄가 증가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할 청소년 범죄에 대해 법조계와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그외에도 교육계는 물론 스포츠, 음악, 영화계등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 이후를 대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3. 해외의 북한 관계 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외국의 연구단체, 재외공관, 교포단체 등으로부터 북한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연구방법 등을 수집함은 물론 공동연구도 가능하다. 한국에서 얻을 수 없는 북한자료를 이들로부터 입수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중국연변대학의 동북아정치연구소내의 한반도문화연구실에서는 최근 북한연구를 프로젝트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연구위원 2명을 북한으로 파견하여 전반적인 북한주민들의 생활상에 관한 자료들을 입수 정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북한청소년의 생활에 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와 연구결과물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한국의 북한청소년연구에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세계의 북한관계연구소들의 연구결과물과 연구현황에 관한 자료들을 파악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하고 풍부한 자료들을 입수할 수 있다.

4. 교육부와 일선학교에서는 북한 청소년에 관련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1) 교과서에 북한청소년편을 수용하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 국민윤리교과서나 정치경제 또는 국어교과서 등에 북한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을 삽입하든가 하나의 과목을 만들어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상과 의식구조 등을 한국학생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한다.
- 2) 각 대학에 교과과정에서 북한 청소년에 관련된 내용들을 커리큘럼화 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북한학과, 청소년학과, 사회학과, 정치학과 등은 ‘북한청소년’을 커리큘럼화 하는 것이 가능한 학과들이다.

5. 청소년단체와 수련시설 등에서 북한청소년에 관련된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우선 각 단체나 시설간의 협의체에서 북한청소년에 관련된 활동이나 프로그램개발에 상호 이해를 같이 해야 한다.
- 2)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수련활동 등에 북한청소년편을 넣는 방안을 모색한다.
- 3)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도자들에게 북한 청소년 실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4) 단체활동이나 수련활동시 북한 청소년 실상에 관한 비디오 상영 및 토의를 진행케 한다.
- 5) 활동내용에 북한에서 청소년들에게 시행하는 각 방법을 모의실험케 하는 것도 북한 청소년을 이해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6. 북한 청소년 실상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 1) 우선 한국에서 발간되는 청소년 신문·잡지 등에 북한 청소년 소식을 정기적으로 보도하는 방법이 있다. 북한 청소년에 관한 전문잡지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 2) TV프로그램이나 CATV에 북한청소년 프로그램을 고정시키고 여기에 북한에서 월남한 귀순자들을 대거 출연시키는 방법도 있다. 이는 좀더 생동감있는 북한 청소년 생활상을 보여 줄 수 있다.
- 3) 또한 북한 청소년에 관련된 사항들을 비디오로 편집하여 학교는 물론 각 청소년 단체와 수련시설등에 보급하는 방안을 수립한다.

7. 북한 청소년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집 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북한소식이나 연구의 일부에 국한되어 왔던 것을 확대해야 한다.

- 1) 앞으로는 북한 청소년에 관련된 연구내용을 별도로 편집하여 독자적인 북한청소년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해야 한다.
- 2) 연구결과물들 이외에도 북한 귀순자들의 수기들, 해외에서 북한 청소년

들과 접촉한 사례나 수기 등을 모집하여 그 내용들을 정선하여 하나의 모음집을 만들 수 있다.

- 3) 이에 대한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가진다.

8. 통일원에서는 북한 청소년에 관한 자료집을 별도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통일원에서는 북한 청소년에 관한 자료들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 개발된 자료들을 청소년 단체나 시설은 물론 각급 학교에 정기적으로 배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인 학술발표회를 개최하여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학문적 교류, 정보교류 등의 계기를 확대해야 한다.

9. 국민들의 북한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1) 북한 청소년 조직이 주체적으로 한국청소년학생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노동당의 대남선전과 공작에 철저히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 2) 북한 청소년들을 획일적으로 인식하는 데에서 오는 편견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에서도 인간적인 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한국 청소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동질적인 요소도 있다.
- 3) 최근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에 이들과 일차적으로 접촉해야 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변하고 있는 실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1 단행본

- 강기호·차호원(1987), 「집단상담의 이론과 기술」, 교보문고.
- 고영복(1970), 「사회심리학」 민조사.
- 국토통일원(1981), 「북괴노동당 및 외곽단체현황」.
- 극동문제연구소(1974), 「北韓全書(中)」.
- 김일균(1994), 「통일대비 남북청소년교류정책방향」, 문체부청소년육성위원회.
- 김재구(1986), 「집단지도의 이론과 실제」, 문헌사.
- 김진계·김용교(1990), 「조국」 上편, 현장문학사.
- 김학준외(1987), 「남북의 생활상」, 박영사.
- 권명천(1983), 「북한공산주의」, 대왕사.
- 곽연호(1987), 「인간관계론:조직행동과 인간관계」, 박영사.
- 곽문정 외(1990), 「북한경제의 전개과정」,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 북한연구소(1981),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비판」, 북한연구소.
- 북한연구소(1994), 「북한총람 : 1983 - 1993」.
- 북한연구소(1977), 「북한교육론 북한연구총서 제 4집」.
- 서동익(1988), 「북에서사는모습」, 북한연구소.
- 서재진·김태익(1992),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 송광성(1993), 「북한청소년생활」, 한국청소년개발원.
- 신철균(1990), 「북한의 정당·사회단체 현황」,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 안병영(1982), 「현대공산주의 연구」, 한길사.
- 안택원(1987), 「신소련정치론」, 박영사.
- 양성철외(1986), 「북한기행」, 한울.
- 양호민외(1984), 「공산주의비판」, 극동문제연구소.
- 유석렬(1988), 「북한정책론」, 법문사.
- 이온죽(1990), 「북한사회연구:사회학적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신문화연구원(1987), 「북한체제연구」, 고려원.
 정치교육연구회(1989), 「공산주의:체제와 이데올로기 비판」, 문우사.
 조갑제·정호승(1990), 「김현희의 하나님」, 고시계.
 중앙교육연수원(1981), 「북한주민의 한평생」, “김일성의 축하문:전체소년들에게:1971년 6월 6일”.
 통일연수원(1995), 「북한이해」.
 통일원(1979), 「조선노동당 주요 외곽단체의 조직 및 활동」.
 최명(1990),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평화통일연구소(1986), 「북한개요」.
 한국청소년학회(1994), 「청소년학연구」.

II 논문

김남식(1991), “북한의 권력구조변화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1호(통권9호), 국토 통일원, 1991년 봄호.
 김성일(1990), “북한의 청소년의 교육실태”, 「북한」 221호.
 김영숙(1984), “북한의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남식(1988), “당.수령.대중조직.” 「사회와 사상」, 한길사.
 도홍렬(1994), “남북한 청소년의 생활과 문화”, 「청소년학연구」.
 도홍렬(1990),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최명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박문갑(1989), “북한정치사회화에 관한 연구”, 건대박사논문.
 서재진(1993), “주체사상과 민족주의”, 「민족통일연구원 개원 2주년 발표논문」.
 서재진(1992), “북한주민의 인성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서대숙(1990), “정권 수립과 변천 과정”, 최명편, 「북한개론」.
 양재성(1993), “북한의 경제”,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북한실태편」.
 엄종식(1988), “청소년문제”, 「통일한국52」.
 오정수(1990), “사회변동과 사회문제”, 최명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유인택(1995), “북한95년 신년 공동사설분석 : 김일성유령통치체제의 북한”, 「북한」, 1995년 2월호.

- 유재천(1990), “북한사회.문화:교화 도구화의 문제점”, 이상우외편, 「북한40년」, 을유 문화사.
- 윤황(1995), “주체사상과 자본주의적 시장개방의 결합관계: 김정일정권의 일당 세습 독재체제의 유지와 관련하여”, 「북한」, 1995년 3월호.
- 이병혁(1990), “사회구조와 생활 실태”, 최명,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 이상민(1992), “정치구조와 권력세습”, 고성준외편, 「전환기의 북한사회주의」, 대왕사.
- 이상희(1992), “북한의 주민동원에 관한 연구”, 통일원, 「북한의 정치사회화 실태」.
- 이용필(1982), “남북정치체제의 변화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4권 제1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춘재(1993),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유석렬(1987), “일탈:원인·유형·통제 방법”, 고현욱 외 편,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전인영(1990), “북한의 외교정책”, 최명편, 「북한개론」.
- 차경수(1994), “남북한 청소년정책 비교”,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 최운실(1990), “북한 청소년의 과외활동과 사회교육”, 「북한」.

III 북한 자료

- 강민구(1989),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 「근로자」.
- 김송기(1972), “청소년을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사상의 실현,” 「근로자」 12호.
- 김용일(1991), “빨갇이 전야에”, 「청년문학」 1991년 3월호.
- 김은석(1991), “푸른 꿈,” 「청년문학」.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권, “정치사업은 곧 사람과의 사업이며 이것은 당사업의 기본이다”, 제 2판
-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 김정일(1988), “주체의 혁명관을 톤튼히 세울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 앙년감 1988」, 조선중앙통신사.
- 김정일(1994),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로동신문, 1994.11.1」.
-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3), 「백과전서」 4권.
- 백보흠(1988), “절정”, 「공화국창건 40돐 기념작품집, 보금자리」, 평양:문예출
판사.
- 북한사회과학원 주체경제학연구소(1985), 「경제사전(1)」.
- 북한사회과학원철학연구소(1988), 「철학사전」, 도서출판 힘.
- 사회과학연구원(1975),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리론」.
- 사회과학출판사(19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 사회과학출판사(1973), 「정치사전」.
- 사회과학출판사(1985), 「인간개조리론」.
- 조선로동당출판사(1968), 「김일성저작선집」 5권.
- 조선로동당출판사(1980), 「김일성저작선집」 제 12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과학원, 「정치사전」.
- 조선로동당출판사(1968), 「김일성 저작선집 2」, 조선로동당출판사.
- 조선로동당출판사(198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 한정남(1991), “심장의 외침”, 「청년문학」, 1991년 1월호.
「로동신문」, 1989.7.31.
「로동신문」, 1980.10.11.
「조선로동당규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로동청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IV 내외 통신 및 일간지

「내외통신 종합판」 1-55호

「내외통신 주간판」 961-978호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V 영문 자료

Alexander Dallin and George Breslauer(1970), "Political Terror in the Post-Mobilization Stage,"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Stanford University Press.

Amitai Etzioni(1964), *Modern Organizations* Engli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Bogdan, R. & Taylor, S.(1975),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New York : Wiley. Mesa-Lago, C.

B. Shertzer & S. C. Stone(1980), *Foundamentals of Counseling* Boston : Houghton Mifflin Co.

Chalmers Johnson ed.(1970),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Press.

J. Cohen and J.P. Schapiro ed.(1974), *Communist Systems in Comparative Perspective*,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J. Warters & K. Young(1960), *Group Guidance*, New York : McGraw-Hill Book Co..

J. French & B. Raven(1968), "The Bases of Social Power", In D. Cartwright & A. Zander, *Group Dynamic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M. Sherif & C. F. Sherif(1969), *Social Psychology*, New York: Harper & Row.

- M.K. Jennings & R.G. Niemi(1974), *The Political Character of Adolescence*
; *The Influence of Family and Schools*, Princeton:Princeton
University Press.
- P. B. Horton & C. L. Hunt, *Sociology*, Tokyo : McGraw-Hill Kogakusha
Ltd.
- R. Middleton & S. Putney(1963), "Student Rebellion Against Parental
Political Beliefs, " *Social Forces*.
- R.M. Christenson ed.(1981),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 Ted Tapper(1969), *Political Education and Stability*,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